



眞理正義
自我進就

濟大新聞

발행인 高長權 주 간 梁京柱
부주 간 高榮哲 편집장 朴炳春
발행소: 제주대학교 교내 신문사
(690-756) 제주시 아라동 산 1번지
전화: 54-2278~9 / FAX 56-2204
인쇄: 한라일보 사

제517호

(주간)

[1954년 5월 27일 창간
[1986년 4월 28일 제3종 우편물(나)급인기]

The Che-dai Shinmoon

1995년 1월 9일 월요일

1

지난 19일 '본교 발전후원회' 발족 각계인사 51명과 도내언론기관등 17개단체 참여 “도민의 자존심으로 제주대학을 키워나가자”

우리대학 발전후원회(회장 이근보 전제주도지사 1회졸)가 지난 12월19일 신제주 그랜드호텔에서 관계자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식출범했다.

고장권 총장인사, 발족취지문 낭독 및 초대위원 소개, 준비위원장 인사, 우리대학 현황보고 순으로 진행된 이날 발족식에서는 발전후원회 회칙제정, 임원선출, 후원회 운영 및 활동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날 발족식에서 신형철 교수(기획연구실장)는 발족취지문을 통해 “우리는 지방대학, 특히 우리 지역 유일의 4년제 종합대학인 제주대학교가 경쟁력의 확보에서 타 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 속에 놓여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제주대학교가 발전할 때 제주도의 미래가 밝게 다가 온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그 첫걸음을 내딛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발족의 의의를 피력한 후 발전후원회의 사업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발전후원회는 앞으로 우리대학의 ▲대학발전기금조성에 관한 사항 ▲지역 사회와의 협력 및 유대 강화를 위한 사항 ▲총장이 자문과 협력을 요청하는 사항 ▲기타 후원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사업을 전개하게 된다.

후원회가 구성된 취지와 의의를 살펴보면, 추진배경과 관련해 우리 대학에서 국제화, 정보화, 개방화, 사회경제적 변화와 대학간 경쟁체제의 도입을 전제로 하여 정 부차원의 대학경영방향 등 전반기적 시대상향을 고려해 볼때 우리 대학 나름대로 미래의 제주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직면한 과제로 인식하고 대응양식과 발전전략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의 일환으로 이를 추진해 왔다. 또한 지방화의 진전과 함께 우리대학이 제주사회의 유일한 국립 종합대학으로서 그에 걸맞는 새로운 대학위상을 정립해 나간다는 점에서 이번 구성되는 발전후원회는 2천 년대를 준비하는 첫 발걸음으로써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를 가져 볼 수 있다.



◇지난 12월29일 우리대학 발전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이날 발족식에서 발표된 후원회 위원 및 지원단체를 보면 후원회 위원은 도내 주요 기관장을 비롯 한 현·전직 국회의원·단체장·기업 대표 등 각계 유력인사 51명으로 구성되었고 후원단체는 도내 5개 언론사 및 우리대학 총동창회, 기 성회 등 도내 17개 기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제정된 회칙에 의하면, 후원회의 임원은 회장 1명을 비롯, 부회장 5명(상임 1명, 총무담당 1명, 섭외담당 3명) 및 간사를 두는데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되, 상임부회장은 총장이 되며 간사는 우리대학 기획연구실장이 된다.

또한 후원회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회장단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이사는 회장이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위원은 회장과 상임부회장의 협의에 추가로 추대할 수 있으며 서울, 부산, 일본 등의 지역에 따라 지역별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전임 총·학장을 포함한 약간의 고문을 두되 회장과 상임부회장이 협의하여 추대토록 하고 있다.

이날 발족식에서 제1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근보 회장은 발족식 이 끝난 후에 기자회견을 갖고 “각 지도층에 있는 분들과 함께 대학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제주대를 명문대학으로 만들기 위해 제주도민들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고 발전기금 조성을 위해 이벤 트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대학 발전후원회가 공식출 범한 데에 대해 도내 일간지들은 사설을 통해 “대학당국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결코 대학의 질적 발전과 도약을 성취할 수가 없으며 거도적 성원과 자원이 절대 필 요하다”며 “제주대학교 발전위원 회의 출범을 계기로 대학과 도민들이 하나가 되어 제주대학교를 도민의 자존심으로 키워나가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내보냈다. 또한 “다소 늦었지만 제주대학교발전후원회의 출범은 대학발전을 위한 전위이자 초석이 될 것”이라며 “제주대학교발전후 원회 발족은 국제화·개방화·지방 화시대에 부응하고 지방대학이 안 고 있는 취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에 대학인은 물론

도민들에게도 상당한 기대를 걸게 하고 있다”고 발전후원회의 발족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였다.

한편, 지난 12월30일 발전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강 근수 제주도지과의사회장, 강운호 제주지방 변호사회 회장, 강창수 한국 자유총연맹 제주도지회장, 고 창실 제주전문대학 교수, 고철수 금강종합건설 회장, 김태환 제주시 장, 서영진 세일종합건설 회장, 이 용희 제주의료원장, 장시영 삼남석 유 회장 등 모두 9명이 발족후원 회 이사로 선임되었다.

발족식에서 선출된 임원명단을 보면 다음과 같다.

▲회장=이근보 前제주도지사
▲상임부회장=고장권 제주대총장
▲총무담당부회장=김창진 총동창 회장
▲섭외담당부회장=송봉규 한림공회회장, 서상훈 명지건설회 장, 변성근 총동창회남부회장.

본사시령 강운실(행정 1) 김이진(국민 1)
1월5일자로 본사 기자에 임 명함.

신년사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자

우리는 지금 불과 5년 앞으로 다가온 21세기를 내다보며, 그리고 민족의 숙원인 통일과 선진조국의 미래를 그려보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 우주의 어둠을 뚫고 찬란하게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여러분의 꿈과 소망도 아름답게 펼쳐 지기를 기원합니다.

친애하는 濟大人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세기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반성과 미래에 대한 성찰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세기말의 의미는 역사적 通過祭儀의 시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기말의 징후는 요즘, 사회의 여러분야에서 거대한 물결처럼 도도하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전통적 가치관과 윤리관이 흔들리는가 하면, 또 다른 곳에서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이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의 현장에도 마침내 무한경쟁의 파고와 밀려와 치열한 국제 경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 할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임무이자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은 결코 지난 한 세기의 아픔을 다시 재현해서는 안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변한다 해도 우리는 새로운 역사의 주체로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사는 자들에게 주어



총장 고장권

진 준엄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재대인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사명은 낙후된 교육환경과 대학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해서 대학사회를 총체적으로 개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출발점은 대학의 구성원들이 주체적으로 의식을 개혁하고 대학발전에 앞장서서 참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은 밤을 새워 면학에 정진하고, 교직원들은 자신이 맡은 업무에 헌신적으로 솔선수범하며, 교수는 바람직한 교육을 위해 연구와 교육에 열정을 쏟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결된 노력과 협력이 이루어질때, 우리 대학은 넓은 인습을 과감히 털어내고 새 역사에 부응하는 선진 대학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학의 개혁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만 성공할 수 있

고, 올해의 학사행정과 교육목표 또한 여러분의 뜨거운 동참 없이는 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乙亥년에는 무엇보다도 온 제주인의 관심사인 의대 설립인가를 반드시 획득하고, 소기의 발전기금을 모금하여 대학발전의 근간을 확고히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개방화, 세계화에도 창조적으로 대응하면서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사행정을 과감히 쇄신하고 교육환경을 시급히 개선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대학의 모든 교직원과 학생, 동문, 후원자 여러분에게 뜨거운 애교심으로 일치단결하여 협조해 주시기를 호소하는 바입니다. 그 길이 바로 제주대학교를 참된 개혁의 길로 인도하고, 나아가 세계 속의 선진대학으로 이끌어 올리는 첩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濟大人 여러분! 역사는 언제나 적극적으로 창조하는 자의 몫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난 새해 아침을 맞으며 우리 모두 뜨거운 애교심으로 다시 뭉칩시다. 그리고 제주대학교의 교세를 키우고, 21세기의 명문대학으로 육성하는 일에 동참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새역사를 개척하는 교육개혁의 주체가 됩시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제주대학교 위에 신의 은총과 사랑이 충만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지면 안내

- △2면: 총동창회장 신년사, 새해에 바란다
- △3면: 세계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방향과 도민의 대응자세
- △4~5면: 해방50년·분단 50년...
- △6면: 발전후원회장과의 대담
- △7면: 제대 발전후원회에 거는 기대

- △8면: 94학생회 평가
- △9면: 새해 달라지는 것, 달라져야 할 것
- △10면: 대학종합평가인정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11면: 기획좌담-개선돼야 할 생활문화, 신문문화
- 당선자 인터뷰
- △12~13면: 보도기사
- △14~16면: 제 14회 백록학술상 시상작 발표

1995년도 외국어교육관 특강안내

세계화, 개방화 그리고 정보화 시대에 외국어는 필수 요건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지하 1층, 지상 3층 2,500㎡규모의 외국어교육관을 1994년 8월 전국 국립대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독립건물로 완공했습니다. 외국 유명 대학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한국 최고/최신 시설의 외국어교육관은 급변하는 국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다양한 외국어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연구/교육함으로써 탁월한 외국어 구사능력과 국제적 안목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제주도의 국제화에 건인차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외국어교육관은 1994년 11월부터 1995년 2월까지 한국 최고/최신 Computer, Audio & Video System을 갖추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1995년 3월부터 정규 교과과정의 외국어 강의는 물론 생활영어 프로그램, 취업·진학·외국 유학을 위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다음과 같이 영어 특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직원·재학생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교육기간

- 평일반: 1995. 3. 2~1995. 5. 30. 매주 월~금요일 1995. 9. 1~1995. 11. 30. 매주 월~금요일
- 아침반: 7시 30분~8시 30분(1시간)
- 저녁반: 5시 30분~6시 30분(1시간)

- 여름방학 특강: 1995. 7. 1~8. 10. 오전 9시~11시
- 겨울방학 특강: 1995. 12. 20~1996. 1. 30 오전 11시~오후 1시
- *단, 공휴일은 휴강

■수강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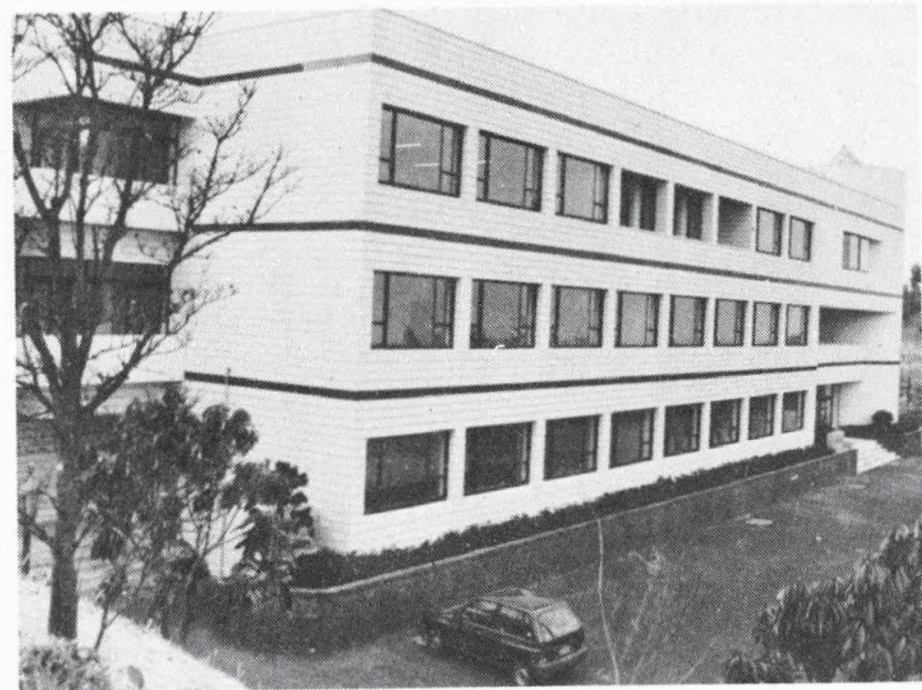
- 평일반: 1995. 2. 15~2. 25 1995. 8. 15~8. 25
- 여름방학반: 1995. 6. 15~6. 25.
- 겨울방학반: 95. 12. 5~12. 15.
- 수강등록기간 중 외국어교육관에서 교육내용에 대한 팸플릿 배부

■모집대상

- 제주대학교 교직원과 재학생
- A반: 취업, 진학 및 외국 유학대비반
- B반: 생활영어반

■교육내용

- TOEFL, TOEIC, 미국방송 교육프로그램, 생활영어 프로그램 등
- Audio & Video system 이용 강의



■강사: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전임교수 및 외국인 교수, 외국어교육관 특별연구원

■수강료(예정)

- 평일반-1개월 수강료
- 아침반-교직원 20,000원, 재학생 15,000원
- 저녁반-교직원 20,000원, 재학생 15,000원
- 여름·겨울방학반-교직원 30,000원, 재학생 25,000원

1995년 1월 일

외국어교육관장

社說

변혁의 시대와 대학의 자세

세계화의 기치를 머금은 돼지의 해 乙亥年이 밝았다. 이미 치열한 국제경쟁관계에 들어선 우리나라 사회와 대학은 새해들어 본격적으로 세계를 향해 뻗어 나가려는 의지를 통해 공존하고, 타종을 벗어 버리면서 자원을 익히는 다원화된 개방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대학이 새로운 가치창조나 사회변혁의 기능을 다하기란 무척이나 어려운 과제이다. 그러나, 어디를 향해 무엇을 대학의 지표로 삼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단순히 대학이 무엇을 어떻게 교육하고 연구하여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만으로는 절대로 일반 사회인들의 마음을 고리를 걸지 못한다. 대학을 쳐다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형형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고 그들이 정해준 선을 훨씬 앞지르지 않고서는 금세 벽에 부딪히고 말 것이다. 대학은 당장 오늘 주어진 목전의 과제 뿐만 아니라, 먼 1세기 후의 상황까지를 포함해서 상징하고 존재하는 미래이기 때문이다.

먼저, 일반 사회인들이 대학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살펴서 그들의 아픈 곳을 감싸주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감수입에 따른 UR이후의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아직도 전세계 감수입생량의 체계적인 분석과 시장구조악에 미래예측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지방화시대에 걸맞은 환경, 교통, 해양, 관광자원 분야의 정책개발에도 타대학 교수들의 왕성한 움직임에 가려진 채 뒷짐만 지고 있지 않은가? 하다 못해 '돌하르방'상표와 같은 지적 재산권 논쟁이 뜨겁게 달아 오를 때에도 우리 대학은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병어리 냉가슴 앓듯 하지 않았는가. 앞으로 자원의 개념이 과거와 같은 유형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자원, 즉 인간의 두뇌싸움, 지식과 기술개발이라고 하는 뜻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보면 먼구스러울만 대할 뿐이다.

아울러, 우리 대학안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유형의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 우리 스스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에 관하여 대학밖에서 지적할 때, 우리는 선뜻 이를 쟁겨보는 자성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 교수공채과정에서는 훗날 교수자격을 시험하기 위한 학연이나 지연을 원초적 관계에 의존하여 본말을 흐리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지방·교육자치 또는 대학자치 참여와 관련하여 대학구성원 가운데는 과민하게 들뜬 모습을 보여주는 일은 없는가?

다원화된 고도정보사회의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대학의 학문적 발전없는 국가 사회의 질적 발전도 꾀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지난해 말 설치된 외국어교육관과 대학발전추진회 발족을 계기로 새해에는 우리 대학이, 안고 있는 부정적인 요인들을 말끔히 씻어내고, 새롭게 거듭나는 자아혁신을 통하여 세계의 대학, 미래의 대학으로 탄실한 발돋움을 해나가야 하겠다.

消大漫評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甲戌年을 뒤로하고 이제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제화·개방화·미래화라는 전제 아래 모든 문화가 숨가쁘게 진행될 것으로 여겨지는 올해는,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40여년의 역사를 쌓아 올린 제주대학교는 명실공히 제주지역의 중심체로서 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해 국립대학 의과대학 신설에 관한 교육부 기준에서 높은 점수 '81.7'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 신설이 무산된 사실은 지금 제주대학교가 서있는 현실을 알려 주었고, 재대인이 가야할 방향을 가르쳐 주었다고 여겨집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됨을 보여 주지 못했고 말로만 제주대학교를 위했음을 증명해 준 상처가 깊은 교훈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재대인은 모교의 발전을 위해 철뚝같

◇총동창회 신년사

온동문 단결로 명문제대 건설을



김창진 총동창회장

은 단결된 힘으로 보여 주어야 하겠습니다.

총동창회도 총동창회장인 저뿐만 아니라 동문들도 단결된 힘을

보여주며 제주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땀 흘리는 이 자리를 빌어 후배들에게 맹세하는 바입니다. 그간 총동창회는 열악한 재반환경에도 불구하고 제주대학교 발전을 위해 부지런히 뛰여 다녔습니다. 장학기금을 조성해 '90년도부터 매학기마다 10명내외의 장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는바 지난해까지 4천7백여만원이 지급되고 수혜자는 8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후배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기금조성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교발전과 총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해 동문, 재학생,

교직원 한 사람이 되는 '濟大人의 날'을 재대인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의 날로 더욱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동창회보인 '濟州校友'를 모교와 동문의 소식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총동창회에서는 1회 졸업생부터 올해 졸업생들까지 근 2만5천명에 달하는 동문들의 근황을 알 수 있는 '동창회명'발간을 추진중에 있는데 이미 완성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밖에도 총동창회의 40년을 정리하는 40년사 발간 준비와 총동창회 건립에도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같은 총동창회에서 벌이는

사업들은 모교와 동문들의 발전을 위한 일임으로 재대인 여러분은 물론 모교 당국도 재대 총동창회의 활성화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욱이 졸업 동문들의 계속되는 취업난은 재대의 명예에 상처를 안겨주므로 모교 당국도 그 대책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모교 당국과 총동창회는 일체가 되어 선배는 후배를 끌어주고 후배는 선배를 밀어주는 공동체적인 힘을 모아 나가야 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제주대학교는 제주도가 세계적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내적인 발전이 그 어느때보다도 요구되는 시기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우수한 교수진과 혁신적인 교육방법으로 제주대내에서만 아니라 전국의 우수한 학생까지도 유치할 수 있는 명문대로 발전될 수 있도록 재대인 모두 다같이 노력합시다.

올해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 바란다

마음의 문 열어

진정한 개혁 이뤄야



양복순

개혁이라는 기를속에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 과연 어느만큼 시대정신에 입각한 개혁문제의 출범

성과가 우리 국민에게 보여지고 있는가에 지대한 평가적 관심은 지나칠 수 없는 현실상황이다. 날마다 쏟아지는 소식들은 접하기 싫은 정도의 윤리도덕을 떠나서 양심 부도의 타락 사회의 현상만을 보여 실망의 차원을 넘어 한계에 이른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는 힘없고 못사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 주겠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지만 구호에 그쳤고 아무런 대책마저 없이 매몰되어 버렸다. 공복을 먹고사는 국가의 공신들이 타락된 국정과 행정을 수행해 왔는데 싸늘한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선량한 국민에게 그것은 모리매 들이나 취할 수 있는 도적추태를 보였다는 것은 경악은 물론 그들에게 저주마저 보내게 하고 있다.

개혁의 이상적 목표가 '보다 행복한 국민생활의 실현'임에는 이설이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개혁의 틀속에서 추구되어야 할 정책이나 제도도 당연히 보다 나은 국민적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끌

어져야 한다. 피غم이 든 오늘의 세태는 정치인이나 지도층들만의 책임은 아닐성 싶다. 국민들의 의식수준 결여에도 큰 문제가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법률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깨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에 불과할 따름이다. 일부 기회주의자들로 인해 현실적으로 자기이익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양심부재의 모순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음은 우리사회에 있어 병폐이며 국민성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국민 개개인의 깨끗한 인본주의 이념이 살아 숨쉬기 위하여 더불어 사는 세상을 열어 주어야 할 것이다.

어렵고 곤경에 처한 사람에게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하고 조직사회에서는 구성원간의 위화감을 불식시켜 동참할 수 있는 제도적 배려가 선행해야 한다. 그럴때 우리사회에는 소외계층이 없어질 것이며 믿고 사는 사회상으로 변모할 것이다.

(기성회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변화에 능동대처하며
자신 위치 확고히 해야



문지택

지금의 세계를 보면 혼란스러울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많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乙亥년에는 이

러한 변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젊은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의 발전에 순응하고 적응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적응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이 도태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계적 변화와 연결시켜 볼때 乙亥年 개교 43주년을 눈앞에 둔 우리 아랫배 주인들은 그 뿌리를 찾고 21세기를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 몇가지 약속이 필요할지, 그 약속의 첫째는 어떤 수월성(秀越性)에 대한 '표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래 왔으니까"하는 안일한 성취의 표준을 의식했으면 합니다. 둘째 그 '표준'을 지키려는 절제된 '자기분수', 요즘 저를 포함한 젊은이들의 너무도 무분별한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먼저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게 된다면 결국 현실(세계적인 변화)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학은 사치도 아니고 간판은 더욱 아닌 국가 생존을 다루는 치열한 국제 '지식경쟁'의 최전방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깊이 있는 사색과 폭 넓은 지식을 통해 자기목표에 대한 학구적 열성과 성의를 쏟아야만으로써 그 분야의 세분화를 통한 전문화, 즉 전문가가 되어 자기위치 설정을 확고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화학과 조교)

대중대중 행정처리
이제는 달라져야

지난 시험기간에 있었던 일이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얘기가 설마 내게도 닥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해

은 과목이었는데 보람도 없이 '고학의 이해'와 '불문학의 이해'라는 두 과목이 시험 날짜와 시간과



김정미

지 겹치는 사태가 발생했다. 추가 신청까지 총23학점을 신청해 놓고 무척이나 힘들게 보낸 한 학기가 아까워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그렇잖아도 시험과목이 많아 부담감이 쌓여있었는데 시험시간이 겹치는 불행까지 닥쳐서 화도나고 황당했다. 그래서 학과 조교생들에게 이 사태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나 이외에도 다른 학생들이 더 있다고 말씀하셨다. 조교생님도 어이가 없어 수업과에 알아보더니 대답은 날 더 화나게 만들었다. "우리도 어쩔 수 없고 추가시험기간에 보는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라는 대답뿐이었다. 화가나서 수업과를 찾아갔는데 점심시간이라 자리엔 아무도 없었고. 다시 한번 찾아갔을 때는 시험시간관리자가 자리에 없다는 말뿐이었다. 정말 항의하고 싶었다. 이래도 되는 건지, 수업료를 내지 않은 것도 아니고 강의료를 잘못 신청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피해를 당해야 하는지 답답함을 만나 해명을 듣고 싶었다. 얼마나 무책임하게 시간표를 만들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분명히 학생이 내는 수업료로 학교가 돌아가고 그들 역시 그 돈으로 봉급을 받는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자기가 맡은 일에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 아닌가?

단순히 시간표가 겹쳐서 시험을 나중에 봐야 한다는 것 때문만이 아니라 한 학기내내 고생한 댓가

가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인해 피해를 봐야 한다는게 기가 막혔고 나와 같은 피해자가 많다는 것에 놀랄 뿐이다. 그래서 부랴부랴하고 싶다. 인력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적어도 내년부터는 시험을 제날짜에 보게 해주었으면 한다. (사회교육과 2)

시설·설비부문에
과감히 투자를

전자계산소의 실습실을 자주 이용하는 학생이다. 작년과 비교해서 PC수도 증가하고 실습실 규모도 커지는 등 상당히 발전된 부분이 많아졌다고 생각된다.



조정석

그런데 엄청나게 빨리 변화하는 컴퓨터 산업에 비해 '우리대학' 전산소, 컴퓨터 '기초'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지금 시중에는 486시대도 갔고 586시대가 온다고 떠돌고, 일선에서는 586이상의 성능을 지닌 컴퓨터도 곧 등장한다고 한다.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흐름에 비해 전산소 컴퓨터는 286기종이 주종을 이룬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학생들이 전산실 컴퓨터를 이용해 오락이나 즐기고 단순히 Word만 하는 걸 보면 이해도 갈만 하다. 학교당국은 전산소 컴퓨터기종을 바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설·설비부문에 투자하여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전자계산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중식학과 2)

新새벽, 도민과 함께

밝은 미래 예고하는 정론지-한라일보

세계화로 치닫는 변화와 개방시대 속에 한라산 자락에 드리워진 투명한 햇살과 맑은 물소리처럼 올해는 새아침을 연 도민의 알찬 신문, 최첨단 정보 사회의 참된 주춧돌이 되고자 도민을 위해 정확한 보도, 유익한 생활정보를 전하며 새로운 언론문화를 창출하여 21세기 깨끗한 사회, 풍요로운 제주 미래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漢拏日報社

제주시 삼도1동 568-1

Tel. 50-2114 Fax. 52-9790

◇세계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방향과 도민의 대응자세

민간주도 사회문화운동 적극 전개 제반제도 능동적으로 개혁시켜 나가야

◇이글은 필자가 지난 12월24일 법과정책연구소 주최 '세계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간추려 정리한 것입니다. (역은이름)

I 머리말

UR만이 아니라 New Round (GR, TR, BR 등)에 의하여 세계사가 우리에게 도전한다면 우리는 앉아서 당하고 죽는보다 일어서서 과감히 이에 응전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나아가서 평화민족인 우리 민족은 제국주의적 침략사의 모순을 시정, 5천년 역사의 한을 풀고 인류의 평화와 번영과 복지를 이룩하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도 세계를 향한 자세를 가다듬어 세계화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세계화의 제창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보나, 이에 대한 준비가 없었던 점, 따라서 정부주도하의 전략이 추진될 것이라는 점, 국민의 의식개혁과 생활혁신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때 어려운 과제라고 볼 수 있다.

II 본문

1. 세계화의 의미

세계화라는 개념은 단순히 무역이나 기업경영적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광범한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 유기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무국적 상태에서 우주인이 되자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의 무한경쟁을 리를 경계하면서 지역이면서 세계인이고 세계인이면서 지역이 된다는 뜻이고, 종래의 단차원적 사고에서 벗어나 다차원적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정부가 관여함으로써 말미암아 자국민이나 타국민의 인간생활에 작용하는 불이익한 요소를 제거하고 유익한 요소를 가지고 상호 협력하는 것이며, 정부에 의한 교류만이 아니라

민간의 국제적 교류에서 국경을 초월한 인간으로서의 순수한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상호간에 평화와 번영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데 그 이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화란 인간 본래의 삶을 바탕으로 인류사회의 평화를 위하여 번영과 복지를 함께 누리자는 것이다.

그래서 國際化의 개념과는 (표)와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화와 세계화는 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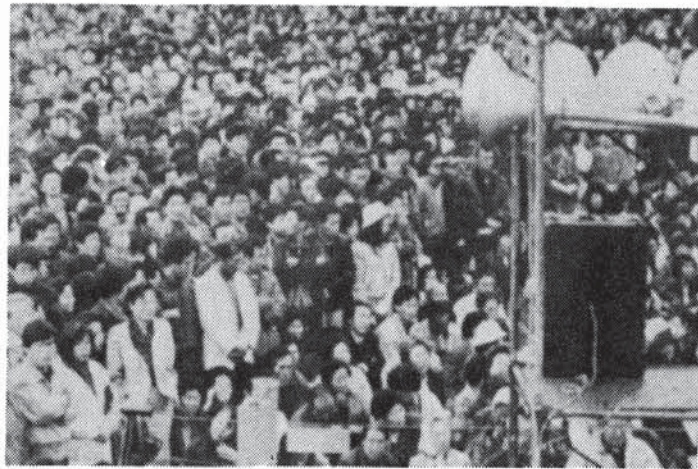


조문부 행정학과교수

보완관계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즉 민간교류의 증진과 그 경쟁력의 강화는 국제화를 촉진시키게 되나, 국제화가 증진될수록 정부간 관계 증진만이 아니라 자연히 민간간의 관계증진도 이루어져야 하므로 국제화의 진전은 세계화의 촉진을 보다 용이하게 한다.

2. 대응전략모델

외국의 예를 보면, 일본의 경우 80년대 후반부터 국제화에 역행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예산을 초월하여 오다가, 90년대의 개혁바람을 타고 종래의 made in Japan을 강조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강화 정책(예산지원 등)을 통하여 국제적 참여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세가지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행정개혁이



◇세계화를 위한 개혁과정에는 지식인을 비롯한 주민의 적극적 참여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고, 둘째가 초고속 정보통신망 건설을 중심으로 한 multi-media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개혁이며, 그 셋째가 국제적 질서체계의 개편을 통한 국제적 역량의 강화이다. 이는 세계적 중심국가로서 책임을 져야 할 환경개혁과 조건강화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의 경우, EU를 결성했는데, 정치적으로 EU 의회를 만들어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문제, 환경문제에 관한 자 규정의 제정등을 다루도록 하고, 경제적으로 단일통화가 통용되도록 하며, 사회적·문화적 교류를 하는 개방체제를 이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EU는 연방국가 개념도 아니며, 국가를 공존시키면서 지역체제를 만들자는 의미도 아닌 전혀 새로운 21세기적 국가유형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으로서의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로 지식의 보급 확대를 위한 교육개혁과 정보개혁이다. 이를 통한 개방성의 제고, 합리성의 제고, 미래예측능력과 창의력의 계발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고방식을 위한 의식개혁만이 아니라 행동양식을 위한 생활혁신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지식은 관념적인 지식만이 아니라 경험적인 지식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둘째로 제반 제도(법제와 관행)의 개혁과 행정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로 이러한 개혁은 정부주도하에 하향식으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주민주도로 상향식으로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민간주도하의 사회문화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넷째로 적극적으로는 세계인과 경쟁하며 선도할 수 있는 인력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으로서의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로 지식의 보급 확대를 위한 교육개혁과 정보개혁이다. 이를 통한 개방성의 제고, 합리성의 제고, 미래예측능력과 창의력의 계발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고방식을 위한 의식개혁만이 아니라 행동양식을 위한 생활혁신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지식은 관념적인 지식만이 아니라 경험적인 지식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둘째로 제반 제도(법제와 관행)의 개혁과 행정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로 이러한 개혁은 정부주도하에 하향식으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주민주도로 상향식으로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민간주도하의 사회문화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넷째로 적극적으로는 세계인과 경쟁하며 선도할 수 있는 인력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3. 지방정부의 정책방향

지방정부가 현재까지 추진하여

온 제반 국제교류는 국제화를 위한 초보단계에 불과하나 세계화를 위하여 불리하게 작용한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세계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방향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정보통신 기술과 인력을 동원하여 세계적인 정보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하는 정보개혁을 이룩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개혁을 통하여 상대방의 장단점과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 비교분석하여 상호간에 상대방을 필요로 하는 상호보완관계가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로 조직체계에 있어서 대외적 경쟁 및 협력관계를 담당하는 부서의 조직을 확대강화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보다 높은 차원에서 세계화를 추진할 조직구조와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즉 '세계화 장기양성'을 구체화시켜 나갈 추진구조와 이 구조를 중심으로 한 추진체제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민관국제화추진협의회'를 '세계화추진협의회'로 발전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셋째로 민간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세계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세계각국에 진출해 있는 민간기업은 물론 세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로 인력개발에 정책목표가 두어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 역량은 자율성, 창조성, 책임성에 의하여 성장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국민성은 주민의 생활속에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의한 의식개혁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세계화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하여 공무원 및 주민들에 대한 의식

無 論 有 說 —성장의 주체는 바로 자신

인내와 노력속에 결실맺는 한 해 되길



허철수

새해가 되면 우리들은 언제나 꿈과 희망을 갖는다. 새롭게 펼쳐지는 시작이기에 보다 높은 성장과 성취를 위하여 계획하고 결단한다. 그리고는 변화를 시도해 보곤하나 연말에 이르러서는 또다시 후회와 아쉬움만 남곤한다. 계획이 타당성있게 합리적으로 잘 짜여지지 못해서일까? 아니면 결심과 노력이 부족해서일까? 성장은 성장을 가능케하고 조건을 이해하고 그리고 성장하고자 하는 강한 동기와 열망을 가지고 그 일에 과감하게 뛰어 들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람은 성장지향적 존재이기 때문에 발달수준과 단계에 적절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한 욕구불만에 쌓이게 된다. 그러기에는 성장의 동기는 자신의 성장·발전을 이루기 위해 온갖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보다 좋은 학교와 학점, 그리고 직장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의 삶의 선택 등 지금보다 향상된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고와 애쓰, 성장과 발전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우리들의 성장과 관련하여 몇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첫째는 자기 자신의 내부에

무한한 성장잠재적 자원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지적, 정서적인 개발자원, 기능적으로 개발해야 할 잠재가능성이 우리 내부에 무수히 잠재해 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고자 하는, 또는 자신이 해낼 수 있고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은 성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일찍 한계를 설정하여 포기하는 경향이 많다. 분명한 것은 지금 자신이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보다 더 성장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성장요인을 자기 자신 속에서 발견해야 한다. 우리들은 변하는 사회적 현실과 다양한 요구에 적응 또는 도전하는 수고와 애쓰, 성장과 발전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우리들의 성장과 관련하여 몇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성장을 진정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외적인 수단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성장의

동기를 자기 자신 속에서 발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성장의 주체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 내부에 있기 때문이다. 수행하고 있는 이 일이 자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어떤 가치가 있는 지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만이 그 결과가 자신의 인격적 성숙이 될 뿐만 아니라 성장의 가속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끝으로 성장은 인내와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다. 도토리야 성숙한 참나무가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을 요하는 노력과 고통의 성장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우리의 성장도 이와 같이 위험과 두려움, 고통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러나 기쁨과 감격 또한 크다. 자기가 변화되는 기쁨, 자기의 잠재가능성을 실현하는 감격을 맛보게 된다. 성장은 도전과 모험이 필수적이다.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큰 불행은 도전하고 모험할 대상이 없을 때이다. 왜냐하면 모험할 대상이 없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1995년 올해엔 한해에겐 풍요로운 성장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자신을 결단하고 도전과 모험을 시도해보자.

교직과 교수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런데 이러한 의식개혁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인력개발의 원천이 되는 창의성과 책임성도 여기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므로 의식개혁을 위해서는 주민의 자율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4. 도민의 대응

제주도민의 역사적 서구성과 이와 관련된 개인적 우수성, 교통로의 해외진출과 관광의 발전 등으로 인한 세계적 시각의 비교우위성 등을 원인으로 하여 세계화의 가능성이 비교적 높을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제안한다. 첫째로 세계화를 위한 의식개혁이다. 이러한 의식은 개방성, 진취성, 합리성, 자율성, 창조성, 책임성과 같은 것이고, 세계인으로서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로 체계적인 제도개혁인 것이다. 법제는 법령, 조례, 규칙 등을 의미하며, 이들의 개혁이 필요한 것은 물론 법제를 운영하는 관행이 창조적으로 개혁되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개혁은 행정개혁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겠지만 주민과

행정과의 관계에서나 주민들 간의 관계에서 또는 주민들과 세계인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 제도개혁에서 중요시되어야 할 것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체계적인 것이다.

셋째로 세계화를 위한 개혁의 과정에서 서로 협동해야 한다. 제도개혁의 체계성을 위해서는 협동이 필요하지만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사회체제를 위해서도 협동이 필요하다. 협동을 위해서는 합리성이 필요하며, 협동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합리성이 증진될 수 있는 것이다.

넷째로 지식인이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지식인들에게는 역사를 바르게 이끌어 나갈 역사적 사명이 있으므로 세계화의 불가피성, 세계화의 추진방안들을 제시하고 실천하여 구체적 시범을 보이며 주민들과 함께 실천해야 한다.

다섯째로 우리의 문화나 사회경제적 특성중에서 세계적인 것을 찾아내고, 없으면 창조해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의 현상을 알고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III 맺음말

우리에게 세계화는 불가변한 속

명적인 과제인 것이다. 세계화를 위해서는 제반제도개혁과 더불어 의식개혁이 필수적인 것이나, 우리의 정치문화에서는 위부터의 개혁을 선행조건으로 하는데, 이는 자율성을 결여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자치권의 확대를 비롯한 지방자치의 발전이 필요하고, 지방정부는 주민의 해외교류의 기회를 확대시키고, 자율성과 책임성을 고양시켜 창조적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세계화를 위한 개혁과정에는 지식인을 비롯한 주민의 '적극적 참여'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또한 주민들은 지방정부주도의 개혁이라고 할지라도 파동적 자세를 탈피하여 능동적 자세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개혁해 나가야 하고, 행정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역사가 임종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민족이 겪은 것 이상으로 제주도민에게는 장기간에 걸친 혹독한 시련을 겪으며 이에 대처하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슬기와 단결력이 있고,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세계적인 시각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아 세계화에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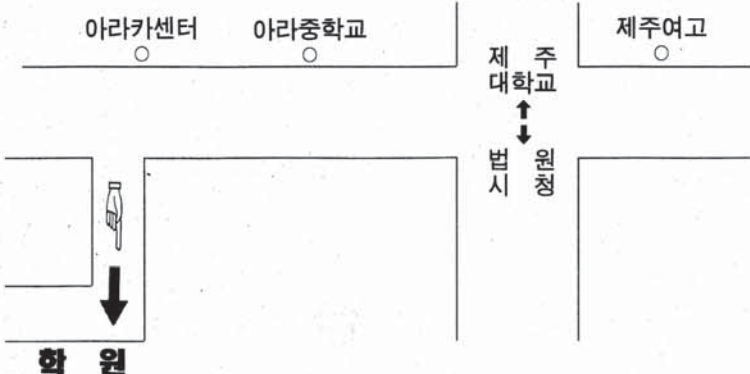
〈표〉국제화와 세계화의 개념차이

개념구분	국 제 화	세 계 화
구별기준		
주체	각 국가	세계의 정부와 민간 모두
이념과 목적	국제경쟁력 강화	인류의 평화·번영·복지
상호관계	국제관계의 국가간의 관계	국제교류의 정부간·민간간 관계
추구대상(수단)	법제개혁·협상능력제고	생활양식개혁·세계사회구성

“자동차운전”

한라자동차학원

- 아라동에 위치, 편리한 교통
- 빠르고 친절한 운전교습
- 최신 컴퓨터시설, 최고의 합격율
- 필기시험강의
- 학원 셔틀버스 운행



제주시 아라동 (법원위 제주여고 동쪽)
TEL.55-9900, 56-7755

제42기 수습기사를 추가 모집합니다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의 끊임없는 도전들이 모여 대학이 변하고 사회가 달라집니다.

△모집분야 및 인원 : 취재·사진·만화가자 ○○명

△대 상 : 94학번(취·만화가자는 93학번도 가능)

△제출할 서류 : 본사가 정한 양식의 입사지원서 1통

△원서교부 및 접수 : 1월 24일까지 대학원 3층 본사편집국

△전 형 : 1월 25일(수) 오후 3시 본사편집국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문의사항 : 제대신문사 ☎54-2278~9

제대신문사

해방 50년·분단 50년 - 남북관계를 생각한다

북한, 공세적 혁명외교에서
수세적 생존외교로 전환 가능성 커

외교

1995년, 분단 50년 해방 50년(禧年) 50년이 되는 해이다. 남과 북이 모두 50년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남쪽은 "통일외년", "남북화해협력의 원년"을 주장하고 있고, 북쪽은 "통일외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시작하는 엄정하다. 남쪽은 민족화해와 일치를 강조하는데 비해, 북쪽은 전철한 거족적 통일투쟁과 주체사상 기치하의 민족화단결을 표방하고 있다. 전자는 공존공영을 통한 단계적 통일을, 후자는 혁명투쟁을 통한 적화통일을 옹호하고 있다.

과연, 1995년의 나침반은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 한 가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1995년은 결코 북한이 기대하는 "적화통일의 원년"으로 기록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아마도 북한은 금년 내내 적화통일의 접근은 커녕, 한반도에 불어닥치고 있는 탈냉전의 열풍에 휩쓸려 헤쳐 나가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명분론상 '통일외년'의 나팔을 계속 울리겠지만, 내심으로는 '미국의 입실정책'과 '남조선의 흡수통일정책'에 대한 공포증으로 밤잠을 설치면서 체제생존전략에 계속 부심하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1995년은 북한외교의 일대 전환기 또는 분수령의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체제생존을 위하여 변신의 폭을 넓히느냐, 아니면 교조적 혁명외교의 틀 속에 계속 남기를 자처할 것인가.

전자는 험난한 좁은 길이나 사는 길인 반면, 후자는 평탄한 넓은 길이나 죽음에 이르는 길일 것이다. 선택은 북한 스스로가 할 것이다. 다만 필자는 북핵 판에서 이

른바 소수 강경세력이 더이상 대조류를 역류하는 "바보들의 행진"을 강요하지 말기를 우선 촉구 하고 있다.

작년 10월 제네바 핵 타결이후 전 세계는 미·북한의 합의사항 이행추이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우여곡절·핑고 당기기의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단 북한은 공



양영식
통일원 남북대화 자문위원

정적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 스스로 김정일의 협상전략의 성공으로 선전하고 있으며, 또는 이행결과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자신의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핵무장을 포기하는 대신 2003년까지 경수로 2기를 제공받기로 되어 있다. 이는 사실상 외부로부터의 북한체제 위협을 미국이 막아 주겠다는 생존권 보장 약속을 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우발적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북한이 구태여 '서울불바다론'이나 '벼랑끝 협상'으로 되돌아가 생존권 위기상황을 자초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미국 국회와 세계여론의 분위기로 볼 때 또다시 북이 핵에 접근하게 될 경우에는 허리케인과 같은 엄청난 증정제재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핵문제 외에 금년 한 해 북한 외교가 직면하게 될 시련(물론 기회도 됨)은 무엇일까 또 해결해야 할 과제는 어떤 것일까.

첫째 생존외교와 국제혁명외교 강화 외교간의 갈등현상이다. 북한의 생존외교의 중심고리는 대미관계 정상화이다. 과거의 주적 '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함이다. 이제 미국은 더이상 북한을 잡아 먹으려는 '승냥이'가 아니다. 오히려 체제위기의 골짜기에서 구해줄 구원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동독이 숨을 거두는 대충적 사건을 직시한 북한은 도리없이 미국을 향하여 "언클샘! 어서 평양으로 와 주세요!"라고 손짓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인 것이다.

남한이 '흡수통일정책'을 하지 않았다는 말을 100번 듣는 것보다 미국의 선제 핵 불사용 약속과 생존권 약속을 더욱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북한이다.

그러나 한편, 북한은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제국주의 세력을 타도하자"는 혁명구호를 외치며 사회주의 국가들의 단결을 외치고 있다. 참으로 어색하고 이질배반적 행동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나가서 이제 미국 대신에 남한을 타도 제1의 주적으로 삼고 "문민화소 거부수자!"고 호언하고 있는 지경이다.

과연 그들의 주장처럼 3대 혁명외교강화노선(①북조선 혁명외교 ②남조선 혁명외교 ③국제혁명외교)이 계속 운동력을 가질 것인지 주목할 만하다. 아마도 북한의 혁명외교노선은 금년을 끝으로 지붕의 풀처럼 시들어 갈 가능성이 크다.

혁명의 총사령부 크레믈린 정권이 숨을 거두었고, 동구과 후방

부대들도 완전 분해되었으며, 북경, 베트남, 하노이 정권마저도 자체진지방어에 정신이 없는 판국인데, 무슨 한반도 적화를 국제혁명외교 강화로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망상에 불과한 1995년 '적화통일외년'을 위하여 '혁명외교'를 부르짖기 보다는 절대절명의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의 생존을 위한 미소외교로 전환하는 북한의 몸부림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요컨대, 반격응징을 자초할 공격적 혁명외교나, 아니면 공존협력에 동참할 수 있는 화해 평화 생존외교의 분수령에 서 있는 것이 오늘날의 북한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최후의 협정 배후세력인 중국과 몇 안되는 사회주의 국가들과 리비아 등 국제정치적 '악동들'을 대상으로 친선 방문외교, 전문목회, 생색내기, 공동투쟁 군중집회 등을 통해 단결을 계속 다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내적 통치명분유용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미·일의 대북승인과 개방·개혁외교의 가중화 현상이다.

전자는 새로운 기회요, 후자는 모험의 위기일 수 있다. 한 겨울에 이루어질 미국의 대북 중유공급을 시작으로 미·북한은 연락사무소 개설협상을 자연스럽게 부채질하게 될 것이다. 조만간 평양에는 성조기와 일장기가 펄럭이고 워싱턴과 동경에도 인공기가 나부끼게 될 것이다.

남북경협과 대북경수로 지원문제가 원활히 해결된다면, 대한민국이 적극적인 지원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으므로 조만간 남북한 교차승인 시대로 치닫게 될 전망이다.

일단 북한은 매우 신중하게 제현적인 단계적 개방정책을 채택, 나진-선봉 지역을 중심으로한 변

방지역과 남포, 원산 등 특정의 해안지역, 금강산, 묘향산 등 산악지역 중심으로 경제개발을 우선적으로 시도할 것이다. 또한 외교관들의 행동반경도 제한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도와는 달리 외교관, 정치인, 경제인, 관광객들이 줄을 잇고 자본과 기술이 본격적으로 투입되어 사회간접시설이 서기 시작하여 공장과 무역회사들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개방의 폭과 속도가 문제가 되고 북한 체제내적 개혁의 필요성이 증대하게 될 것이다.

하수같이 흐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와 부딪치면서 북한은 더 이상 외래자본과 기술도입 문제를 놓고 '보약론' 대 '독약론'의 논쟁에 시간을 소모할 겨를이 없게 될런지 모른다.

수년간 계속되어 온 마이너스 경제성장, 극심한 식량난, 에너지난, 외채난을 어찌할 것인가. 3차 7개년 경제계획의 실패로 설정한 3년 완공기 2년차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농업제일주의' '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 '신경제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는 사상으로, 명령으로도 해결될 수 없다. "인민들의 삶 속에서 인심이 난다"는 죽은 수령의 유언을 생각한다면, 또 굴곡에서 인기가 나야 경제가 돌아간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경제개방의 확대와 체제내적 개혁의 당위성을 심각히 생각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다만 개혁의 문제만큼 "정치적 다원화는 사회주의 패망의 길"이므로 죽어도 안된다"는 김정일의 지론 때문에 어느 누구도 섣불리 공론화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게임으로 자칫 목숨을 잃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시차승인의 실현과 개방의 확대는 북한체제의 장래를 위한 새로운 기회요, 동시에 위기로 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셋째 휴전선의 안정화 문제를 둘러싼 치열한 외교·협상의 전개와 갈등 현상이다.

일단 북한은 한국을 배제한 조미 협상을 한국을 배제한 조미 협상으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



◇일본은 92년말 중단된 북한-일본 수교교섭의 재개를 최근 미국에 주선요청했다. (위) 남북은 개혁을 통하여 진정으로 만날 수 있다. 남북한의 대결체제를 극복하는 길이다. (아래)

으로 대체하고자 계속 주장할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입장은 지난 해 말에 발생한 미군 헬기 조종사 송환협상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일방적 주장은 결코 수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미 남북기본합의서(92년 2월 발표) 제5조가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은 남북이 공동으로 노력·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한·미 양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남북한 당사자 해결원칙을 바탕으로 해결하되, 새로운 한반도 평화보장체제를 위한 국제적 보장방안은 관련국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변 4강 역시 휴전선의 안정화, 남북한의 평화공존 그리고 남북한이 반드시 포함되는 새로운 지역 평화보장체제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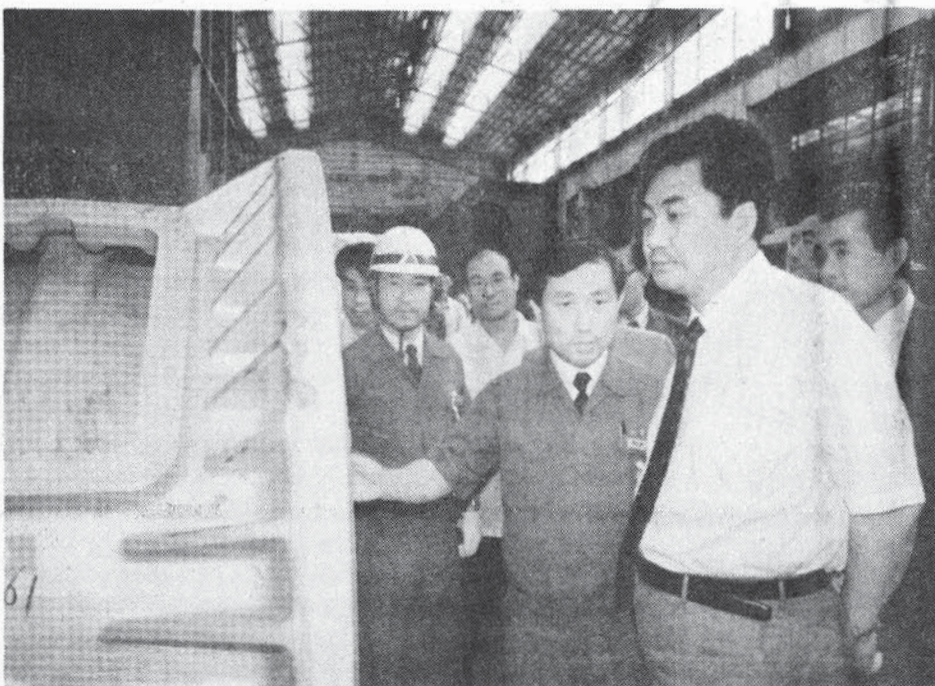
북한은 종래 상투적으로 구사해 온 한·미 이간전술이나 심리전을 배제한 채 대미 협상만을 고집한다면 이는 북한 스스로를 정전협

정의 파괴자, 전쟁재발위험을 서슴치 않는 평화의 교란자로 낙인 찍히게 할 뿐이다.

결국 탈냉전 시대에는 냉전시대에 종용했던 심리전 차원의 교란전술이나 이간전술이 통하지 않음을 북한은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외교는 앞으로 공세적 혁명외교에서 수세적 생존외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며, 또한 개혁을 봉쇄하는 가운데 단계적 개방외교를 전개해 나갈 전망이다. 그리고 한국과 연계된 경수로 문제와 정전협정 문제에 있어서는 우둔할 정도로 역기능적 외교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아전인수적 논리와 행동이 결코 체제의 생존에 도움을 줄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1995년은 '적화통일외년'을 위한 3대 혁명외교 강화외교의 해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보다는 생존외교의 정으로 뛰어든 분수령의 해가 될 것이다.

남북정부 목적달라 저망 볼투명
교역량 소규모 수준에 그칠 듯

◇남한기업
을 시설하는
북한의 김일성
총리 (사진은
'말'에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 일으켰다. 그리고 동년 12월13일에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1993년 3월12일 북한이 돌연 NPT(핵확산금지조약)탈퇴를 선언함에 따라 동년 5월11일에 유엔 안보리가 대북한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미국주도로 북한이 NPT에 복귀할때까지 북한에 경제제재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따라서 그때까지 추진되어왔던 남한기업들의 대북(對北) 투자계획은 전면 유보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남북관계는 2년 가까이 진전이 없었다. 그러다 지난 10월 북한과 미국이 제네바에서 핵협정에 사인하고 난 이후 남한 정부도 북한에 대한 이전의 강경노선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연하게도 김영삼대통령은 지난 11월 남한의 경제인이 북한과 직교역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북한 현지에 공장을 세우거나 북한과 합작을 하는 것을 허용함을 천명하기에 이르렀다.

핵문제에 막혀 있던 남북경협의 물꼬가 드디어 터져 나오는가? 우리 나라의 대기업들이 삼성, 현대,

대우, 금성, 쌍용등이 일제히 북한과의 경제협력의 창구인 고려민족산업발전협회(고민발)와 접촉을 갖고 대북투자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남한의 대기업들이 지나치리만큼 의욕적인 것 같다. 러키경제연구소의 김도경 수석연구원의 다음과 같은 말은 현 상황을 실감 있게 대변한다. "우리는 한국전쟁 후의 잿더미 위에서 한국경제를 일으켜 세웠소, 우리는 북한에서도 같은 기적을 이룰 수 있소."

그러나 과연 남북경협으로 가는 길이 탄탄대로일까? 반드시 그럴지라도 아닌것 같다. 아니 가시길 길거나 막다른 골목길일지도 모른다. 이글에서는 남북경협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다시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정리해 보겠다.

II. 몸 글

1. 남북한 경제교류의
과거와 현재

정부의 88년 7월7일 대통령 특명선언, 88년 10월 대북경제개방조치이후 우리 기업인들은 실황을 중심으로 대북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이런 현상은 당시 현대그룹 정주영회장 일행의 방북과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의 방북

을 계기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부에서 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북투자가 제도적으로 보장된 이후 현재까지 대북투자를 목적으로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승인받은 기업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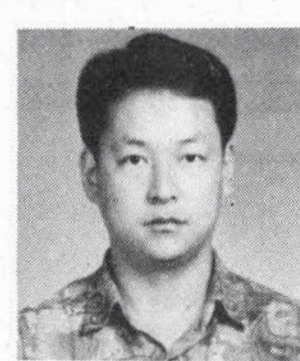
이때 논의된 주요사업분야로는 노동집약적인 경공업분야에서부터 전자, 인프라개발 등 중화학공업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과의 접촉과정에서 북한측 경제인들은 '나진-선봉 자유경제 무역지대' 투자를 권장하고 있으며, 투자방법으로는 중국인 변지역의 조선족을 통한 간접투자 등 제3국 명의의 대북투자를 희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1993년 이후 북한의 핵문제가 남북관계의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면서 정부에서는 북한핵문제를 남북경협을 연계시켜오고 있고 이의 연합선에서 기업인의 방북도 금지시켜 왔다.

정부차원의 공식적 남북교류는 핵문제로 인하여 중단상태에 있었으나 민간차원의 경제교류는 계속되고 있으며, 투자방법으로는 중국인 변지역의 조선족을 통한 간접투자 등 제3국 명의의 대북투자를 희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1993년 이후 북한의 핵문제가 남북관계의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면서 정부에서는 북한핵문제를 남북경협을 연계시켜오고 있고 이의 연합선에서 기업인의 방북도 금지시켜 왔다.

러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남북한간의 교역비율은 19대1로서 북한산 물자반입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교역의 형태는 현재까지 중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 등을 통한 간접교역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거래방식은 초기에는 제3국을 통한 현금결제나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물물교환 방식의 구상무역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남북경협은 단순한 무역차원을 넘어서 북한 현지에 직접 혹은 간접투자를 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대체로 투자에 따른 위험을 떠안을 능력이 있는 대기업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현봉수
서울대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현대=금강산 관광개발단지 개발, 북한경수로 건설에 주관사로 참여 추진, 만·방직 공장 건설

△삼성=전자·섬유·경공업·자원 개발에 투자

△리키금성=함만·도로등 사회간접분야 투자 및 에너지분야 진출, 구상무역 및 삼국간 거래 활성화

△쌍용=시멘트공장 건설, 신발 및 수산물 수산물가공업 진출

△한화=합성수지·가공, 공장건설, 국산전자계산기인 TDX공급, 나진-선봉 경제특구 진출

△코오롱=면파를 임가공업확대, 나일론 및 가방공장 건설

△대우=남포공단 경공업 시설, 합작사업, 명대·조기등 공동으로 사업, TV, 냉장고, 세탁기 등 합작사업, 대규모 함만·도로·교통·통신 등 사회간접분야 사업

2.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남북 경협의 문제점.

남북경협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북한정부와 남한정부의 태도변화이다. 지난 11월 남한 정부가 남북경협활성화 조치를 발표하였을 때 북한 정부의 태도는 한마디로 냉담했다. 그들의 입장은 이 이미 나진-선봉지구를 통해 제한적이거나 남한의 기업들과 교류가 가능했었다. 이러한 때 남한정부가 이것을 사후추인하는데 불협화음도 상황을 주도하려는 남한 정부의 태도에 북한정부는 매우 불쾌해 하는 것 같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직교류든 제3국 교류든 별로 상관하지 않고 사태를 느긋하게 보고 있는 듯하다. 오히려 전면적 교류는 김정일 정권이 피하려고 하는 바라고 생각된다.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가 평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두만강 유역인 것만 보아도 이 사실을 여실히 알 수 있다. 북한의 김정일은 북한내의 정치적 중요도를 최소화하고 지금의 경제난을 타개할 수 있는 경제적 이득만을 취하고 싶어한다. 즉 그는 개혁없는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그들은 경제협력에 있어 남한 정부의 인준을 그치지 필요로 하지는 않는 것 같다. 오히려 민간차원의 교류를 더욱더 원한다. 그러므로 정부간 협정이 선행돼야 하는 문제인 이종교세방지협정, 물수 또는 수송에 대한 상호보협문제, 이익의 분배문제 등은 아직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지금 대기업 등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북투자전략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다.

위와 같은 정치적 요인 외에도 경제적인 면에서 포하나의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투자여건이다. 현재 북한에서는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투자를 나진-선봉 지구에 한정하고 있다. 그러면 나진-선봉지구의 투자여건은 어떠한가? 삼삼그룹 등은 이미 연변지역을 통해 이 지구의 투자여건 조사단을 파견하여 조사를 끝냈다. 한국기업들의 나진-선봉 지구에 대한 평가 결과 북한의 청

사진과는 달리 이 지구는 배후산업기지가 전혀 없는 황만지대일 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나진-선봉지구가 제조업수출지구로 성공하기 위해 가장 문제되는 것은 막대한 사회간접투자를 북한정부가 어떻게 조달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 지구를 경제성이 있는 지구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인 약 33억불, 공업부문 약 69억불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북한정부가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통일원에서는 남북경협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확인된 연후라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이 투자는 민간에 맡기기로는 정부주도로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나진-선봉지구가 본격적인 구실을 발휘하려면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III. 맺음글

이번 북미핵협상의 성공적인 타결로 인해 남북간의 경제협력과 교역은 단계적으로 활성화될 전망이다. 시작단계에서 경제적으로 못지 않게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대사에서 본격적인 남북경협시대를 전망하는 것은 대단히 가변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현재 한국기업들이 북한 지역에 진출하는 이유는 순수한 경제적 동기 이외에 통일이후의 상황에 대한 대비 및 이니셔티브 확보 혹은 기업홍보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는 현재까지의 남북한 교역의 형태인 북한물자 반입 위주의 소규모간접교역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리라 보기 어렵다. 더구나 남한정부와 북한정부의 서로 다른 목적-북한 정부는 필수 있으면 개혁없는 개방의 방향을 선택하려고 하고, 남한 정부는 오히려 북한의 개방에 앞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에 생각해볼 때 그리고 그것이 쉽사리 일치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볼 때 남북경협의 전망은 결코 밝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 이준보 제주대학교 발전후원회 위원장

도민 관심유도 위해
대학 구성원들이 앞장서 나서야

“후원회 조직 활성화 기금모금 기반조성에 최선 다할터”

▲우리대학 발전후원회 회장직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중책을 맡게된 소감을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열심히 일할 사람도 많은데 제가 1회 졸업생이고 해서 저에게 이런 중책이 맡겨진 것 같습니다.

우선 출발단계이고 하니 후원회 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모교발전 후원회의 책임을 맡았으니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할 생각입니다.

▲후원회가 구성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주로 학교 기획실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준비위원회 구성이나 위원회측 등 많은 부분을 학교 기획실에서 추진했습니다. 위원 선정은 준비위원회와 기획실에서 공동으로 여러 여건을 분석한 후 논의를 거쳐 개별방문을 통해 동의의 구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도내의 인사들을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후원회 사업으로 대학발전기금 조성 지원, 지역 사회와의 협력 및 유대강화, 제주대학교 총장이자문과 협력을 요청하는 사항, 기타 후원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을 어떻게 전개시켜 나갈 예정인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 이사회를 열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새해 초 이사회가 소집되면 이 사업들의 시행방법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이 사업들을 전개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발전기금 조성 목표액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 목표액의 추진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펴 나갈 생각이신지요.

—목표액 자체도 이사회를 열어 봐야 그 타당성, 학교측의 요망사항 및 학교측이 필요로 하는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전체 필요액 중에서 정부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 후원회에서 힘을 모을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액수는 많은 수록 좋겠지만 달성하기 힘든 너무 많은 목표액을 설정하는 것도 문제라 생각합니다. 일단 출발단계라는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후원회에서는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유대강화를 위한 사업을 펼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대학교는 명실상부한 제주도의 인재의 산실이고, 연구, 학문의 산실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산학협동, 연구, 지역현안문제 등 기타 여러가지 깊은 지식을 얻으려면 대학을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터 사회와의 연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사업들에 학교측에서도 많이 참여해야 할 것이고 후원회에서도 이런 점에 중점을 두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발전후원회의 조직과 관련하여 총장이 상임부회장, 동창회장이



◇이준보 후원회장은 지난 12월 27일 본사의 인터뷰에서 발전기금 조성 등 본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총무담당, 우리대학 기획실장이 간사를 맡는데 대하여 기구의 성격상 옳지 못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기구의 구성보다 활동하는데 어떤 것이 더 장점이 많았는가에 있다고 봅니다. 대학과 후원회, 총동창회 등이 이중 삼중 별도로 활동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대학의 발전을 위해 대학과 후원회, 총동창회가 공동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봤을 때 여러가지 사업에 서로가 같이 협력하는 데는 이러한 방법이 더 좋다고 여겨집니다. 학교 기획

실을 사무실로 하는 것도 운영면이나 업무연락상 편리하고 예산절감에도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대학의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왜 오늘날 한국의 대학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을 듣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대학의 위기와 관련 우리 제주대학교에 처해 있는 위기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위기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으니 그런 말이 나오긴 했지만 저는 위기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굳이 위기라고 한다면 대학에 면학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학 구성원들이 면학 위기는 해소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제주대학교의 위기를 말한다면 교수, 학생들이 연구나 학문을 하기 위한 실험기자재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원회 발족과 관련하여 재대인과 제주도민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제 본격적인 대학간 경쟁체제로 들어갔습니다. 또한 대학도 개방화시대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고민도 하고 타개책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육지부 대학에 비해 여건이 열악한 상태에서 제주대학교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은 전체 도민들의 관심을 모으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도내 유일한 지방종합대학을 육성해야 제주도가 발전한다는 생각을

■ 제대발전후원회 발족의 의미

대학위기 자력극복의 계기될 것

제주대학교발전후원회가 2천 년대를 향한 제주대학교의 희망찬 미래를 다짐하며 발족하였다. 주지하듯이 세계는 날로 변하고 있으며 우상열패의 냉혹한 무한경쟁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대학이라고 해서 예외인 것은 아니다. 국가 정책에 있어서도 지방대학은 지역화·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지역사회 발전의 견인차로서 역할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대학은 21세기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전향적인 노력을 할 때에만 그 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여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학이 범 지역적 협력체제를 갖추는 일이다.

지역사회에 관련하여 생각하면 제주대학의 발전 없이 제주 사회의 발전을 기약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대학은 그 사회 발전의 중추적 일꾼을 길러낸다는 점에서도 그러하거나 다가오는 21세기 정보사회에서 가장 중추적인 지식산업의 핵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도 그러하다. 그러기에 제주대학교는 제주도민의 대학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다. 제주대학교가 발전할 때 제주의 미래는 밝게 다가서게 되는 것이다. 이 엄연한 사실을 직시하고 제주대학교발전후원회는 조직된 것이다.

앞으로 이 발전후원회 조직은 서울·부산 등 국내 다른 지역들과 동경, 대만 등 해외지역으로 그 조직을 확산하여 놓고, 본 후원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별 후원회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제주대학교에 대한 후원활동을 전개하여 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제주대학교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제주 대학의 대외적인 이미지도 또한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이 발전후원회가 그 취지에 따라 활동하기만 하면 이는 제주대학교가 한국의 우수한 대학



신 행철 기획실장

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세계 속으로 웅비하는 대학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제주대학교는 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다. 그 중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주요 사업들만을 들어 보면 교수 연구활동의 지원, 학생의 교육비 지원, 도서 구입비 확보, 실험실습 기자재의 지원 그리고 시설 확충사업으로 전자계산소, 박물관, 제2도서관, 문화관 등의 신축이 있으며 특성화분야의 육성을 위한 해양박물관, 아열대농업연구소 연구·실험시설 확충 등이 계획되고 있다. 이에 따른 막대한 소요 자금을 국고로 충당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보면 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발전후원회의 활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물론 발전후원회는 학교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마련하는 데만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전 도민적 관심속에서 제주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거대적인 협조체제를 갖춘다는 데 그 중요한 뜻이 있다.

따라서 발전후원회가 잘 운영되고 제 역할을 하기만 한다면 도민적 지지와 성원속에 제주대학이 발전하는 기틀을 확고하게 구축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제주대학교발전후원회의 목적과 기능을 회칙에 따라 살펴보면, 제주대학교발전후원회는 제주대학교의 발전에 관한 자문과 협력, 발전 기금의 조성·지원에 그 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은 사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자문에 응하며 후원하는 기능을 갖는다. 첫째 대학 발전 기금을 조성 지원하는 일, 둘째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유대를 강화하는 일, 셋째 제주대학교 총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하여 자문하고 협력하는 일 등이다.

둘째 보면 그동안 제주대학교는 국립대학으로서 국가의 보호와 지원 속에 일면 안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바뀌어 지방화 시대를 맞으며 국가의 지원비율은 감소하게 될 것이고 대학의 욕구 수준은 크게 증대하게 되어 대학 자체의 부담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더구나 그동안 제주대학교의 수준은 연구와 교육, 시설과 교육환경, 사회에 대한 기여 등에서 한없이 미흡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현실을 자력으로 극복하려는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제주대학교의 앞날은 어둡지만 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사려 깊은 고뇌를 하고 정성을 다하여 행동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보다 알차고 바람직한 내일을 창조하기 위하여... 이 시점에서 발전후원회의 발족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거나 이와 같은 가뭄을 해결하는 단비와도 같이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은 고뇌를 하고 정성을 다하여 행동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보다 알차고 바람직한 내일을 창조하기 위하여... 이 시점에서 발전후원회의 발족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거나 이와 같은 가뭄을 해결하는 단비와도 같이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은 고뇌를 하고 정성을 다하여 행동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지난 12월 19일 발족한 본교 발전후원회에서 각계인사 51명이 후원회 위원으로 추대됐다.

제주대학교 발전후원회 발족

제주대학교발전후원회 위원 및 단체

(서울·부산·일본지역은 별도)

■ 추대위원(51명·가나다순)

강근수 제주도치과의사회장
강덕홍 충청제주도지회장
강보성 전국회의원
강성준 제주도지방의정연구소 이사장
강영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강영식 한국마사회 제주사업본부장
강윤호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
강재업 삼영교통 대표이사
강창수 한국자유총연맹제주도지회장
강희찬 국회의원
고세진 전국회의원
고유진 경진기업 대표이사
고창실 제주전문대학 교수
고철수 금강종합건설 회장
고준호 제주대우자동차 회장
고현권 아일랜드호텔 대표
김길웅 제주도의회 의원
김대성 제주신문사 사장
김병현 제대총동창회 부회장
김순원 해록기계공업사 대표
김영제 제주은행장
김윤기 전남제주군수
김창진 제주대학교 총동창회장
김태환 제주도부지사
김황수 전제주도교육감

변성근 제대총동창회 남부회장
변정일 국회의원
서상훈 명지건설회장
서영진 세일종합건설 대표이사
송봉규 한림공원 회장
신구범 제주도지사
안태의 제민일보사 회장
양성후 세기건설 회장
양정규 국회의원
양치중 현오학술문화재단 이사장
오광현 서귀포시 대표
이근민 전제주도지사
이근모 전제주도지사
이기빈 국회의원
이두옥 그린관광호텔 회장
이문교 제주MBC 총무국장
이승택 전제주도지사
이승희 제주의료원장
이유근 의사(한국병원운영위원)
장시영 삼남석유 회장
장정대 제주도의회 의장
현경대 국회의원
현태식 제주시의회 의장
홍명표 제민일보사 사장
홍병철 국회의원
홍행남 동협 제주도지회장



■ 고문 추대(전임 총·학장)
김계영학장, 변시민학장, 현영효총장,
김두희총장, 김형욱총장

■ 후원 단체·기관(17개)

·제주도
·제주도교육청
·제주시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위원회
·북제주군의회
·남제주군의회
·서울제주도민회
·제주대학교총동창회
·제주상공회의소
·KBS제주방송총국
·MBC제주방송총국
·제주신문사
·한라일보사
·제민일보사
·부산제주도민회
·제주대학교기성회

◇ 발전후원회 이사회명단 ◇

강근수(제주도치과의사회장) 김태환(제주도부지사)
강윤호(제주지방변호사회장) 서영진
강창수(한국자유총연맹제주도지회장) (세일종합건설회장)
고창실(제주전문대학 교수) 이문교(제주의료원장)
고철수(금강종합건설회장) 장시영(삼남석유회장)

“세계로...미래로” 비약적 도약의 견인차돼야!

‘제대 발전후원회’에 거는 각계의 기대

‘내고장 대학을 아끼자’는 마음으로

대학의 생존을 위한 지혜와 단합이 요구되는 차세대 기초연구의 장으로서 인재의 주요공급원으로 대학의 위상을 정립하지 못한다면 이제까지 이룩한 창조자도 무산될지 모른다. 우리는 제주대학교가 국내외적으로 높은 상황, 정부와의 미묘한 관계, 무관심한 도민과 학생의 심상성을 깊이 인식하고 대학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정학
이사회원

제가 성장하고 있으며 국가가 요청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학의 자생력과 자율성이 불완전 보장될 것이다. 이제 전국의 대학들이 양적규모만 자랑하거나 정부에만 의존하거나 주어진 권위의 서열에 안주하려는 풍토에서 쇄신되고 있다. 제주대는 다른 대학에 못지않은 시설, 기구확장과 함께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동문들이 각계로 분포되어 진출하고 있다. 차세대 대학발전운동이 지역사회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첫째 대학의 문제를 지역사회의

문제로 인식하는 단계까지 확대해야 한다.

둘째 지역대학의 독자성을 길러야 한다. 대학의 발전은 지역대학으로서의 독자성을 반영하는 방향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문화를 주도하고 지역연구의 센터로서 주민의 의사가 대학에 반영되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후원회의 성공여부는 이 일에 참여하는 주민들과 그 결과를 참고 기다려주는 주민이 얼마나 많은가에 달려 있다. 아울러 지역의 유력인사 대학의 가족으로 만들어야 한다.

넷째 짧은 시간에 달성될 수 있는 결과는 그 목적에 상응한 보다 알차고 체계적인 활약에 의해 지속적으로 얻어진다.

역사는 결코 늦다는 법이 없다. 벼룩 한 마리부터 시작한다는 심정으로 ‘내고장 대학을 아끼자’는 캠페인에서 시작함이 좋을 것이다.

세종의원 원장

진정한 도민의 대학으로 발전하는 촉매가 되길



서경림
이사회원

하와이대학이 없는 하와이란 홀라박에 열른 생각나지 않는다. 제주대학교가 없는 제주도는 무엇인가를 세심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한다.

오늘날의 대학은 과거와는 달리 사회변화의 동인으로서, 그리고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서의 역할이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는 대학을 지원하고, 대학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그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상과 같은 전제하에 우리는 ‘대학이 발전하면, 그 지역사회도 발전한다’는 명제를 내걸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와서 국내의 모든 대학들이 그 지역과의 연계를 강조하며, 생존적 차원의 자구책을 강구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안이한 자세로 대처하다가 도태될 것이 분명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더우기 제주대학교는 경쟁력의 확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 속에 놓여 있음을 간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제주대학교의 발전없이 제주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는 없다. 제주도민의 대학인 제주대학교가 발전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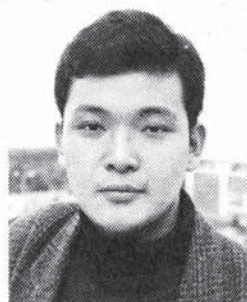


때, 제주도의 미래도 밝은 것이다. 바로 여기에 제주대학교 발전후원회의 존재의미가 있다.

그런데 같은 도민이면서 제주대학교가 발전하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 것 같다. 대학을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할뿐, 그 이상의 발전은 주체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는 것 같다. 지역발전을 선도 해야 할 자들이 의대신설에는 바라만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것을 반증한다.

법학과 교수

의과대학 후원회 설치사업도 추진하자



송창하
이사회원

고 생각된다. 대학은 어느 일개인에 의해, 어느 한단체에 의해 유지되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것은 확실하다. 이제 후원회 여러분들의 도움과 제주대학교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더 나은 21세기를 선도해 나갈 제주대학교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현재 제주대학교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상당히 많이 산적해 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가 의과대학 문제라 생각한다. 발전기금조성 후원회가 생긴것도 좋지만 우리대학, 그리고 제주도민의 바램인 의과대학설치를 위한 후원회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제주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도민, 동문, 교수, 학생, 교직원들이 함께하는 (가칭)의과대학 설치 후원회를 만들것을 이 지면을 통해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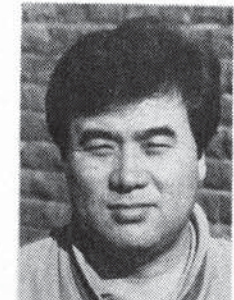
올해로 개교 43주년을 맞는 우리대학교는 도내 유일의 국립대학이다. 하지만 지방국립대로서 유지되는 명맥 역시 실제보다 축소되어 있으며 학교의 발전전망 역시 불투명하다. 이는 학내구성원들의 낮은 소속감, 왕성한 학문, 연구활동을 위한 제반시설들의 낙후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제 미래를 준비하고 21세기를 선도하는 도내 유일의 국립대학으로서 위상 정립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를 위해 우리대학의 발전계획이 수립되고,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후원회가 발족하게 된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각 대학이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금조성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우리 대학도 이번 후원회가 발족하기 전에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었지만 그 성과는 미비했다

차기총학생회장

도민은 제주대학·대학생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



허인순
이사회원

로 불쾌감을 드러내곤 했었다. ‘태손 땅’이 제주대학생들의 주취로 순화 공연되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 바로 그 때쯤이었던 것이다.

‘태손 땅’ 아버지의 바다에 안겨 있는 어머니의 땅 제주. 이 제주를 다른 누가 아닌 나와 같은 고대인 고향의 대학생들이 지켜내주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은 나에게 커다란 감동이었다. 10년이 훨씬 지나 20여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난 그때의 그 감동을 결코 잊지 못하고 있다.

대학은 진실을 밝혀 주는 등불이어야 한다. 눈가리고 아웅하듯 왜곡된 진실을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상품화시켜 놓는 수 많은 부정 앞에 대학만큼은 저 한라산처럼 우뚝 서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대학을, 대학생을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 남을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제주대학교 발전 후원회 발족에 즈음하여, 제주의 한 모퉁이에서, 대기고 교사

세계에 대한 대응능력 키울수 있는 토대 마련에 최선을



이정순
이사회원

지금 세계는 크게 두 흐름, 즉 세계화(Globalization)가 가속화되면서 지역화(regionalization)가 가속화되는 현상이 진행중이다. 베가트랜드 2000의 존 네이스비트는 이것을 ‘글로벌 패러독스’라 규정하였는데, 이것은 세계차원에서 국가들 사이에 보더리스(Borderless)가 파괴되면서 동시에 한 국가 단위는 그 중앙권력으로부터의 해체, 지방으로의 이양작업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산이 그 좋은 예인 것이다.

세계차원에서 국경이 사라지면서 각 단위 국가들은 제로섬 게임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상호협력의 무한경쟁 속에 돌입하게 되었고 그 경쟁에 살아남기 위한 한 나라의 존속은 어떻게 환경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능력을 키우느냐에 달려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은 지역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왜냐하면 지역이 없이는 국

가는 존속을 할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변화에 대한 능력을 키우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육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그 교육은 개인과 집단 그리고 지역차원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교육과 관련하여 대학의 사회적 책임과 책임의 기능을 생각해 볼때, 지역사회에 있어서 교육을 맡은 지역대학의 위상과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무릇 지역사회의 발전에 대한 대학의 기여는 매우 큰 것이며 대학의 발전이 곧 지역사회의 발전으로 연결되며 그것은 또한 국가발전에도 연결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에서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체제의 성격을 띤 제주대학교발전후원회(이하 후원회)의 발족은 바람직한 현상인 한편 적극 환영할만한 일이라 하겠다.

후원회는 우선 제주대학교로 하여금 제주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를 많이 만들어야 하고 제주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후원회는 ‘제주’라는 지역사회와 제주대학교를 상호 밀접히 연결시키는 노력을 통해 제주대학교의 발전성과를 제주사회에 저변 확대로 이끔과 동시에 재투입 과정을 거쳐 제주대학교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와 함께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대응능력을 공동으로 키우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후원회는 보다 빠르고 방대한 정보를 받아들이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고 그 정보의 유통을 원활히 해 지역사회와 대학 모두가 정보의 공유를 통해 제주지역발전에 공동 노력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개발에 있어서 제주대학교의 간접참여 뿐만 아니라 직접참여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거야건설주식회사 대표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 탈피하는 자극제 됐으면



정정우
이사회원

지난 12월19일 제주그랜드관광호텔에서 50명의 위원과 17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제주대학교 발전후원회’가 발족·출발식에 따라 제주대학교 발전기금 조성사업이 활성화되게 되었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그래도 매우 반갑고 뿌듯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고장권 ‘재단법인 제주대학교 발전기금’이사장이 이날 인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제주대학교 발전기금 조성사업은 새로운 연구과제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장학금의 확충 등 대학교육의 질적개선에 대학 기능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대학발전의 혁신적 기반을 다지고자 지난 91년부터 동문, 학부모, 기업체, 지역인사들의 참여에 전개되고 있는 사업이다.

우리는 지금 본인 각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국제화, 정보화, 세계화의 시대에 처해 있는 바, 대학이란 판단이 앞서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심과 명예욕이 개입된 계획은 후대에 그 부실함이 드러날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보다 나은 학문연구와 지식의 전달으로서 거듭 발전하는 모교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다시금 ‘제주대학교 발전후원회’에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가져 보이다.

제주대학교 민주동맹회 회장

발전기금으로 확보한 액수는 제주대학교의 입장에서 볼때 너무나도 방대한 것이 분명하다. 그 근거로 제주대학교가 ‘91년부터 ‘94년까지 4년동안 조성한 발전기금은 현금 약 12억원, 재산 약 17억원이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제 제주대학교는 국립대학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지금까지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등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현실에 안주하던 작금의 세월에 연연하지 말고, 국립이건 사립이건 설립주체가 누구냐를 막론하고 21세기에 대학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무한경쟁을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냉혹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제주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여왔다는 이근보 초대회장이 이끄는 ‘제주대학교 발전후원회’는 가까운 장래에 다시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사업을 구상하고 실행할 것인바, 이는 반드시 성공리에 완수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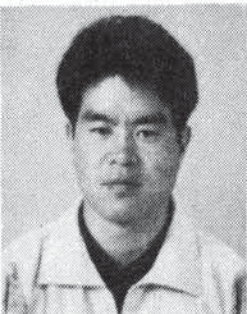
이에 발맞추어 제주대학교의 구성원은 대학의 발전목표인 21세기 국제화, 정보화, 세계화의 시대를 열어나갈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책무를 다하고자 지난 91년부터 동문, 학부모, 기업체, 지역인사들의 참여에 전개되고 있는 사업이다.

세계인이 ‘아라캤퍼스’에서 고급학으로 진입하겠다고 각기 혼신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 대학교가

총무과장

사심·명예욕 없이 열심히 일해주길

대학은 학문을 연구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지성의 전당입니다. 그리고 대학은 전통과 창조의 힘으로 그 생명력을 얻으며, 이러한 생명력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대학의 주체는 교수, 학생, 그리고 교직원임은 자분이 사람보다 우위의 힘을 가지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라 할지라도 변하지 않으며 변질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김승호
이사회원

급변하는 사회속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학문에 대한 청년학생들의 관심과 열정은 여타의 구성원을 보아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의 원동력은 바로 청년학생들의 열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여기에 대학의 전통이 뒷받침되어야 진실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주대학교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교육여건이 나이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학생들의 열정에 부응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지난 12월19일에 발족한 ‘제주대학교발전후원회’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제주대 동문의 일원으로서 사토 크다 하겠습니다. 후원회 발족후 언론에서도 평하였듯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제주대학교의 발전계획을 진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힘을 갖추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주대발전후원회’는 언제나 외적인 힘으로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제주대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주체는 교수, 학생, 교직원입니다.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함과 아울러 추진함에 있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제주대학교를 이루는 교수, 학생, 교직원들의 의견을 올바르게 반영하는 것이며, 이들 주체는 보다 발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구성원으로부터 좋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시행하는 것도 아울러 추진되어야 합니다. 좋은 계획은 몇몇 뛰어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 구성원 전체의 생활속의 의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또한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선, 후의 문제에 그릇되고 주관적인 판단이 앞서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심과 명예욕이 개입된 계획은 후대에 그 부실함이 드러날 것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보다 나은 학문연구와 지식의 전달으로서 거듭 발전하는 모교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다시금 ‘제주대학교 발전후원회’에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가져 보이다.

제주대학교 민주동맹회 회장

94학년도 학생회를 평가한다

변화 이끌 수 있는 정책개발 급선무 못지킨 공약 많아...일꾼부족 문제도 심각

학생운동의 위기설이 대두되면서 학생회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변화를 추구했다. 생활·학문·투쟁의 공동체 자주적 학생회의 가치를 내걸고 달라지는 학생회를 추구한 지 어언 5년. 그러나 그 기치와는 달리 우리의 공동체 학생회와 학우들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간다는 느낌이 든다.

'변화속의 정체'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변화를 두려워하는 학생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나 이제에는 달라져야 한다. 겉과 속의 완벽한 탈바꿈이 있을 때만이 한발 정진할 수 있는 학우대중속의 학생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학원자주화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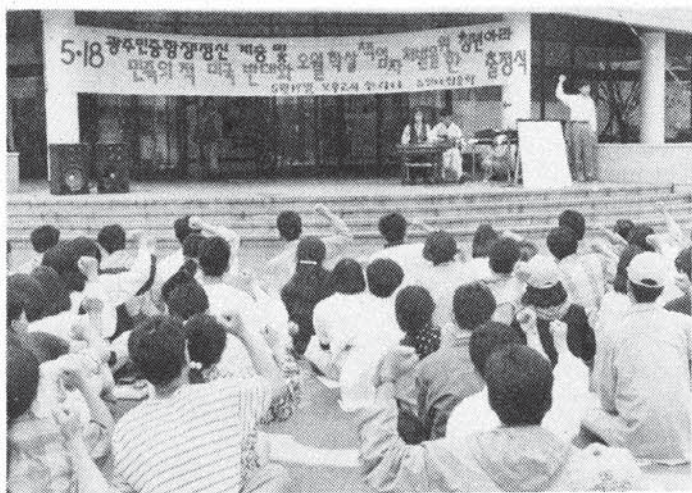
94학년도 총학생회는 학원자주화 사업으로 등록금 인상저지 및 대학발전협의회건설과 학내 복지 개선에 대한 내용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대다수 학우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산출해내지 못했다. 그 이유를 몇가지 살펴보면 첫째 학원자주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단체 학생회장들로 구성된 등록금 인상저지추진위원회를 꾸렸으나 학교측과의 등록금 협상과정에 있어 학우들의 의견수렴 미흡으로 간부중심의 협상이 되었다.

둘째 대학발전협의회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예결산 협의모임 생활복지협의회의모임, 교육여건개선모임, 제도개선협의회의모임 등 4개조직체를 마련했으나 각 영역별 활동에 있어서는 매우 부진함을 나타냈다. 예결산협의회의모임 경우는 기성회비상과 관련하여 6차모임까지 진행되었으나 생활복지협의회의모임과 교육여건의협의회의모임의 경우 1차례 모임밖에 가지지 못했으며 제도개선협의회의모임 경우는 이에 대한회의의 모임도 갖지 못했다. 그동안 학교측과 학생측 모두가 자료조사 및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진행에 차질을 빚었는데 이후에는 철저한 준비작업이 요구된다. 대학발전협의회의모임은 학생들만의 힘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회측과 학교측이 함께 노력할 때만이 정착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분실물환상관 설치, 백두관 앞 주차금지, 학생수첩 발행, 교표 배부, 학생 식당 음식질 개선을 위한 설문지 조사 등은 학우들에게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해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투쟁·연대 사업

제총협을 강화하고 제주지역 민중운동단체들과 연대하여 제주도 개발문제를 고민하고, 4·3학행의 진상 등을 규명하겠다고 했으나 산발적인 투쟁에 그쳐 별다른 성



◇학생정치는 점점 학우들과 의식이 공유되지 못한채 학생회간부중심의 모임이 되고 있다.

과를 얻지 못했다. 또한 중앙단위 차원에서 '조국통일 사업 주체'를 마련, 항시적인 정책을 마련해내고 학우들의 일상적인 정체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정치해설공간의 마련을 내세웠었다.

그러나 우선, 정치활동에 있어서는 전혀 대중적으로 이뤄지지 못하였으며 신세대(?) 학우들은 학생회 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지도 반대도 하지 않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한해 정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우루과이라운드 비준문제와 특별법 문제들은 학우들과 공유되지 못한 채 단지 학생회내의 문제로 인식되었던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학생회가 정치적 사안들을 대중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학우들은 점점 탈정치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집회에서도 학우들이 참여를 유도해내지 못함으로써 간부 몇몇만의 모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회환경의 변화와 학우들의 인식변화에 기인하는 변화의 흐름에 빠져들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집회의 형식이나 성격에 대한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4·3학행과 5·18민주화투쟁, 범민족대회 등은 한시적인 투쟁에 그쳐 전체적인 투쟁의 연계성을 담보해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4·3학행의 경우 우리와 직접관계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인 투쟁으로 밖에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학우들과의 공유적 투쟁도 미비해지고 있다. 이것은 비단 학우들의 의식변화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학생회도,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4·3학행정답'과 같은 구체적인 주제마련의 미비가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겠다. 반면 우루과이라운드 비준 문제와 관련한 한총련 백만학도 총투표 및 4·8동맹휴업부분

에 있어서는 오랜만에 많은 학우들과 공유해 내는데 성공했다. 즉, 이와 관련해 학우들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학생회인식이 학우들과의 일치됨을 보여줬던 부분이었다.

한편 연대사업인 경우 제총협내의 연대사업의 주체가 마련되지 못함으로 인해 사업의 출발부터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여름과 겨울 2차례에 걸쳐 행하고 있는 지역농촌을 비교적 지역민들의 연대속에 잘 이뤄지고 있으나 참가자들이 적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즉 학우들의 농활에 대한 인식 부족과 시기선택의 문제 등으로 인해 역시 단체, 과학회와 간부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게 아쉽다.

끝으로 올해들어 유난히 많았던 제총협 및 총학추진회 기자회견에 있어서 주축학생들이 준비미흡이나 시간관리의 부족으로 시작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함으로써 학생회에 대한 학내외의 인식이 급지만은 않았음을 지적하고 싶다. 또한 그다지 내용성이 없는 데도 스타의식의 발로인지 지나치게 기자회견을 자주 가짐으로써 학생회 활동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했다. 이로써 학생회 간부들에 대한 학우들의 신뢰는 더욱 실추될 수밖에 없었다.

▲복지·생활문화

집단적식을 고취시켜 생활의 공동체 건설과 소비항각적인 퇴폐문화를 척결하고 참다운 대학문화건설, 생활문화운동을 강화하기 위한 생활문화위원회의 구성을 내세웠다. 이에 대한 실천 상황을 보면, 첫째 과제목대회·단체체육대회·아리채전, 단체축제, 이리축제 등이 산발적으로 치러짐으로써 분위기가 조성되고 오히려 잦은 휴강으로 인해 학우들에게 혼란만을 야기시켰다. 축제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번 지적되고 건의되어 왔듯이 산발적으로 개최되던 것을 일정시기에 통합·개최하여 학우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다 함께 어울려 질 수 있는 대동의 장을 만들어 내가야 할 것이다. 또한 축제 내용면에 있어서도 세미나, 토론회, 발표회 등의 학술적인 부분보다는 주점, 가요제 등 오락성 있는 부분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알찬 내용을 담보해내지 못하고 있고 그때만 즐기고 보자는 식의 무의미한 시간이 되고 있다.

둘째 대자보 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서로간의 이기주의의 만연으로 인해 백두관이 어지러워지고 있으나 개선의 노력이 거의 없다. 예를 들어 '공간배치위원회' 같은 모임은 마련하여 중앙자치기구 및 대의원회, 동아리 등의 홍보물 부착 공간조정 및 대자보 문화정착을 위한 책임을 맡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교문앞과 체육관 앞쪽에 현수막걸이가 설치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후에도 적절한 공간을 찾아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현수막문화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일상사업

학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최대의 목적으로 삼은 일상사업은 학생회 사업의 형태와 방법을 변화된 학우들의 정서에 맞게끔 다양하고 세련되게 발전시키면서 공동체 의식, 집단주의의식의 내용을 충실히 담을 것을 내세웠으나 그에 따른 노력이 미비했고 달라져가는 학생의식과의 연계성 있는 사업의 진행을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더욱 학생회와 학우들간의 괴리감만 형성시키지 않았나 생각된다.

특히 과-단체-중앙간의 체계적인 연결고리가 미흡함으로 인해, 단체에서 마련된 사업의 내용들이 중앙에까지 전달되지 않음으로써 학생회 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과는 과대로 단체는 단체대로 중앙은 중앙대로 각기 노력은 하지만 하나로 결집되지 않음으로써 공유결집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조직 강화

학생회일꾼들의 올바른 변화를 바탕으로 분임생활조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학내대표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 시킨다고 했으나 별로 성과가 없었다. 학생운동의 퇴조기에 들어서면서 학생회와 학우들간의 거리는 멀어져가고 학생회에 대한 학우들의 관심도 자연히 소원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학생회를 이끌어 가는 일꾼은 일정한 범위를 이루게 되었고 해를 거듭할수록 학생회일꾼들이 해나갈 사람부족현상이 심각

F·H Dustin 교수의 정년퇴임사

제주의 당면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나는 제주대학교를 떠나면서 세가지 가슴 벅찬 느낌이 든다. 즉 깊은 자각과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 그리고 모든 이들에 대한 고마움이다.

우선 나는 23년전 이곳에 부임한 이래로 제주에 일어난 변화들을 깨달았다. 이것은 아마도 1273년 고려-몽골의 연합군이 제주를 동고에게 내어준 항과두리에서 삼별초를 전멸시킨 이래로 제주에서 일어난 가장 중대한 변화일 것이다.

내가 생각했던 대학은 언제나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들을 재교육하는 곳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그해에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이 15년 혹은 20년후에 그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인재가 되었을 때 대학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나는 또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될 때 새로운 도약으로 시작될 제주의 삶의 변화도 알고 있고 국제화, 세계화, 지방화의 영향도 더욱더 강렬하게 느꼈다. 이러한 변화들은 결국 대학이 제주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육구를 충족시키도록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젊은이들에게 자신들의 미래를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것에서 벗어나 제주의 미래에 직면한 당면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젊고 해외에서 교육받은 교직원들에게 제주 학생들의 혜택을 결정짓는 그들의 생각과 개념들이 현실을 맞도록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



두번째로 나에게 진정한 제주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기회뿐만 아니라 자유를 준 제주대학교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제주의 진실된 미는 바다도, 산도 아니고, 맑은 공기과 깨끗한 물도 아니요 바로 제주민인 것이다. 내 아내와 나는 23년전에 보다 나은 삶을 기대하며 제주에 왔다. 우리는 그 당시 그것을 깨달았고 아내는 세상을 떠났다. 그 후 나는 우리가 제주도민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세번째로 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한다. 이것은 내가 대학을 통해 그들의 삶에 조그만 부분이 되게 허락해 주신 제주대학교, 제주도민과 도기관에게 감사드리는 것이다.

이제는 또한 나를 지역사회에 한 구성원으로 받아준데에 대한 고마움이다. 그래서 나는 23년전 이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초대받아 부여받은 귀중한 자리에 대해 단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다.

며칠전에는 점심식사로 우족

탕을 먹고 있는데 근처 식당에 있는 세 남자중 한사람이 주인에게 이렇게 속삭였다. "나는 우족탕을 먹는 외국인인 본 적이 없어요"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말했다. "이봐요. 그는 외국인이 아니라 대학교수요"

일주일전 늦은 밤에 나는 남원 근처의 비포장도로를 매우 빠른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내 앞에 교통경찰관의 빨간 불이 보였다. 두명의 경관이 차 쪽으로 다가왔다. 나는 창문을 내리면서 생각했다. '오! 이런 큰일났군!' 돌중 나이는 경관이 안을 들여다보고는 "아니 교수님이시군요, 죄송합니다. 조심해서 운전하십시오"라고 말하고는 나에게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얼마전에는 깨끗이 이발을 하고 이용원을 내렸을 때 정면으로 귀엽게 생긴 중년여성을 만났다. 그녀는 영어로 "어머 Dustin교수님이시군요. 안녕하세요"라고 외쳤다. 내가 그녀를 기억하고 전에 "이 애가 제 큰 딸이에요. 어쩌면 2년후에 교수님의 학생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 애를 잘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했다. 그녀가 사라진 후에도 나는 그녀가 관광경영학과 1회 졸업생인 것을 알았다.

마지막으로 내 정년퇴임에 대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영광이며 솔직히 당혹스럽다. 그리고 지난 23년 동안 내게 친절해 주셨고 매우 만족스럽고 풍부한 삶을 주신 제주도민과 도기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해지고 있다.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점은 3월초 간부인선과정에서 나타난 간부회파장 부족현상과 95년 학생회선거때 총학생회와 동아리 연합회 부회장의 재출마를 들 수 있다. 사전 설의를 통한 간부구리가 화합되고 불가능해지자 '공개간부모임'등의 방법을 통해 사람을 모으고 있으나 학생회자체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학생회=운동권이라는 고정관념이 학우들의 의식에 남아 있어 점차 같이 일하고자 하는 학우들이 없다.

따라서 현재 부회장 직을 맡고 있는 학생이 다시 차기년도 회장으로 재출마함으로써 학생회가 계승된다'는 묘한 인식들이 학우들 사이에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분명히 '연계'또는 '조직강화'와는 다른 것이다.

또한 1년 사업중 가장 중요한 총평평가시기를 앞두고 그 직을 사퇴하고 재출마를 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총평평가의 인수인계 사업에 대해 미비함을 드러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사퇴를 하는 학우도 분명 공인임을 감안한다면 사퇴의 명분한 이유를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중앙운영위에서 사퇴이유가 통과됐음을 학우들에게 통보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학생회와 학우들간의 분리를 보여줬던 것이다.

학생회의 사람부족현상은 사업을 실시할 때마다 가장 근본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허나 현 간부의 재출마는 지금보다 공개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를 통한 엄격한 '사퇴'과정을 거침으로써 공개기구와 학우들간의 연계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치며

이상에서와 같이 94년도 학생회 활동을 평가해 보았다.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허나 1년동안 이곳저곳 취재다니면서 그 누구보다도 학생회활동을 가까이 접했고 눈여겨 보아왔기에 여러문제점을 많이 접할 수 있었다. 특히 지적할 수 있는 점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사회특집부)

도서관문제등 학내복지 관련 이슈 가장 많아 관계부서의 미온적 대처 시정돼야

독자의 소리를 통해본 1년

94년 한해동안 '독자의 소리'를 통해 들어온 학우들의 의견은 총 68건이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생활·문화 의식개혁에 관한 내용은 △강의실에서 '포크'너무하지 않는가 △학생회홍보물 그냥 버려져 학우들 내일 아니다' 외면받고 관심 가져야 △자거용 회포에 보형자 두렵다 △언어폭력 이대로 좋은가 △학내 상품광고 탓하기 전에 우리의 의식 개혁해야 △대동계 등 행사에 적극 참여해야 △백두관 로비의 자 거의 사라져 시설물 관리에 모두 관심가져야 △대학 경쟁력 강화 시급 잦은 휴강 대리출석 등 추방해야 △보고난 도서관은 제자리에 꽂아놓자 등 23건 ▲학생회 활동에 관한 내용 △학생회비 올바로 집행하라 △학생의 날 어디로 갔나 △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 부회장 돌연사 △정족수 부족으로 대의원회 총회 결여 △학생회 후보 대표 다뤄야 길거리에서 풍초 던지는 것부터 고쳐야 등이 11건

▲학교당국에 대한 건의 및 학내 복지문제에 관한 내용 △취업정보실 말하는 곳인가 △신청자 많아 수강 불허 △제1열람실 철야 개방이 바람직 △교내 차량 급증 불구 대책 소홀 과속방지턱 늘렸으면 △학생회홍보물 그냥 버려져 학우들 내일 아니다' 외면받고 관심 가져야 △자거용 회포에 보형자 두렵다 △언어폭력 이대로 좋은가 △학내 상품광고 탓하기 전에 우리의 의식 개혁해야 △대동계 등 행사에 적극 참여해야 △백두관 로비의 자 거의 사라져 시설물 관리에 모두 관심가져야 △대학 경쟁력 강화 시급 잦은 휴강 대리출석 등 추방해야 △보고난 도서관은 제자리에 꽂아놓자 등 23건 ▲학생회 활동에 관한 내용 △학생회비 올바로 집행하라 △학생의 날 어디로 갔나 △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 부회장 돌연사 △정족수 부족으로 대의원회 총회 결여 △학생회 후보 대표 다뤄야 길거리에서 풍초 던지는 것부터 고쳐야 등이 11건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올해는 다양하게 여러부문에 대한 의견이 들어왔는데 여기서는 이중 학교당국에 대한 건의 및 학내 복지문제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지난 한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취업정보실 말하는 곳인가'에서는 취업정보실 자체적인 자료가 미약하고 더군다나 자료를 찾으려한 학생에게 다른 학교에

연락해 보라는 식의 태도에 분개하면서 학교당국의 무책임함을 지적했다.

'신청자 많아 수강불허'에서는 매학기마다 계속되는 과밀강의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인원수가 너무많아 교수가 수강하락을 인해 주기 때문에 학우들이 받고 싶은 강의의 수강을 못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당국에서는 이에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방안을 모색하여 학우들이 원하는 강의의 수강을 가능케 하고 과밀강의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비슷한 문제점으로 '한 강의실에 수백명... 서서 수강'이라는 몇몇 강의에 학생들이 이태대해 분반배치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교수정원부족불구 공채인원반만 채움'에서는 17명 모집에 132명이 지원해 높은 경쟁률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9명만 채용했다는 기사를 보고 교수와 학생의 빈도를 생각해 볼때 법정교수에 못미치는 현실에 역행하는 처사임을 지적하면서 공개채용에

서 제의된 분야에 대해 이유를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기자재 없는 시청각실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에서는 백두관내의 시청각실의 용도가 원래 취지에서 많이 벗어나 총학생회 회의장, 동아리 총회 또는 각종 행사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하우루리 제대로문 시설을 갖춰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식당 음식질 개선 말뿐 메뉴 다양화 서비스 향상 약속 어겨'는 식대인상에도 불구하고 음식질 개선이나 메뉴의 다양화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학우들과의 약속을 지켜 믿음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에대해 관계부서에서는 학우들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물가인상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출판부 철야 마방 대학 본연의 기능 퇴조'에서는 대학 본연의 기능이 연구임을 인식할때 출판부를 활성화시키지 못할 망정 폐지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지적과 함께 출판부 폐지를 철회하여 보다 많은 연구 성과물들을 우리대

학 출판부에서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내었다.

'교내 차량 급증 불구 대책 소홀 과속방지턱 늘렸으면'에서는 최근 들어 자가용을 몰고 다니는 학우들이 늘어남에 따라 교내에 차량이 많아져 학우들의 안전이 위협하더라 안전을 위해 과속방지턱을 늘리라는 요구의 내용이다. 이에대해 관계부서에서는 '내년 예산에 포함시켜 과속방지턱 설치 시 급한 곳부터 차츰 설치하러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1열람실 철야 개방 바람직'에서는 현재 오전7시부터 오후10시까지 한도 개방 시간을 제1열람실에 한해 24시간 개방함으로써 기숙사생이나 학교내 연구실 및 고신원 등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학교에 남아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대해 도서관측은 좌석독점이나 청소문제를 이유로 제1열람실 철야개방은 불가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다른 대학은 실시하고 있는것을 우리대학은 안된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학우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는만큼 당국에서는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물품보관함 관리소홀 잠금장치 설치없으면'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도서관에서의 도난사건과 이로인한 학우들 사이의 불신감을 지적하면서 물품보관함 잠금장치를 설

치할 것을 건의했다.

'향토자료실 열람불편'에서는 향토자료실에 자료가 제대로 비치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열람중인 곳에 있어 찾기가 어려웠더라 제대로문 곳에 다양한 자료를 비치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이에대해 관계부서에서는 '향토자료실 신장'을 이용해 요구하는 것들은 모두 구입하고 있는데 자료는 없다고 하면서 막상 '신청하는 학우들이 없어 곤란할때가 많다고 대답했다.

'학생증 발급기간 늘려야'에서는 매주 수요일에만 하고 있는 학생증 발급일정을 다른 때도 실시하여 학우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라는 내용이었지만 이에대해 학교당국은 '2개의 증명서를 소지할 수 밖에 있기 때문에 현재 증명서 발급절차와 마찬가지로 발급기간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보도블럭 망가진 것 많아 발길걸는 학우들 위험'에서는 교문에서 위로 올라오는 인도를 비롯 몇몇군데 보도블럭이 망가져 미관상 안 좋을뿐 아니라 학생들이 다니는데도 위험하다고 지적하면서 관계부서의 시정을 요구했다. 관계부서에서는 "지금 당장은 예산문제를 여러가지 절차가 복잡하고 내년 예산에 편성하여 고쳐려고 하고 있다"며 "일마동안 불편하더라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이상에서 살펴본것들이 94년 한해동안의 독자의 소리는 대체적으로 학생의식개혁과 학생회 학내복지 등에 집중되었으나 예년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적절한 지적을 한것으로 보인다.

또한 독자의 소리에 투고한 학우들의 분포를 보면 △단체별로는 △인문대 20명 △사범대 18명 △자연대 11명 △공대·경대 6명 △농과대 5명 △해대 2명 △법정대 0명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2학년 31명 △3학년 18명 △1학년 17명 △4학년 2명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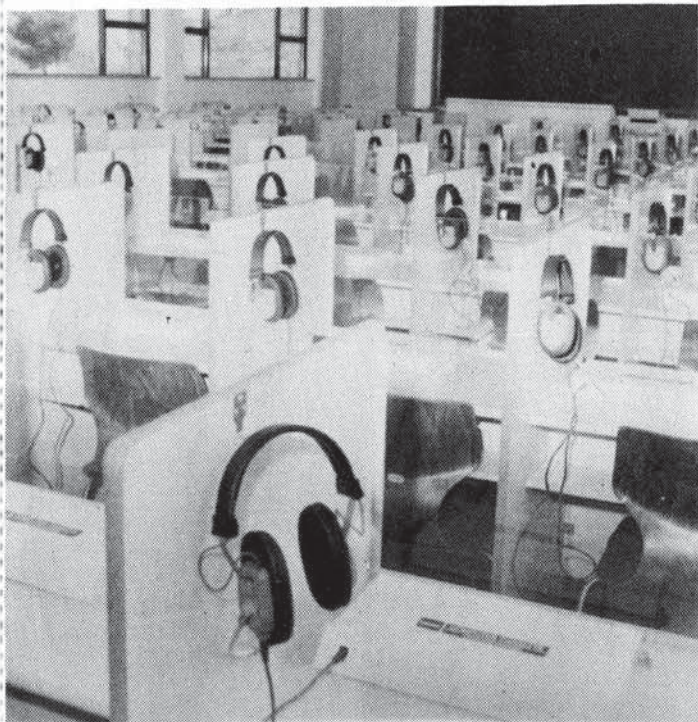
어느 한 단대나 학년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참여를 보여주었다. 한편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학우들의 지적이나 요구에 대한 관계자측의 확실한 답변이 잘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몇가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했으나 그것마저도 확실한 해결책이라기보다는 노력중이라는 공색한 답변이 주를 이뤘다.

올바른 여론이 올바른 사회를 이룰 듯 우리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도 다양한 학우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자신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일이나 개선해야 할 점 혹은 칭찬해 주고 싶은 일들을 가슴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당당히 꺼내놔야 할 것이다. 또한 지적을 받은 쪽에서는 발전을 위한 충고로 받아들여 지적사항을 곧바로 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권숙수기자)

■ 새해 달라지는 것

외국어교육관

최신 영상·동시통역시설 완비 영상통해 교양영어·특강실시 예정



◇국내최고의 시설들을 갖춘 우리대학교 외국어교육관이 방학중에 설비장치를 완료해 신학기부터는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0월19일 개관해 한국 최고의 외국어교육관으로 대내·외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우리학교 외국어교육관이 오는 2월까지 각종 시설장치를 완료함에 따라 새학기부터는 최신설비를 이용한 외국어 교육이 이뤄지게 된다.

외국어교육관에서는 종전의 강의방식을 탈피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 구상이 구체화되면 특징적으로 세가지 점에서 획기적이고 새로운 교육시스템이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첫째, Video & Audio system에 의한 시설과 프로그래밍을 갖춰 이전의 듣기위주의 강의가 아닌 영상교육을 통한 TOEFL·TOEIC 특강 및 교양영어 강의가 이루어진다.

둘째, 동시통역시설을 갖추어 서로 영어로 그룹별 자유토론을 하거나 강의 중 학생과 교수 상호간 영어로 대화가 가능하게 된다.

셋째, 종전에는 일률적이던 교양영어교과서를 새학기부터는 교수 개인의 임의선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계층별·학과별로 다양한 교과를 선택해 새로운 방식의 외국어교육을 시도하게 된다.

이러한 것들은 전국대학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외국어교육프로그램이어서 다른 대학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1층에 배치된 외국어교육실에서는 최첨단 음향시스템장치와 컴퓨터시스템을 비치하여 비디오·이동식영화를 통한 외국어교육이 이루어지게 된다.

2층의 사운드라이브러리(48석 2개실)는 비디오와 오디오시설을 갖춘 개인자습실로 96개의 개인자습용 비디오가 설치 운영된다.

최첨단 음향시스템과 소형·중형·대형스크린 장치를 설치하여 사용영 영상실은 원문영화상영과 일반학과와 전공시청각교육에 이용된다.

3층의 원탁전용외국어실에서는 비디오와 동시통역시스템을 이용한 외국어학과 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의 수업이 진행된다.

또한 외국어교육관에서는 전 세계의 TV와 영상의회의를 시청할 수 있는 인공위성수신안테나를 설치하여 외국어교육관의 모든 강의실에 연결시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외국어교육관에서는 현재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중국의 우수대학과 각 나라의 교육프로그램 전문업체·교육방송 등과 업무협정이나 자매결연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임기자)

전자계산소

1월중에 LAN완공 교육망노드 변경 실습실 24시간 개방...486PC 80대 구입

전자계산소에서는 95년 1월중에 대학내 LAN(근거리 통신망)을 완공시키고 통신네트워크 구축·교육망노드 변경 등의 사업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학사업무의 효율적처리 및 전산교육의 활성화와 함께 교직원·학생들의 전산소 이용도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11월중순경부터 착공된 LAN(근거리 통신망)은 1월중에 완공될 예정이다.

LAN은 캠퍼스 내의 각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전산망을 통하여 대학 본부에 업무보고와 공문전달 등을 할 수 있으며, 해외 및 국내 대학·연구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학술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최첨단 근거리 통신망이다.

전자계산소는 올해 초 교육망사업 확충을 위해 교육망노드(Road)를 변경한다.

지금까지는 외국과의 학술정보통신을 접속하려면 전담대를 거쳐 다시 서울대 전산소에 있는 한국통신과 연결되어야 통신이 가능해 그동안 불편이 많았다. 예컨대 전남대 전산소에 고장이 발생하면 우리대학은 외국과의 정보교류에 지장을 받아왔던 것이다. 하지만 서울대와 단 한번에 직접 연결하

는 교육망노드로 전환하면 전남대 전산소의 고장에 관계없이 외국과의 학술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전산소에서는 또한 최근들어 보고서 등을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컴퓨터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내년 9월초에 실습실을 24시간 철야 개방한다.

아울러 국고 1억여원을 투자하여 486컴퓨터 80대 및 프린터 3대를 구입할 예정인데 새 PC구입이 이뤄지면 실습실의 컴퓨터 보유대수는 총 1백90대가 된다.

한편, 95년 초 우리대학 시스템인 백스 시스템을 통신 네트워크가 강화고 대용량·초고속 시스템인 64메가급 유닉스 시스템으로 바꾸었다.

이 시스템은 처리속도가 빨라 그전에 사용하던 백스 시스템이 4일동안 작업해야 할 업무를 단 6시간 정도면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아직까지는 모든 학사업무가 전산소를 통해 전산처리되고 있지만 1월중에 LAN이 완성되면 LAN을 활용하여 각 담당부서에서도 업무를 전산일체·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전산소에서는 전산개발과 정보·통신교류에 전념하게 되어 이제 우리대학 각종 시스템의 전산화가 비약적으로 진전되는 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송병철기자)

취업정보

각학과 PC통해 각종 정보습득 가능 취업특강 다양화...취업설명회 1학기중 개최

취업에 관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주기 위해 지난 11월말 개통된 취업정보통신망이 새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활용가능해 된다.

신학기부터는 취업자료를 얻기 위해 굳이 장학담당관실을 찾을 필요없이 각 학과에 설치된 컴퓨터 화면을 통하여 자신의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게 된다.

장학담당관실에서는 지난 5월경부터 금성정보통신(GINS, Goldstar Information Network Service)에서 제공하는 각종 취업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다. GINS란 기업내 각 부서간 회원사, 지사간의 의사소통시스템 등 금성정보통신이 구축한 종합VAN(부가가치통신망) 서비스이다.

우리대학은 금성정보통신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전산소의 주컴퓨터로 받아들이는 다음 터미널을 통해 장학담당관실과 각 단과대학의 행정실은 물론 도서관과 각 학과 사무실까지 보내게 된다.

아직까지 도서관과 각 학과로 연결시킬 수 있는 통신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지난 11월 중순경 작업에 들어가 올해초에 완공되는 LAN(근거리정보통신망)이 구축되면 모든 정보가 LAN

망을 통하여 도서관과 각 학과로 보내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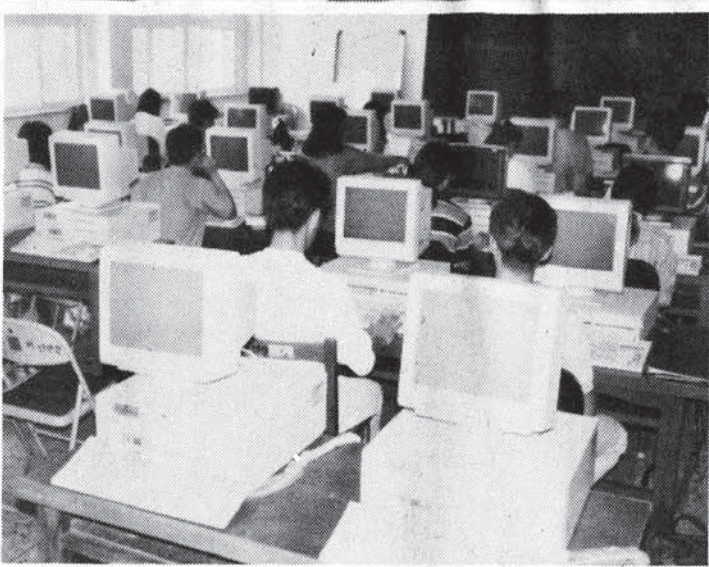
그간 지방이라는 단점으로 정보수집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LAN을 통해 타대학과 연결된 교육망을 통하여 도서관과 학술정보를 빠른 시간에 입수할 수 있게 되며, 해외학술망을 통한 정보획득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된다.

한편, 문헌특강학점당은 “학년말에 이루어지는 취업정보설명회가 취업준비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아 올해에는 시기상으로 앞당겨서 봄에 개최할 예정”이며 “취업특강도 정보제공을 위한 특강, 시험대비를 위한 특강 등 분야별로 나누어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취업정보설명회, 학기초에 이루어지면 취업에 직면한 졸업생 뿐만 아니라 재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처럼 새로이 구축되는 취업정보망을 제대로 활용하면서 취업지도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산전문요원과 취업상담전문요원의 보강 등 학교측의 행·재정적 뒷받침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김이진기자)



◇새해부터는 취업특강이 다양화되고 LAN완공으로 전산업무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새로 나온 책

『과실생리학(감귤)』 백자훈교수 저서



백자훈(원예학과)교수의 저서 『과실생리학(감귤)』이 지난 10월 15일 광문당에서 출간됐다.

이 책은 30여년간 강의한 내용과 국내·외적으로 운주밀감의 과실생리에 대한 자료들을 모아 펴낸 것으로 우리나라 총감귤생산량의 99%인 운주밀감에 관한 연구

자료를 정리해 과실의 형성, 성장, 성숙, 수확 후의 생리, 과실의 성분 등에 관하여 생리학적 측면에서 그 원인과 결과를 추구하는 데 중점을 두어 다루고 있다.

『...기초상식백과』 박양문교수 저서



박양문(농학과)교수의 저서 『아두면 반드시 도움되는 기초상식백과』가 지난 10월25일 도서출판 좋은글에서 발간됐다.

△농학 △식물 △동물 △지구 △인문 △조류 △강산호 △등

■ 새해 달라져야 할 것

강의평가제

‘스승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된다’라는 유교사상이 깊이 뿌리박혀 있는 우리에게 자신의 강의내용을 학생들에 의해 평가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데다가 아직 교육여건의 미성숙 등이 현실점에서 강의평가제를 흔쾌히 도입시키지 못하는 이유일 것이다.

일부교수들은 “평가의 기준이 뭐냐?”, “학생들이 제대로 평가해 낼지 어떻게 장담할 것인가?”라는 강의평가제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직접적으로 내보이는 경우도 많지만 요즘 들어서 강의평가제를 실시하는 대학이 늘어남에 따라 여건만 조성해 준다면 실시해 볼만하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교수들도 늘어나고 있다.

91년 한성대를 시작으로 처음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강의평가제는, 현재 부산대, 전남대, 서울대, 한양대 등 총 12개 대학에서 실시되고 있고, 그 실시를 계획하고 있는 대학은 전북대, 건국대, 조선대, 이화여대 등 총10개 대학이라고 밝혔다.

우리대학의 경우, 고충장의 대학운영방침에 따라 지난 5월 교무처에서 32개 문항의 강의평가문항을 마련한 후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때 제시된 문항을 대별해 보면 △강의내용의 체계 및 명료성 △강의방법 및 능력면 △교수·학생의 친화성 △학습과제 및 평가 △학생의 자기 평가 및 기대 등이다. 그 후 교수들로부터 수렴된 내용을 토대로 18문항으로 설문문항을 축소시켜 3백20명의 교수들에게 배포했는데 그 설문에 답변한 교수는 7%에 해당하는 22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수들은 “실현시키기 자체가 열악하고 강의시간도 너무 많아 강의평가제를 도입하는 외국 교수처럼 교수들이 연구나 강의에 투자하는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상태에서 강의평가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기 때문에 호응도가 낮

언제까지 교수들 눈치만 볼 건가 전남대등 12개대학선 이미 실시

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강의평가내용을 공개했을 경우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도 교수들이 강의평가제에 대한 호응도가 낮은 이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김범국 교무처장은 “강의평가제는 처음에는 비공개로 전제로 하여 결과를 교수에게만 전달함으로써 자기평가의 형식으로 시행하다가 그것이 제대로 정착된 후에 공개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의평가제에 대해 송창운(행정3)차기 총학생회장은 “타대학에서 시행하는 경우를 알아보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측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라면서 “학교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대학에서는 몇몇 교수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강의평가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 이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학교측에서는 이런 교수자세대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이를 활성화시켜 나간다면 학과, 단과대학 차원에서, 전 대학 차원으로 의무화되어 앞으로 1~2년 안에 정착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측에서는 학우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부터 희망하는 교수에

한해, 기말고사 2주 전에 강의평가 실시를 계획하고 있는데 강의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학교측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적극성을 띠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학우회의에서 대부분의 교수들이 반대하면 다시 2학기 아니면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계획안도 마련할 수 없는 상태이다. 현재는 그 문항만을 작성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기말고사 3주 전에 구체적인 계획안이 마련된다는 것이다.

교수들의 의식이 변화해 주기만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인가. 교수는 교수대로,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 이 강의평가제의 토대 마련에 협력하고 여론화하여 점차 세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지만, 무엇보다 학교당국의 의지가 요구되는 시점인 것이다.

강의평가제의 인식에 있어서도 단순히 교수에 대한 통제수단이라는 부정적인 면에서 벗어나 이 제도가 연구와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좋은 제도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높은 교육여건조성에 대학이 온 힘을 기울여야 하겠다.

(강정순기자)



◇강의평가제 도입도 시급하지만 교육여건도 하루빨리 개선돼야(과밀강의모습)

출판부

획기적 활성화 대책 절실 전문인력배치·예산지원등

최근 3년간 유명무실했던 출판부가 지난해 폐지 위기까지 몰렸다가 학교당국이 반대여론을 의식해 존치시키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학출판부는 그 대학에서 이룩한 연구업적의 총결산서를 집대성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대학 출판부는 그동안 사실상 그 기능면에서 부실함을 면치 못했다.

지난 11월1일자로 출판부장에 임명된 김태권(국어교육과)부교수는 11월23일자 제대신문을 통해

출판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출판부는 지식의 공유와 전수라는 가치관에 입각하여 간행방법을 모색해야 하고, 둘째 대학출판부에서는 대학 교양교재에 대한 출판물 실현시켜야 하며, 셋째 대학내 각 기관과 연구소에서 나오는 각종 간행물의 출판을 출판부가 대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출판부 존치가 확정되면서 교과과에서는 약 한달간 타대학 출판부에 대한 자료조사를 벌였지만 “아직 출판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추진사항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관계자가 밝혔다.

수차 말해왔지만 출판부가 이제까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이유는 초보적인 여건조차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력·재정에 대한 학교당국의 지원이 급선무인 것이다. 출판부가 활성화되고 있는 부산대나 경북대의 경우 연간 약 2억원 정도의 막대한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는데, 그동안 전무한 우리대학의 활동 등을 볼 때 3~4년간은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장기적인 안목아래 투자를 이뤄져야 마땅하다. 사실 매켄토시 컴퓨터와 출력기 등을 구입하는 데는 2천만원 이내로 가능하므로 그 정도의 예산지원과 그것을 운용할 만한 추가비용 및 전문인력만 지원되면 충분히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학교당국에서는 학내외에 걸쳐 출판부 존치를 결정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좀더 의욕을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강윤실기자)

있는 농산물만을 대상으로 하여 가공이론과 기술적인 부분을 다룬 이 책은 식품공업의 현황과 전망을 통해 먼저 내용면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고, 식품원료의 가공특성을 두어 식품화학적 분야의 기초적인 이론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옛날사람 오늘날』 신용준동문 전고칼럼집



신용준(한라전문대학장·국어국문1회 졸업)동문의 80·90년대를 살아가는 동안 느꼈던 단상들을 옛 고사성어와 연결시켜 적은 글 57편이 수록돼 있다.

김영홍동문 첫시집 『부재증명』출간



김영홍(국어국문학과 71년졸)동문의 첫 시집 『부재증명』이 지난 12월1일 동학사에서 발간됐다. 이번 시집은 △제1부 역류하는 계절 △제2부 오름오름 살아감 △제3부 외톨이 △제4부 겨울을 보며 △제5부 물의 의미로 구성됐다.

신용준 한라전문대 학장(65)이

대학평가제 대책—어떻게 되고 있나

대학수준·정부지원 정도 등을 좌지우지
철저한 사전평가 통해 문제점 개선해야

대학종합평가인정제

96년도에 받게 될 대학종합평가 인정제를 위해 자체평가위원회의 발족과 담당부서의 점검 및 보완책 마련에 95년 한 해 우리대학이 해야 할 중점적인 추진사업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92년도부터 대학전반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대학종합평가인정제'와 개별학과를 대상으로 하는 '학과평가인정제'로 구분해 실시하고 있다.

대학전반에 대한 평가인 대학종합평가인정제는 94년도부터 대학별 평가시기 신청에 따라 7년을 주기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94년도에는 서울대·부산대·경북대 등 7개대학이 평가대상학과로 선정되어 종합평가를 실시했다.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목적은 대학교육의 수월성·효율성·책무성·자율성·협동성을 제고하고 재정의 확충을 통하여 대학을 발전시키는 데 있으며 대학의 학위취득건과 배출인력의 질적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각 대학이 학생들에게 내실있는 교육을 하도록 유도하는데 있다.

대학개방화, 진학인구의 감소현상 등 교육환경의 변화를 볼 때 이 제도의 결과는 중요한 인자로 작용할뿐만 아니라 평가결과가 정부의 행정 재정지원에 반영되어 도태되는 대학은 계속 도태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생각할 때 이 제도는 막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평가부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수영역
6개의 평가영역 중 가중치가 가장 높은 교육목적, 교육과정, 수업, 학생 등 4개 부문에 모두 22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에서 교육과정은 4개 평가 부문 중 가장 높은 가중치를 두고 있으며 교육과정 편제의 적절성, 교양교육과정의 적절성, 전공교육과정의 적절성, 실험실습교육의 충실도, 교육과정운영의 다양성과 융통성, 교육과정 개선노력과 실적 등 6개 항목으로 세부화된다.

△연구영역
연구영역은 연구실적, 연구역전, 연구지원체제 등 3개 평가부문에 12개 항목에 평가되며 이 중 연구

지원체제는 대학연구관리부서의 운영, 연구소의 연구비, 연구소의 연구 학술활동, 연구용기자재의 적절성, 연구결과와 출판 및 발표에 대한 지원 등 5개 항목으로 평가된다.

△사회봉사영역
사회봉사영역은 사회봉사와 대외활동 등 두개의 부문에 대해 8개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됐다.

△교수영역
교수영역은 교수구성, 수업부담 및 복지, 교수인사, 교수개발 등 4개의 평가부문에 구성돼 있는데 이 중에서 교수구성이 가장치가 가장 높다. 교수구성의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전임교수의 확보정도, 전임교수 박사학위 취득정도, 전임교수 출신교의 다양성, 시간강사 의존도, 시간강사관리 및 처우상대, 조교학과의 적절성 등 6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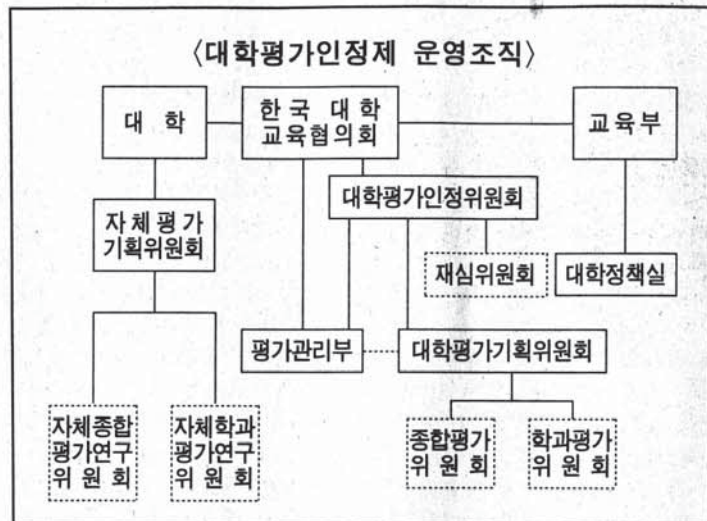
△시설·설비영역
시설·설비영역은 재정·경영영역과 함께 두번째로 높은 가중치를 두고 있는 영역으로 교육기본시설, 교육지원시설, 실험실습 설비, 후생복지 시설 등 4개 부문에 평가가 이뤄진다. 이 중 가중치가 가장 높은 교육지원시설은 도서관의 적절성·열람좌석의 확보·국내외의 정기간행물·학술지의 구독·교육매체 제작·시설의 확보 및 실험·교육용 컴퓨터의 확보상태·정보처리체제의 구축 및 운영·체육시설의 적절성 등 7개 항목으로 평가된다.

△재정·경영영역
재정·경영 영역은 재정확보·예산편성 및 운영·기획 및 평가·행정 및 인사대학의 의사결정 등 5개 부문에 대해 평가가 이뤄진다.

한편 대학원은 교육과정, 수업 및 논문지도, 교수, 시설·설비, 재정·경영 등 5개 부문에 모두 20개 항목에 대해 평가가 있게 된다.

학부와 대학원에 대해 평가가 이뤄지는 종합평가인정제는 각 대학이 평가시기를 신청하면 대학교육협의회에 평가시기를 결정해 평가시기가 확정되며 이후 각 대학에서는 대학별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이 보고서를 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한다. 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제출된 보고서를 통한 서면평가와 현지방문평가를 실시하여 인정여부와 판정결과를 공포하는 식으로 평가제가 이뤄지게 된다.

이 평가결과는 정부에서 각 대학에 대한 지원정책과 판단자료로



활용되며, '인정' 판정을 받은 대학에는 국고보조금 지원 및 학과 신·증설 등 행정 및 재정적 지원과 자율성을 우선적으로 부여받게 된다. 또한 기업체의 사회재용 정책, 연구용역 수주자를 결정하는데 컨소시엄 구성 등에서 평가결과가 활용되며 민간단체의 연구비 및 장학금 지원자료, 진학자료 등 사회일반에 대해서 대학질적수준을 이해하는 자료로 폭 넓게 쓰이게 된다.

한편 우리대학교에서는 96년도에 받게 될 이 평가를 위해 오는 2월까지 자체평가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자체종합평가기획위원회와 자체종합평가연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위원회는 자체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확보를 지원하게 되며 연구위원회는 자체평가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사전평가를 통해 당장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것은 개선해나가며, 평가결과를 대학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해 실천할 방침이다"라며 "사전평가를 통해 지적되는 모든 문제점을 보완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가능한대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체평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자체평가연구실무지원반 구성도 검토해볼 예정이다. 평가항목별 각종 기초자료를 수집·작성하고 자체평가연구위원회의 활동을 보조해 자체평가에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후의 보완책 마련까지 참여해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이다.

이번 인정제가 일률적인 평가라는 지적 등 평가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나 대학의 질적향상이라는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함께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

고 있다. 다른 대학에서는 이 평가 준비를 대학운영방침과 연계시켜 추진해나가는 등 이 제도로 대부분이 대학이 초긴장상태이다.

따라서 대학구성원전체가 이 평가결과에 영향권에 있음을 인식해 경각심을 가져야 할것임은 물론 학교당국은 단일한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평가항목에 따라 우리학교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진단해보고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당장 개선이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위해선 '단순한 평가를 위한 준비'라는 인식을 깨고 각 부서가 자발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평가를 준비하고 점검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초석으로 만들어야 한다.

(오유선기자)

경영·관광·무역·회계학과 평가받을 준비돼 있나

‘불인정학과’ 판정날 경우

대학이미지에 치명타...정부지원 줄어들어

학과평가인정제

지난 92년부터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대학의 행정 및 재정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학과평가인정제는 대학사회의 중대한 관심사로 대두됐다. 특히 각 대학간의 비교평가라는 점에서 좀더 나은 결과를 받기위해 모든 대학은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과평가인정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내의 관련학회의 지원을 받아 평가단을 구성하여 대상학과에 평가기준을 개발하고 이 기준에 의해 대학자체 평가연구를 실시한 다음 평가단의 서면평가와 현지방문평가가 이루어진다.

모든 평가결과는 이의상사절차를 거쳐 교육부에 보고되고 교육부는 대학교육심의회와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발표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지난 92년에는 '학과교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해당학과 학문의 수월성을 유지 향상시킨다'는 취지 아래 처음으로 물리학과와 전자공학 학과가 평가학과로 선정, 전 대학의 비상한 관심아래 두 학과의 평가가 실시됐는데 우리대학인 경우, 대학원 과정이 설치된 물리학과만

이 평가를 받아 실험 실습기자재의 대폭적인 보충이 필요하다는 등 학과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받은 바 있다.

또한 93년도에는 '화학'과 '기계공학'과가 선정돼 평가가 실시됐으나 우리대학에는 대학원 과정이 설치돼 있지않은 상태여서 평가대상 선정방향이 수정됨에 따라

94년에는 생물학계열 및 화학공학계열이 선정돼 우리대학 생물학과가 평가를 받았다.

생물학과는 학과평가에 대비한

자체평가연구위원회를 지난 연초에 구성하여 각 교수의 작성책임 분야와 세부적인 자체평가 추진일정을 정하고 대학당국에 자체평가 기획위원회 구성과 평가연구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자체평가연구위원회와 자체평가 기획위원회는 △자체평가연구의 기본전략 수립 △평가연구계획 수립 △자체평가연구 경비의 확보지원 △자체평가보고서 내용검토 및 보완 △최종확정 및 인쇄 등을 맡아 자체평가보고서를 지난 6월경에 대학교육에 제출했다.

이에따라 대학교육은 지난 7월4일 생물학과를 방문해 현지 방문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평가결과를 연 말까지 개별대학의 학과평가보고서 및 종합보고서를 발간하여 오는 95년초에는 우수학과로 선정된 학과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95학년도 '학과평가인정제' 대상학과에는 우리대학 경영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관광경영학과가 선정됐다.

95학년도 평가대상 학과선정에는 경영학계열학과(경영, 경영정보, 공업경영, 관광경영, 수산경영학과)와 회계학과와 무역학과 중에서 설치된지 5년이 지난 학과(90년이전 신설학과)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처음에는 우리대학 경영학과만이 선정됐으나, 이전 규정인 '대학원 과정이 개설돼야 한다'는 평가대상 선정방향이 수정됨에 따라

우리대학 관광경영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도 추가로 선정된 것이다.

현재 세부평가항목 및 서면평가, 현지방문 평가일시가 확정되지 않

은 상태여서 학과평가대책위원회 등 학과평가에 따른 준비는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이나, 95학년도 평가대상학과로 선정된 이상 구태의연하게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된다.

시급히 각 학과의 현실정정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객관적으로 점검하여 능동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교육목표, 교육과정, 교수, 학생, 시설·설비, 행정·재정 등의 6대 항목으로 범주화하고 있는 평가내용은 필수항목과 보조항목으로 다시 나누어지고 이에따라 평가결과에 인정학과 또는 불인정학과로 구별된다.

불인정학과 판정을 받을 경우는 정부의 대학에 대한 행정적 자율권부여와 재정적 투자에 적지않은 제약을 받게되므로 학과평가를 등한시 할수 없는 형편이다.

생물학과장 오덕철 교수는 "학과평가에 대비해 각 교수님들이 책임분야를 맡아 평가준비를 수행했다"며 "보다 나은 평가를 받기위해서는 학과자체노력 외에도 대학당국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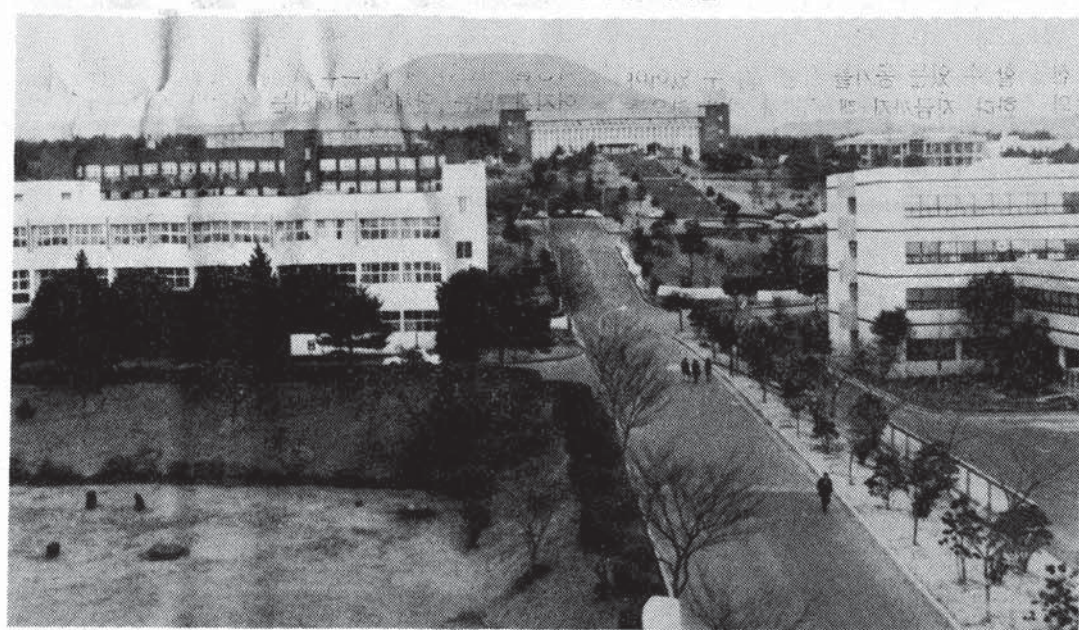
이와같은 대학간 자율경쟁체제에서의 도태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대학 학과의 발전을 위한 각 부문의 구체적인 체계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방대인 경우는 평가결과를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연계시킬 경우, 여건이 우수한 대학이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정책을 반대하고 있으나, 대학교육에서는 우수대학으로 판명된 대학에는 보상적 지원을 미흡판정을 받은 대학에는 조정적 지원을 한다는 다소 어정쩡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학과발전을 위한 대학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발전후원의 활성화와 발전기금 조성사업 등 대학재정 확충사업은 열악한 대학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질적발전의 필수적 요건이라 하겠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학과평가에서 우수학과 평가를 못 받는다면 현재의 추세가 대학선택보다는 우선적으로 학과위주로 선택하는 경향이어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힘들어 질 것이며, 매년마다 실시되는 학과평가는 오는 96년도에 실시될 우리대학 전체에 대한 종합평가인정제에 대비한 예비평가라는 사실을 우리모두 직시, 우수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전 이상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정용복기자)



◇사자는 토끼 한마리를 잡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한다 대학평가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는 과연 어떤지 냉철히 점검해 봐야 할 것이다.

■교수동정

▲신행철(사회학과)교수=지난 12월14일부터 15일까지 경북대에서 열린 전국국립대학, 기획연구실장 협의회에 참석.

▲부만근(행정학과)교수=지난 12월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총무처주관 '정보공개법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에 참가.

▲송대진(식품공학과)교수=지난 12월14일부터 16일까지 '94 수산과학신포럼 조직위원회'주최로 부산수산대에서 열린 수산과학신포럼에 참가.

▲장재성(통신공학과)교수=지난 12월15일부터 18일까지 한국전자기술학회 주최로 연세대에서 열린 '94년도 정기총회 및 종합학술발표회'에 참가.

▲이광만(전자공학과)부교수, 고정택(〃)·강민재(〃)교수=한국전자통신연구소 위탁연구과제인 'CDMA 이동통신 변복조알고리즘의 VHDV 세계에 관한 연구' 최종결과보고서 발표차 지난 12월13일부터 16일까지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방문.

▲최영찬(해양학과)교수, 방익찬(〃) 부교수=지난 12월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대학



교에서 열린 '황해년류의 기원' 학술심포지엄에 참석.

▲최치규(물리학과)교수=지난 12월20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서 열린 위탁과제평가회의에 참석.

▲임상용(체육학과)교수=1월17일부터 1월30일까지 전임교원 자체 해외연수계획에 의거하여 학술교류 및 연구·교육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미국의 대학 및 연구기관을 방문할 예정.

▲고정대(물리학과)교수=지난 12월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홍익대학교에서 진공학회 주최로 열린 표면과학세미나에 참석.

▲김태곤(국어교육과)부교수=지난 12월15일부터 17일까지 국어학회 주최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열린 '제21회 국어학회 공동연구회'참석.

▲고봉수(수학교육과)부교수=지난 12월14일부터 17일까지 한국수학회 주최로 포항 공대에서 열린 '한·일 편미분 방정식 학술회의'참석.

▲좌종근(전기공학과)교수=2월2일부터 2월10일까지 '94 전임교원 자체 해외연수단'일원으로 미국순국.

▲이광만(전자공학과)부교수=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미국 케이스웨스턴 리저브대에 공동연구 및 연구자료 수집차 방문.

■공연·전시

‘제1회 택견인의 밤’
맥객전회서 개최

맥객전회(회장 강동석 전기공 1)는 지난 12월20일 맥두공 시정각실에서 '제1회 택견인의 밤'행사를 개최했다. 한국전통택견회 제주도지회(지회장 백정희)와 한국전통택견회 제주도전수관 등에서 후원한 이날 행사에서는 옛 시대의 서민복장을 입고 머리띠를 두른 학우들이 택견의 '형'과 비슷한 '본대보기'를 시작으로 '막음질' 동작, '얼레메기' 등 크게 12가지의 다양한 동작을 선보였다.

‘제대미전’

미술학과 1월5일부터 문예회관서

미술학과(학과장·양창보교수)에서는 오는 1월5일부터 11일까지 문예회관 전시실에서 제22회 '제대미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한국화 작품이 선보일 예정이다.



◇최우성(2학년)의 '겨울나무'

‘디딤전’ 개최

미술학과 1학년서

미술학과 1학년(학내대표 양창부)학우들이 주최하는 '디딤

양화 '가을흔적'(김성호 2)의 31점, 조소 '기억의 습격Ⅱ'(이상훈 1)의 29점 및 판화와 정밀묘사 등 모두 1백10점의 작품이 선보일 예정이다.

한 발자국 남았습니다—통일의 재부활기 남북경협, 범민족대회 참가기 △제1회 4·3문화상 당선작 등의 다양한 내용이 실려있다.

『하라산』35집 발간
교지 편집위원회

『하라산』 제35집이 지난 11월말 교지편집위원회(편집장 송은숙·국교4)에서 발간됐다.

이번 제35집에는 △'94비상, 아라동 산1번지-21C를 비껴가는 제주대학교 종합발전계획안, 대통령 각하 5%약속 꼭 지켜요, 한총련을 만난다 △1994년의 개꾸로 들여다보기-보이는 사실과 보이지는 거짓, 언론수용자운동의 이론과 실제 △4·3진상규명운동의 현황과 조직과제 △새로운 조직사건 △주인이 주인되는 지방자치-우리가 알아야 할 지방자치, 생활정치시대의 여성 △

제22회 시화전개최

문학동인 '초승'

국어국문학과 동문 및 재학생들의 문학모임인 초승(회장 김유경 93년 봄)문학동인에서는 제22회 시화전을 지난 12월22일부터 24일까지 로도페 이스커피움에서 열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고은진동문(94년 졸)의 '나는 힘이 솟는다'등 17편의 시화가 전시됐다.

『발간소식』

『하라산』35집 발간
교지 편집위원회

『하라산』 제35집이 지난 11월말 교지편집위원회(편집장 송은숙·국교4)에서 발간됐다.

이번 제35집에는 △'94비상, 아라동 산1번지-21C를 비껴가는 제주대학교 종합발전계획안, 대통령 각하 5%약속 꼭 지켜요, 한총련을 만난다 △1994년의 개꾸로 들여다보기-보이는 사실과 보이지는 거짓, 언론수용자운동의 이론과 실제 △4·3진상규명운동의 현황과 조직과제 △새로운 조직사건 △주인이 주인되는 지방자치-우리가 알아야 할 지방자치, 생활정치시대의 여성 △



한 발자국 남았습니다—통일의 재부활기 남북경협, 범민족대회 참가기 △제1회 4·3문화상 당선작 등의 다양한 내용이 실려있다.

『아라여성』22호 발간
총여학생회

총여학생회(회장 성기남 국문 4)회지인 『아라여성』 제22호가 지난 12월5일 발간됐다.

4면으로 발간된 이번 호에는 △우리나라 제도교육에서 드러나는 성차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 해결점을 모색한 '교육의 성차별'(여성문제연구소 소모임)을 비롯해 △'또 하나의 문화'창간 10주년 기념행사 소식 △우리시대의 남자-영동서고 국어교사 유동철씨 △여성의 연극표방 '넌 프로다' △북한식 가부장제의 해체 △이런 영화, 이런 책, 이런 비디오훈의 내용이 실려있다.

해양대, 홍보지 발간

우수신입생유치위해

해양과학대학(학장 정상철 증식학과 교수)에서는 지난 12월말경 우수신입생 유치 및 대학 홍보를 위한 안내책자를 발간했다.

국·영문으로 소개된 이 책자에는 해양과학대학의 △교육목표 및 기구표 △대학현황 △학과별 교과과정과 교육·연구분야 △해양연구소 △실습현황 등의 내용이 화보와 함께 실려있다.

『돌하르방』18호
지조위서 발간

지역조사위원회(위원장 지은숙 사학4)기관지 『돌하르방』 제18호가 지난 12월2일 발간됐다.

총 12면으로 짜여진 이번 호에는 △양용찬 열사 정신계승의 현재적 의의 △한국지방자치의 성격과 95년의 의의(이영길의정 정경연교수) △제주도역 출발에 즈음하여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실시계획 분석안 △95년 총학생회와 각 단대학생회, 자치기구의 지역정책안을 제시한다 △지하수 이용과 보존방안에 대한 소고 △관광개발지구 주민의식조사 설문분석 등이 실려있다.

기획좌담

개선돼야 할 생활문화

뒷풀이, 평가와 대화 자리로 정착 시급
축제와 체전 통합... 의례적 행사전락 막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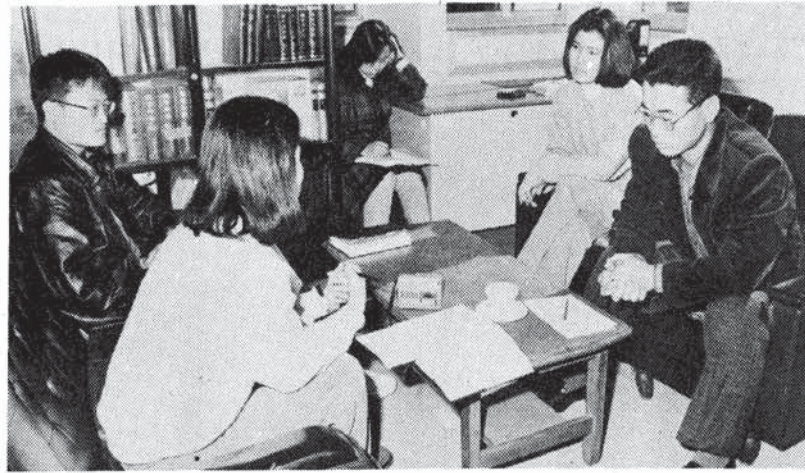
최근 대학문화가 대학문화 그 자체로 독자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를 많이 한다. 이에 본사에서는 뒷풀이와 축제, 대자보, 도서관이용 등 우리들의 생활문화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의 개선책을 모색해보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다음은 좌담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역은이 씀)

뒷풀이문화: 뒷풀이문화는 한국의 농경사회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일을 마칠 때 그냥 끝내기보다는 뒷풀이 자리를 통해 긴장을 풀고 다음 일상을 준비했던 것으로 한국적 철학을 찾을 수 있는 문화인 것이다.

대학내에서 뒷풀이는 지성인으로서 고민을 하고 그런 고민들속에 다음 일을 준비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80년대 민주화투쟁시대에는 대학전반에 걸쳐 뒷풀이자리가 평가의 시간으로 자리매김 되었고 뒷풀이를 통해 구성원들간의 유대관계를 넓혔다.

대학문화가 대중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대학이라는 독자성과 특수성을 간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최근 우리의 뒷풀이문화는 모임과 행사 끝에 늘상 갖는 것으로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지만 예전에 가졌던 의미들은 많이 퇴색되어진 채 형식적인 자리가 되어가고 있다.

모임을 준비하고 치르고 그리고 난 후 최종적인 끝맺음의 시간이 바로 뒷풀이로 행사에서 미흡했던 점과 좋았던



참석자: 김 경(농경제학과 3) 95년 총학생회 기획1부차장
한재훈(화학과 3) 94년 학원지회추진위원회위원장
이은주(국어국문학과 3)
일시: 1994년 12월 29일 **장소:** 본사 편집국
사회·정리: 오유선기자

평가를 받았으나 학술행사나 세미나 등이 부실한 채 먹거리와 주점만이 성황을 이루는 모습을 보였다.

단체축제 역시 이슈없는 축제로 대부분이 가요제와 주점위주로 진행됐다. 또한 아라대전은 선수들만 휴강시켜 선수들만의 축제라는 인식을 불러일으켜 관심이 저하되는 등 의례적인 행사라는 인식을 남겼다.

이와함께 아라대동제, 단체축제, 학교 축제, 단체체전, 아라대전 등 체육대회와 축제가 산발적으로 열려 수업결손, 면학 분위기 등의 문제점을 보여 행사기간과 시기에 대한 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다른 대학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축제와 체전을 폐합시키는 추세이다. 우리대학교에서도 단체체전과 아라대전, 단체축제와 아라대동제를 폐합시켜 학우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내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우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객체로 서 있던 학우들을 주체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건 자신의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끌어내기 위해 학생회는 신학기전에 축제와 체전 폐합문제를 고려해 일년의 사업계획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며 충분한 시간을 가져 내용마련에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재훈 학우

대자보 홍보물문화: 자본주의의 꽃을 광고라한다면 대학문화의 꽃은 대자보라 할 수 있다. 대자보를 통해 사상이나 이슈들에 대해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시사적인 정보를 얻는 등 대자보는 대학이라는 특수성을 맞출 수 있는 문화이다.

그런데 이러한 대자보가 무분별한 게시와 미수거로 인해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어떻게하면 잘 이용해서 참여를 해야 한다고 외침이 아니라 참여를 유도해낼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번 대동제의 경우 탑동에서 폐막식을 가져 이전과는 달리 시민과 어우러지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서 쏟아져나오는 각종 홍보물과 외부홍보물, 바닥홍보물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우선 대자보는 게시기간을 제시하도



이은주 학우

록해 자체적으로 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게시기간이 지나도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단체학생회에서 수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백두관 대자보는 총학생회에서 학생회관이용수칙들을 마련해 자체적으로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동아리홍보물과 학교홍보물인 경우 동아리연합회와 단체학생회에서 관리를 해 부착할 수 있는 수를 제한하고 게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외에 외부홍보물은 학교직원이 찍혀진 것만이 게시가능하도록 하고 바닥홍보물과 나무등을 이용해 홍보물을 부착하는 것은 규제를 해야 할 것이다.

대자보와 홍보물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협의회를 구성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한편 예산이 많이 필요하거나 전자상환관이 학생회관내 설치된다면 많은 정보량을 보유할 뿐만 아니라 환경을 저해하는 이점의 모습들을 청산할 수 있으므로 학교측과 총학생회는 고려해볼 적이다.

도서관이용실태: 지성의 전당이라고

하는 대학을 대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중앙도서관이라 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 도서관은 자리독점과 깨끗한 이용이 안돼 몸살을 앓고 있다.

시험기간만 되면 자리독점으로 인한 불평의 소리가 높다. 자리를 잡아놓기만 하고 이용은 얼마 안아 있지도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메뚜기운동이 확산돼 자리가 빈 경우 메뚜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메뚜기'를 함께 붙일까하는 생각에 모두들 건물 입구나 계단부근에 붙이는 바람에 이런 곳은 난잡하기 그지 없다. 특히 백두관은 대자보와 홍보물 세상이다.

축제때나 공연시 동아리와 각 학과에

한편 시험기간에 미리 전날 자리를 잡아놓는 사례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도서관자치위원회에서 규제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서관자치위원회가 이러한 활동을 하기위해 책상하나라도 마련을 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휴게공간이 모자란 까닭에 로비부근에서 집담을 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경우가 많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휴게공간 마련을 위해 총학생회에서 노력을 해야겠지만 열람실안에서 과자를 먹거나 휴지를 함부로 버리는 행태는 사라져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한 건물안에 모여 생활하는 곳이니만큼 시설물 사용에 주의를 해야할 것이며 도서관자치위원회는 화장실고장 등 보수해야 될 것들을 학교측에 전달해 보수가 이뤄지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도서관이용이 즐겁도록 학우들과 직원들 모두 노력해야 한다.

동아일보 신춘문에 당선작

이런 세상 어때세요

김지연

날이 째뽕하군요.
할 수 없어요, 늘 같은 주말로 하죠.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사람과
같은 반찬으로 밥을 먹어야겠어요.
외출은 삼가세요.
바깥 날씨쯤 잊어버려요.
당신의 영원한 TV가 대체로운 재방송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시청률에 항상 주의해주세요.)
채널과 채널 사이 잠음은 신경 쓰지마세요.
다만 집 앞을 파대는 굴착기 소리에
심장 박동을 맞춰주세요.
곧 파관한 아스팔트로 포장해 드릴게요.
잠깐, 채널을 바꾸지 마...세...

질려하고 부드러운 진흙 바닥 위에
화면 가득 입을 썩어 벌린 장풍이 두 마리
먹고 사는 일이 크면 그뿐
주먹도
피도
눈물도 없이
고개 꺾고 물러나네.
먹고
사랑하고
천국 같은 진흙에 뒹굴다
물이 들면 파아랗게 뛰어올라
하늘에 찌는 장풍이 세상.
(아! 한 가지 아쉬운 건 그곳엔
TV가 안나온대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안테나 잊지마세요.)



인터뷰

동아일보 95 신춘문에 당선자 김지연동문

“일상에서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시 쓸터”

“일요일에 잠을 자다가 공사하는 소리에 잠 깨서 텔레비전을 켜는데 퀴즈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그 프로그램에서 ‘장풍’이라는 갯벌에 사는 물고기가 나오고 있었고, 그 물고기들이 갯벌에서 뛰어나고 갯벌위를 뒹굴다가 암-수가 서로 싸우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죠. 그런데 싸우는 모습이 힘을 겨룬다든지, 한 것이 아니라 서로 입을 크게 벌리고 입이 작은 물고기가 스스로 물러나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95년 동아일보 신춘문에 시 부문에 당선된 김지연(국어국문학과 90년 졸) 동문은 당선작 「이런 세상 어때세요」를 쓰는

이런 당선작 「이런 세상 어때세요」는 TV를 보면서 느낀 감정을 그 때의 번거롭고 권태



로우면서도 폭력적인 일상을 단순하고 솔직하며 비폭력적인 자연의 세계를 대비시킨 시어구사와 지적 분위기를 표현한 작품으로 차분하고 분명하게 자신의 시세계를 개척해 나가

고 있으며, 반어적 동화적인 기법으로 현실을 풍자하고 있는 맛깔스런 작품으로 평을 받고 있다.

김동문은 “이 시가 신문과 함께 사람들에게 읽히게 되면

“이런 작품을 가지고 당선하더니”라는 말을 들을 것 같아 부끄러워요”라며 발표가 되길 꺼리는 김지연은 “내게는 상황에 따라 ‘문학의 위기’라는 말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김동문은 ‘시를 어떻게 써서 독자가 한 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는 시’라고 말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끄러워요”라고 말했다.

“게을러서(?) 1년에 10편 정도의 시밖에 못쓰는” 김동문은 이번에도 마감 20일전에야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끄러워요”라고 말했다.

누구의 시를 좋아하느냐는 물음에 “특정시인의 작품을 꾸준히 좋아해보지는 않았어요. 어떤 시를 좋아하느냐는 것은 어떤 시를 좋아하느냐는 물음과 같아요. 꽃가게에서 봐서

에쁜 꽃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도 이 시도 좋았다 저 시도 좋았다 자주 바뀌는걸요”하며 대충 대답한 김지연은 “시작의 시를 즐겨 읽었다고 한다.

요즘 잡지가 많이 생겨서 등단하기가 예전보다 쉬워졌을 뿐 아니라 시인이 아닌 사람들이 시집을 많이 내는 상황에 따라 ‘문학의 위기’라는 말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김동문은 ‘시를 어떻게 써서 독자가 한 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는 시’라고 말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끄러워요”라고 말했다.

문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희망을 가지고 시를 써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지연은 “이 시가 신문과 함께 사람들에게 읽히게 되면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좋은 시를 쓰는 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한다고 하는데 저 자신은 스스로 나이가 많이 들면 좋은 시를 쓸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를 하죠.” 하지만 시를 쓰는 순간마다 ‘이번이 마지막 시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

앞으로 살아가는데 옳다고 생각되는 일, 사상, 정감 등 생활의 용기를 담은 시를 쓰고 싶다면 스스로 다짐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지연은 “이 시가 신문과 함께 사람들에게 읽히게 되면

“이런 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줄 몰랐다”며 앞으로 신춘문에 당선되는 것이 소망이라 밝히는 김지연은 학우에게 앞으로 많은 활동을 기대해 본다.

【韓】



◇형식적인 축제가 아니라 학우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

95총학생회장에 송창윤·김대근조 당선...1백4표차로

4천7백69표중 2천4백9표 얻어...지지율 51%

대의원회의장에 강종우·김미란조 총여학생회장에 이봉실·고민실조



송창윤



김대근

지난 11월24일 치러진 95학년도 총학생회 선거 결과 진보총학의 송창윤(행정 3) 김대근(전기공 2)조가 양현준(법 4) 송종철(물리 2)조를 1백4표의 근소한 차로 누르고 차기 총학생회장단에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진보총학팀은 총투표자수 4천7백69표 중 2천4백9표(51.14%)를 얻었으며 청년사랑팀 2천3백5표(48.33%)를 얻었다. 4년만에 경선으로 치른 이번 선거에서는 총유권자 7천2백21명 중 4천7백69명이 투표에 참가해 66.04%의 투표율을 보였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21.06%가 높아진 것이고 경선이 치러졌던 91년도의 72.1%보다 6% 낮아진 것이다.

이날 개표는 야간강좌부 선거가 끝난 밤10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명, 개표종사자 7명, 언론사 3명, 후보자측 참관인 6명이 개표작업에 참가해 새벽 1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개표가 진행되는 중에도 몇몇의 학우들이 개표장, 총학생회사무실, 신문사 등지

로 직접 찾아오거나 전화로 개표현황과 결과를 물어보는 등의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단대별 투표결과를 보면 사법대가 79.76%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법정대=73.5% △공과대=68.64% △자연대=65.89% △인문대=64.28% △농과대=64.27% △해양대=61.90% △경상대=60.25% △야간강좌부=58.94% 순으로 나타났다. (표참조)

이번 총학생회선거는 4년만에 치러지는 경선이어서 선거운동의 과열로 선거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1주일에 한번씩 양측후보의 선거사무장회의를 갖고 선거운동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점 및 정책선포와 유세방법 등을 논의함으로써 양측후보자의 직접적인 충돌을 최소화 시킬 수 있었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예전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달라진 점은 기호를 없애고 각후보자를 케치프레이즈를 사용한 것이었다. 이는 각 후보자의 기

대학	총유권자	투표자수(투표율)	진보총학	청년사랑	무효표
인문대	1128명	724(64.18%)	450(62.15%)	262(36.18%)	12
법정대	386명	282(73.05%)	171(60.63%)	111(39.36%)	0
경상대	908명	547(60.24%)	274(50.09%)	271(49.54%)	2
사법대	593명	473(79.76%)	193(40.80%)	271(57.29%)	9
농과대	876명	563(64.26%)	334(59.32%)	220(39.07%)	9
해양대	580명	359(61.89%)	176(49.02%)	182(50.69%)	1
자연대	947명	624(65.89%)	224(35.89%)	393(62.98%)	7
공과대	1384명	950(68.64%)	493(51.89%)	444(46.76%)	13
야간강좌부	419명	247(58.94%)	94(38.05%)	151(61.13%)	2
총계	7221	4769(66.04%)	2409(50.51%)	2305(48.33%)	55(1.16)

◇95 총학생회장 선거 결과

호가 유권자들에게 선입관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우려의 소리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호를 없애고 자신들의 캐치프레이즈를 사용한 점은 학우들에게 좀더 가깝게 다가가는 선거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양 후보자간의 직접적인 대립이 없었다는 점은 바람직하나 선거기간동안 후보자들을 공격하는 내용의 소문이 끊이지 않았고 대자보가 불타고 현수막이 사라지는 등 아직도 '공정선거'를 정착해 나가기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정책선포회와 2차례의 합동연설회장에는 일반 학우의 수보다는 선거운동원의 수가 훨씬 많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다음 선거에서 학우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이 충분히 모색돼야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했다.

한편 이번에 당선된 진보총학은 지난 12월21일 94년 총학생회와의 인수인계작업을 마치고 일부의 간부를 구성한 한편 구성이 안된 부서는 공개모집을 하고 있으며, 현재 방중사업과 95년 사업을 해나가기 위한 준비로 한창이다.

한편 23일 실시된 대의원회 선거에서는 단독후보한 강종

우(농경제 2) 김미란(경제 2)조가 총유권자 1백61명 중 93명(57.7%)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 80표(86.02%) 반대 13표(13.08%)로 당선이 확정됐으며, 24일 실시된 총여학생회 선거에서는 이봉실(농경제 3) 고민실(야간회계 2)조가 총유권자 4천28명중 2천3백50명(58.34%)이 투표한 결과 찬성 2천53표, 반대 2백50표로 당선됐다.



◇우리대학은 올해 43억원을 투입해 공대C동(사진) 및 동물병원 등을 완공할 예정이다.

한·일농업과학세미나 열려

‘UR이후 제주농업의 경쟁력...’ 주제로

제4회 한·일농업과학 세미나가 ‘UR이후 제주농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이란 주제로 지난 12월16일 우리대학 농과대(학장 강경선 농업경제학과 교수)와 아열대연구소(소장 장진익 원예학과 교수)공동 주최로 한·일 농업과학 관계자와 교수 20명이 논문발표 및 토론회로 참가한 가운데 자연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3개분과로 나누어 4개의 연구논문 발표 및 토론회로 진행됐다.

각 분과의 논문발표자 및 토론회는 다음과 같다.

▲제1분과 △논문발표자: 貞松光男(일본 와하현 과수시험장) △토론회: 김광중(축협 제주도지회 회장), 김호성(제주도 산업경제국장).

▲제2분과 △논문발표자: 고정진(농업경제학과) △토론회: 김광중(축협 제주도지회 회장), 김호성(제주도 산업경제국장).

▲제3분과 △논문발표자: 김지용(농업경제학과) △토론회: 김광중(축협 제주도지회 회장), 김호성(제주도 산업경제국장).

▲제4분과 △논문발표자: 김지용(농업경제학과) △토론회: 김광중(축협 제주도지회 회장), 김호성(제주도 산업경제국장).

▲제5분과 △논문발표자: 김지용(농업경제학과) △토론회: 김광중(축협 제주도지회 회장), 김호성(제주도 산업경제국장).

▲제6분과 △논문발표자: 김지용(농업경제학과) △토론회: 김광중(축협 제주도지회 회장), 김호성(제주도 산업경제국장).

▲제7분과 △논문발표자: 김지용(농업경제학과) △토론회: 김광중(축협 제주도지회 회장), 김호성(제주도 산업경제국장).

▲제8분과 △논문발표자: 김지용(농업경제학과) △토론회: 김광중(축협 제주도지회 회장), 김호성(제주도 산업경제국장).

▲제9분과 △논문발표자: 김지용(농업경제학과) △토론회: 김광중(축협 제주도지회 회장), 김호성(제주도 산업경제국장).

▲제10분과 △논문발표자: 김지용(농업경제학과) △토론회: 김광중(축협 제주도지회 회장), 김호성(제주도 산업경제국장).

▲제11분과 △논문발표자: 김지용(농업경제학과) △토론회: 김광중(축협 제주도지회 회장), 김호성(제주도 산업경제국장).

외도천 오염지도 작성 사업단 발족

제주지역경실련서

제주지역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표 고충석 행정학과 교수)에서는 외도천오염원지도작성사업단(단장 현영진 화학공학과 부교수)발족식을 지난 12월28일 제주경실련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발족식에서 고충석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외도천오염원지도작성은 상수원의 보전과 지하수 확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며, 현영진 부교수는 사업계획보고를 통해 “제주경실련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환경보전을 위해 수질오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 밝혔다.

외도천오염원지도작성사업단은 지난 12월중순 실시한 외도천 일대에 대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3월까지 오염원지도를 작성하고 4월초 오염원지도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학과 중등 교육 연계방안 모색

교육대학원 ‘중등학교 물리교육현실...’ 세미나서

교육대학원(원장 고영규 사회교육과교수)에서는 지난 12월9일 사법대 세미나실에서 교수·중등교사·학생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등학교 물리교육의 현실과 바람직한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규용(과학교육과)교수, 고재철(경북대)교수-문충식(경기 광명고)교사등이 주제발표를 했다.

김규용교수는 ‘신·구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과학과 물리용어 분석’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내년부터 실시될 제6차 교육과정 중 물리용어의 출현은 교과정이 1백59개, 구과정 1백63개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지만 단일별 특징을 살펴보면 교과정이 에너지에 관련된 내용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교수는 “신·구교육과정 모두 외래물리용어는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할 용어와 인명용어 외에는 게재하지 않고 있으며 전체 용어중 차지하는 비율은 교과정이 15.1%, 구과정은 12.3%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대학발전기금 기탁현황

(접수순)

(94.11.9일~95.1.5일 현재)

소속 및 지위	성명	기탁액
삼다토산품 대표	문수진	2,000,000
법정대 교수	윤양수	1,000,000
	익명	200,000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장	조백제	220,000,000
축협중앙회 제주도지회장	강덕홍	1,000,000
(주)건흥전기시장	고인호	50,000,000
한국마사회 회장	오영의	30,000,000
농과대 교수	조남기	1,000,000
학생회 학생과장	이은상	700,000
소계 9건	9명	305,900,000
합계 322건	880명	1,244,476,603

재단법인 제주대학교 발전기금

전화번호

(064)55-6201, 55-7202(이사장, 총장)

55-8561(상임이사, 기획연구실장)

54-2140~2(재단사무실, 기획담당관실)

FAX: 064-55-8562

공대C동·동물병원 올해내 완공

5개 시설사업에 43억4천만원 투입

우리대학은 올해 43억4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공대 C동 및 동물병원을 완공하고 △해양대 증축 △예술관 증축 △사대부중 교실 증축 △사대부고 본관보수등의 시설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시설과(과장 김병호)에서 발표한 95년도 시설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공대C동 신축사업 등 5개 시설사업을 조기 완공하기 위해 지난해 투자액 33억9천만원보다 28.17%증가된 43억4천5백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세부 사업별 투자계획을 보면 △공과대 C동 완성공사에

15억5천9백만원 △동물병원 완성공사에 9억3천6백만원 △해양대 증축공사에 4억9천6백만원 △예술관 증축공사에 7

억1천4백만원 △사대부중 증축공사에 2억5천5백만원 △사대부고 본관보수공사에 2억5천5백만원 등이 각각 투입된다.

2백2명에 부직알선

장학담당관실서

94년 동계방학중 장학담당관실(담당관 문진탁)을 통해 부업을 알선받은 학우는 총2백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부업알선현황을 보면 △방방요원 72명(남 72명) △가라지실시요원 63명(여 63명) △사무보조 50명(남 9

명, 여41명) △한국통신 10명(여10명) △제주은행 7명(여7명)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장학담당관실에서는 대학생들의 다양한 사회경험습득과 건전한 근로의식 함양 및 학비조달 기회제공을 위하여 매학기마다 알선해 오고 있다.

‘제8회 대마난류지역의 생물지리 심포지엄’ 개최

본교·나가사끼대 교수 40명 공동연구결과 발표

우리대학교와 일본 나가사끼대학교의 ‘제8회 대마난류지역의 생물지리 심포지엄’이 지난 11월26일 일본 나가사끼시 시민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대마해류 자체의 성질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방각한(해양학과)부교수와 미야자키(나가사끼대학)교수의 공동논문 ‘Variation of the Tsushima Current off the West coast of Kyushu detected by the Sea level fluctuations’ 등 총 13편의 공동논문이 발표됐으며, 우리대학 손대준(어업학과)·노홍길(·)·고유봉(·)·오문유(생물학과)·김문홍(·)교수, 이준백(해양학과)부교수, 방익찬(·)조교수를 비롯해 양측 총 40명의 교수들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논문과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노홍길(어업학과)교수, 방익찬(해양학과)부교수= ‘Seasonal variations of water-mass distributions around Cheju Island’

▲고유봉(해양학과)·손대준(어업학과)교수= ‘Seasonal fluctuations of pelagic copepods on the coast of Cheju Is-

land, Korea’

▲이준백(해양학과)부교수, 마스오카(나가사끼대학)교수= ‘Distribution of dinoflagellate cysts from surface sediments in southern Korea waters’

▲나스카리(나가사끼대학)교수= ‘Isosyme Analysis on a mudkipper Boleophthalmus pectinirostris’

▲아즈유마(나가사끼대학)·나스카리(·)교수, 사와스히(일본 자연환경연구소)= ‘Distribution of the Ayu in the Tsushima Current regions’

▲아즈유마(나가사끼대학)·수기모토(·)·오가와(·)교수= ‘Genetic variation of phoxinus fishes in the Tsushima Current regions’

▲오문유(생물학과)·가야노(나가사끼대학)교수= ‘Phylogenetic relationships between Cheju and Tsushima native horses by the gentic protein markers and the restriction analysis of mitochondrial DNA’

▲오문유(생물학과)·아가야모(나가사끼대학)교수= ‘Korea, Cheju and Kyushu share Common Chromosomal

Variation in three species of grass shopper’

▲히가시(나가사끼대학)·가야노(·)교수= ‘Korea strait bordering two Karyomorphs of off the West coast of Kyushu detected by the Sea level fluctuations’

▲아라키(후코오카대학)교수= ‘The distribution of diploids and polyploids of Scilla Scilloides Druce in Chinese main land, Korea peninsula Japanese islands’

▲김문홍(생물학과)·아이토우(나가사끼대학)= ‘Distributions of evergreen broad-leaved plants in satellite islands of Korea and Western Kyushu, Japan’

▲마스오카(나가사끼대학)교수= ‘Expansion process of laurel forests around Tsushima Current regions Since the last maximum glacial age’

한편, 이 심포지엄은 지난 91년 우리대학과 일본 나가사끼대학 간에 체결된 학술 및 교육교류협정에 의해 매년 양 대학에서 격년제로 돌아가며 개최하고 있다.

F·H·Dustin교수 정년퇴임

지난16일 경상대 세미나실서

F·H·Dustin(관광경영학과)교수의 정년퇴임식이 지난 12월16일 경상대 세미나실에서 교직원 및 졸업생·재학생 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거행됐다.

(관련기사 8면)

박상수(경제학과)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퇴임식은 더스틴교수의 약력소개·공로패 수여·기념품증·학장인사·퇴임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통해 더스틴교수는 “내가 그동안 대학 강단에 서서 교육자로서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제주대학교·제주도

민·도기관에게 감사드린다”라고 하면서 “나는 23년전 이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초대받아 부여받은 귀중한 자리에 대해 단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다”고 퇴임소감을 피력했다.

더스틴교수는 우리대학에 재직중인 외국인교수로는 처음으로 정년퇴임을 했는데 약력은 다음과 같다.

▲제1분과 △논문발표자: 김지용(농업경제학과) △토론회: 김광중(축협 제주도지회 회장), 김호성(제주도 산업경제국장).

▲제2분과 △논문발표자: 김지용(농업경제학과) △토론회: 김광중(축협 제주도지회 회장), 김호성(제주도 산업경제국장).

▲제3분과 △논문발표자: 김지용(농업경제학과) △토론회: 김광중(축협 제주도지회 회장), 김호성(제주도 산업경제국장).

▲제4분과 △논문발표자: 김지용(농업경제학과) △토론회: 김광중(축협 제주도지회 회장), 김호성(제주도 산업경제국장).

▲제5분과 △논문발표자: 김지용(농업경제학과) △토론회: 김광중(축협 제주도지회 회장), 김호성(제주도 산업경제국장).

▲제6분과 △논문발표자: 김지용(농업경제학과) △토론회: 김광중(축협 제주도지회 회장), 김호성(제주도 산업경제국장).

▲제7분과 △논문발표자: 김지용(농업경제학과) △토론회: 김광중(축협 제주도지회 회장), 김호성(제주도 산업경제국장).

▲제8분과 △논문발표자: 김지용(농업경제학과) △토론회: 김광중(축협 제주도지회 회장), 김호성(제주도 산업경제국장).

▲제9분과 △논문발표자: 김지용(농업경제학과) △토론회: 김광중(축협 제주도지회 회장), 김호성(제주도 산업경제국장).

지난 5월부터 수배 받아오던 홍진혁(중식 4)총학생회장이 지난 12월1일 새벽 6시30분경 우리대학 정문앞에서 학내에 미리 잠복해 있던 경찰에 의해 붙잡혀 구속됐다.

홍진혁회장은 지난 5월 조선대에서 열린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제주경찰에서 수배령이 내려진 후 학교에서만 생활해 오

던 중에 연행 구속된 것이다. 홍진혁회장은 현재 국가보안법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정식 재주교도소에서 재수감형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에 의하면 홍진혁회장은 오는 1~2월중에 재판을 받게된다. 한편, 이와관련 총학생회에서는 변호사선임 및 면회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지난 12월23일 법과정책연구소주최로 열린 ‘세계화를 위한 토론회’에 5백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세계화를 위한 토론회’개최

법과 정책연 ‘...도민의 대응자세’주제로

지난 9월1일 개소한 우리대학 법과정책연구소(소장 서경림 법학과 교수)가 주최한 ‘세계화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 12월23일 도내 각계인사 5백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룬 가운데 오리엔탈호텔 2층 한라룸에서 개최됐다.

21세기의 세계화에 부응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세계화에 대한 인식과 자세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열린 이번 토론회는 권영호(법학과)조교수의 사회로 3시간여에 걸쳐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조문부(행정학과)교수는 ‘세계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방향과 도민의 대응자세’라는 논문을 통해 “우리의 세계화는 지정학적 여건으로 보

나 자연자원적 여건으로 보나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며 “전국민의 의식개혁을 통한 자율적 능력개발이 중요한 것”이라 추진을 위한 다음 단층의 계획에서는 지식인이나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체계적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의 주제발표자 및 지정토론자는 다음과 같다. ▲주제발표자: 조문부 행정학과 교수 ▲지정토론자: 조정대원 사회학과 교수 ▲김부찬 법학과 부교수 ▲장원철 국민대학교 부교수 ▲이문교 제주MBC총무국장 ▲고충석 행정학과 교수(제주경실련 공동대표) ▲장응모 민주당국대

□ 제14회 백록학술상 일반논문부문 가작

제주도 방언의 상대존대법 연구

—상대존대법 어미를 중심으로

고맹훈(국어국문학과 4)

I. 서론

인간생활의 본질은 개별적이 아니라 종합적이며, 고립적이 아니라 연대적인 데서 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 비로소 '인간' 내지 '인간관계'가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인간 상호간의 관계는 여러 관점에서 관찰될 수 있다. 그 중의 하나가 橫的인 면에서의 感情的 親疏와 縱的인 면에서의 身分의 階層이다. 이들 兩者의 관계는 서로 兩面性을 띠고 있다. 그래서 親疎 親疎에 관계없이 종적 계층이 嚴正하게 된다. 그런데 종적인 계층이란 것은 사회적, 혈연적, 연령적인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것은 사회의 역사와 전통이 크게 지배하는 것이다.

언어의 본질은 전달에 있다. 언어가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에 의한 정체를 필연적인 전제로 한다. 결국 언어란 發話와 聽者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인간관계가 언어에 반영됨이 언어가 인간관계에 반영됨에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인간관계의 親疏와 階層이 언어에 반영되는 것이어서 이것이 곧 언어의 尊卑現象을 발생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親疏나 階層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언어에 투영되는 실체는 언어에 따라 다양하다. 尊卑는 상호간이 親疏나 階層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객관적, 필연적인 것이라기보다 주관적, 임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한 언어공동체에 있어서 그 言衆들 상호간에는 연령의 상하, 지위의 等差, 신분의 高低등이 있게 되는 것이다.

國語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연령의 상하관계, 신분의 고저 관계를 감안하여 話者는 언제나 尊卑意圖를 머금고 發話해야 할 뿐만 아니라 聽者의 發話上에는 언제나 그러한 관계가 두드러지게 표현되어 나타난다. 다시 말하여 국어의 모든 언어표현에는 연령의 상하, 본신의 고저 등에서 오는 상대적 대인관계가 反射되어 나타나는데 이러한 언어표현 일체를 포괄하여 여기서는 '尊待法'이라 하여 둔다. 존대법도 다른 문법 형태와 마찬가지로 시대가 바뀔에 따라 변천하며 지역을 달리함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한 방언의 존대법에 대한 연구는 세 가지 면에서 의의가 있다. 첫째는 존대법에 나타난 각 방언의 특징에 의해 方言 區劃을 設定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이고, 둘째는 방언의 존대법 연구가 국어 존대법의 본질 이해와 보다 완벽한 체계화에 도움을 주리라는 기대이며, 셋째는 한 방언의 대우법을 연구함으로써 그 지역 사람들의 사회적, 계층적 구조를 알 수 있으리라는 기대이다.

본 연구는 제주도 방언의 상대 존대법에 대한 고찰을 통해 그 특징을 밝혀내고, 둘째는 방언의 존대법 연구가 국어 존대법 체계화에 기여하고, 제주도의 지역 사회적, 계층적 구조를 밝히는 데 도움을 줄 것을 목적으로 한다.

濟州島 方言에 나타나는 존대법 형태는 첫째 語彙로서 體言으로 나타나는 경우, 둘째 用言 謙讓辭로 나타나는 경우, 셋째 活用語尾로 나타나는 경우 등이 있다. 여기서는 활용어미로써 표시되는 방언 존대법 체계에 한하여 고찰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여기서 실은 例文들은 필자가 직접 조사한 것과 참고문헌에서 발췌하여 기록한 것임을 밝혀둔다.

II. 본론

1. 濟州島 相對 尊待 等分體系의 기존 연구

相對 尊待法이란 話者가 相對者를 尊待하거나 下待하는 法을 일컫는다. 상대존대법은 달리 '공손법' '겸손법' '청자대우법' '청자 존대법' 등으로 불려왔으나 여기서는 '상대 존대법'으로 부르기로 한다. 이 상대 존대법은 話者가 특정한 終結語尾내지는 先語末語尾를 선택하여 씌으로써 이루어지고 종결어미는 그 높임의 정도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나누어진다. 그 예로써 여러 학자들의 제주도 방언의 등급구분 체계를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이승녕) (박용후)
극존칭: 尊息體 아 주 높 임: 尊息體
존 칭: 尊息體 예 사 높 임: 尊息體
중 칭: 尊여體 예 사 낮 음: 尊여體
평 칭: 尊라體 아주낮춤(반말): 尊라體

(현평효) (고창근)
尊待: 尊息體 격 식 체: 尊息體
平待: 尊여體 尊라體
下待: 尊라體 비격식체: 尊여體
尊여마음體

이와같이 이승녕(1957)은 제주도 방언 상대존대 등분을 평칭, 중칭, 존칭, 극존칭 등으로 4등분하면서, 극존칭일 경우는 아마도 표준어의 영향일 것으로 보고 있다. 박용후(1960)도 아주낮춤, 예사낮춤, 예사높임, 아주높임 등으로 4등분하면서 '반말'은 표준말과 다름 없으므로 생략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은 표준어의 등분 체계에 대입하려는 성격이 짙어서 방언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표1)

등분	서 술 형	의 문 형	청 유 형	명 령 형
尊息체 (尊待)	못자수다 가쿠다 흔네다 먹음네다 먹주마씀 쉬게마씀	감수다 가쿠다 갑네다 흔네까 먹언마씀	가게마씀 먹주마씀	갑서
尊여체 (平待)	가서 되거라 먹언게	먹음신고 갑서 오전가 왕시코 오카	먹주	먹음시라 갑서
尊라체 (下待)	감저 먹엄서 흔여라	땡검다 오크나 호생이가	글라 가주	흔라

(표2)

平稱	中稱	尊稱	極尊稱	受
(가자)	가자	갑주	가십주	(去)
(먹자)	먹주	먹음주	먹으십주	(食)
(받자)	받주	받음주	받으십주	(受)

현평효(1974)는 尊라체, 尊여체, 尊息체로 3등분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그 외에 홍종림(1975), 김미경(1987) 등이 현평효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 고창근(1993)은 '-마씀'이 尊여체와의 통합이 가능하다는 데 착안하여 尊여마씀체를 하나 더 두고 있으나 '尊여마씀'이 [+존대]의 實質을 갖고 있다면 굳이 尊息체와 분리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제주도 방언의 상대 존대의 등분을 분류함에 있어서 현평효의 尊待, 平待, 下待의 三項의 체계가 가장 보편적 分類체계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제주도 방언의 상대 존대 등분이 三項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기보다는 二項의 대립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봄이 더 타당하리라 본다.

본 항에서는 현평효 선생이 분류한 尊息체, 尊여체, 尊라체의 三項의 체계와 이승녕 선생이 분류한 바 있는 平稱, 中稱, 尊稱, 極尊稱의 4등분 체계에 대하여 논하면서 二項의 分類體系의 타당성에 대하여 밝혀 보고자 한다. 우선, 필자가 보고 있는 제주도 방언 존대 체계인 二項의 分類體系의 尊待(尊息체)와 非尊待(尊라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2. 濟州島 相對 尊待法의 等分

2.1. 尊待(尊息體)

尊息체는 '말듣는 이'에게 [+존대]의 實質을 부여하여 대우하는 말이다. 제주도 방언 尊息체의 상대 존대 형태소에는 '-우-', '-님-', '-마씀-'이 있다. 여기서는 그 쓰임을 살펴보기 위해 서법 서술형, 의문형, 청유형, 명령형 등으로 나누어 제주도 話者들이 대우하는 상황을 설정하여 살펴보기로 하였다.

2.1.1) 敘述形 尊待 語尾

- 1) 언치냐에 줌 못자수다. (어제 밤에 잠 못자셨습니다.)
- 2) 지비 가쿠다. (집에 가겠습니다.)
- 3) 철순 공부 잘 흔네다. (철순은 공부를 잘 합니다.)
- 4) 그 사람도 밥을 먹음니다. (그 사람도 밥을 먹습니다.)
- 5) 이거 먹주마씀. (이것을 먹으시

다.)
6) 이제랑 쉬게마씀. (이제는 쉽니다.)

이와같이 尊息체의 敘述形 相對 尊待 語尾로는 /-수다/, /-쿠다/, /-주마씀/, 등의 어미가 쓰이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2.1.2) 疑問形 尊待 語尾

- 7) 자인 어디 갑수까? (저 아이는 어디에 가고 있습니까?)
- 8) 지비 가쿠까? (집에 가겠습니까?)
- 9) 성님 어드레 갑데까? (형님은 어디에 갑습니까?)
- 10) 철순 공부 잘 흔네까? (철순은 공부 잘 합니까?)
- 11) 밥 먹언마씀? (진지 드셨습니까?)

이와 같이 尊息체의 의문형 상대 존대 어미로는 /-수과/, /-우과/, /-님

-서/, /-라/, /-ㄴ게/, /-저(찌)/ 등이 쓰인다. 다음 예문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 15) 그 사람 집에 가서. (그 사람은 집에 갔다.)
- 16) 올힌 농사 잘 되커라. (올해는 농사가 잘 되겠다.)
- 17) 그 아인 밥 하영 먹언게. (그 아이는 밥을 많이 먹더라)
- 18) 난 발디 갑저. (나는 발에 간다.)
- 19) 밥 나 먼저 먹엄서. (밥 나 먼저 먹는다.)
- 20) 그 사람 일 잘 흔여라. (그 사람 일을 잘 하더라.)

15)의 /-서/, 16)의 /-라/, 17)의 /-게/는 모두 상대 존대를 나타내는 /-마씀/, /-양/과 /-이/를 통합시킬 수 있는 형태소들으로써 모두 尊라체 서술형 어미에 속한다. 16) '되커라'에서 /-ㄱ-/은 추측, 의도, 가능의 형태소이고 /-(으)라/, /-(어)라/는 尊라체 서술형 어미이다.

17)의 /-어-/는 과거회상시제 선언 말 어미 /-더/이고 /-ㄴ게/는 서술형 종결형태소로 쓰였다. 즉, /-언게/, /-안게/는 회상 평서법 형태소로써 화자가 제2, 3인칭인 者의 행동을 보았거나 상태를 확인한 경험을 회상하여 청자에게 보고하는 형식의 종결 형태소이다. 예문 18), 19)는 /갑저/에서 /-m/, /먹엄서/에서 /-m/은 모두 화자의 현재진행을 나타내는 명사형 어미이며 /-저/와 /-서/는 尊라체와 서술형어미로 쓰인 것이다.

예문 20)은 화자가 주체의 동작에 대한 과거 경험을 회상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尊여라의 /-어-/는 /-더-/에 해당되는 회상법의 형태소이며 /-라/는 尊라체의 서술형 어미이다.

2.2.2) 尊라體의 疑問形 語尾

尊라체의 의문형 어미 형태소에는 /-고/, /-가/, /-서/, /-카/, /-코/, /-(리)다/, /-냐/ 등이 쓰인다.

尊라체의 의문형 어미 /-고/, /-서/, /-가/는 구체적인 청자가 성립되지 않는 단독적 장면에서 화자가 자신에게 의심과 의구를 제기해 보는 자문을 나타내는 데 쓰인다. 그럼 다음에서 /-고/, /-서/, /-가/ 등이 어떻게 발화되어 나타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 21) 자인 무사 안 먹음신고? (저 아이는 왜 안 먹고 있을까?)
- 22) 서울에 언제 갑서?(서울에 언제 가느냐?)
- 23) 저 사람도 널 오전가?(저 사람도 내일 올 건가?)

21)은 自問으로 쓰인 문장에서 /-ㄴ고/가 나타난 것이다. 22)는 話者가 가지고 있는 의문을 聽者에게 물어봄으로써 /-서/가 의문 종결 형태소로 나타난 것이며, 23)는 상대방의 추측 내지는 의도를 물어보고 있는 문장에서 /-ㄴ가/가 나타난 것이다.

- 24) 무사 안 왕시코?(왜 안오는 것일까?)
- 25) 오늘밤 비 오카?(오늘밤에 비 올 것인가?)

예문 24,25)에서 보듯이 尊라체 의문법 형태소 /-카/, /-코/의 樣相의 의미는 불확실한 사태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며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표현한다 하겠다.

/-카/, /-코/를 /-가/, /-고/와 대조해 보면 문말 억양의 차이와 주어의 인칭에 따라 미세한 의미상의 차이가 드러나는데 그것은 /-리/가 가진 [-決定性]이라는 의미 특성으로부터 여러가지 미세한 樣相의 의미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가/, /-코/가 나타날 수 있는 화절을 살펴 보면 모음이나 流音 '리'로 끝난 단어 다음에 나타난다.

- 26) 는 학교에 땡검다?(너는 학교에 다니느냐?)
- 27) 오늘 밤 비 오크나?(오늘 밤에 비 오겠느냐?)
- 28) 가인 호생인가?(그 아이는 학생인가?)

예문26)의 문장에서 /땡검다/는 화자

제14회 백록학술상 입상자 공고

우리신문사가 주최하는 올해 백록학술상 수상자가 아래와 같이 결정됐습니다. 올해는 당선작 없이 일반논문 부문 인문·사회 분야에서만 가작 두편을 내게 되었습니다.

1. 입 상 작

△ 일반논문부문 인문·사회 분야 가작

- 「제주도 방언의 상대존대법 연구-상대존대법 어미를 중심으로」(고맹훈=국어국문학과 4학년)
- 「현행 보호관찰제도의 운영실태와 그 발전방향」(강필성=법학과 3학년)

△ 일반논문부문 자연과학분야 = 입상작 없음

△ 주제논문부문 = 입상작 없음

2. 심사위원

고성준(국민윤리교육과 교수), 양경주(영어영문학과 교수)

김수길(법학과 교수), 김태곤(국어교육과 부교수)

윤석산(국어교육과 부교수), 허춘(국어국문학과 부교수)

제 대 신 문 사

심사평

체제·논리전개·진술비약등 문제 남의 논문을 많이 읽어야 극복 가능

이번 백록학술상 논문 공모에 인문·사회분야에서 다섯 편의 논문만이 응모하여 양적으로 적다는 느낌을 준다. 그나마 그 다섯 편의 논문도 질적인 면에서 높은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여 유감스럽게도 당선작은 내지 않기로 하고, 일정 수준에 이른 두 편만을 선정하여 가작을 주기로 하였다.

우리 심사위원들이 이번 논문심사에 서 느낀 점은, 전반적으로 논문작성자들이 다른 사람의 '논문을 잘' 읽지 않고 논문을 쓴다는 점이었다. 남의 논문을 읽는 가운데, 논문의 체제나 논리 전개법을 배울 수 있고, 주제나 내용에 대해서도 터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논문에서는 전반적으로 논문의 체제나 논리 전개가 잘 안 되어 있고 진술이 비약적인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각주나 참고문헌 등이 논문작성법에 맞지 않은 점이 지적되었다. 그밖에 각 논문의 평은 다음과 같다.

『現行 保護觀察制度的 運營實態와 그 發展方向』은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는 청소년 범죄의 예방이라는 문제와 再犯방지 위한 矯正處遇, 특히 現行 社會內處遇의 핵심인 保護觀察制을 다각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이 제도의 정착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그리고 논문이 창 의성이 있고 현실성이 있는 주제를 택하였다. 다만, 특정한 논문이나 자료에 의존한 바가 많고, 논리전개 기술이나 표현법이 다소 미흡한 점이 아쉽다.

『濟州島 方言의 相對尊待法 研究』는 제주도 방언의 상대존대법등분을 기존

의 연구자들이 3등분 또는 4등분으로 체계를 세운데 비하여 尊待와 非尊待라는 2등분 체계로 새롭게 고찰한 점과 많은 자료를 예로 들어 논리전개를 한 점이 평가된다. 그러나 충분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과 논문 후반부에서의 모호한 서술이 문제된다. 『한국 대중문화의 성장과정과 그 사회·매체적 성격에 관한 연구』는 대중·상업문화의 한 장르로 자리잡고 있는 대중문화를 사회과학적으로 접근하여, 형성과정과 상업주의적 성격을 분석해 보려는 것은 좋은 시도이다. 그러나 너무 큰 주제를 택하여 그것을 모두 소화해 내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쉽다. 또한 제목을 논문구성이 떠받쳐 주지 못하고 있다.

『1980년대 詩研究』는 1980년대 詩의 전개 양상을 다룬 논문으로 당대의 시문학을 분석 평가하려는 노력은 높이 살 만하다. 그러나 분석 대상이 주관적으로 선정하고, 구체적 분석이 없으며, 주관적으로 주제분석에 치우쳤다는 것이 약점이다.

『補閑集 研究』는 그간 소홀히 다루었던 최자의 보한집을 대상으로, 그의 문학관을 고찰하려고 한 의도와 논리의 정리는 적절하다고 본다. 그러나 논문의 생생한 참신성이 부족하다.

우리 심사위원들은 이 가운데 논문의 독창성과 체제 등을 고려하여, 『現行 保護觀察制度的 運營實態와 그 發展方向』과 『濟州島 方言의 相對尊待法 研究』를 가작으로 선정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심사위원일동〉

가 주체의 동작에 대한 현재진행형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m/은 주체의 현재진행 동작을 나타내는 명사형 어미이며 이것을 분석하노라면 의문법 어미 /-다/가 남는다. 또한 예문 27)의 /오크나/는 어간 /오/와 추측, 의도, 가능의 형태소 /-ㄱ-/을 분석하고 나면 의문법 어미 /-냐/가 남는다. 28)은 화자가 가지고 있는 의문을 청자에게 물어 봄으로써 /-가/가 의문 종결 형태소로 나타난 것이다.

이와 같이 분석해본 바에 의하여 尊라체와 의문법 어미 형태소로는 /-고/, /-가/, /-서/, /-카/, /-코/, /-(리)다/, /-냐/ 등이 쓰임을 살필 수 있다.

2.2.3) 尊라體의 請誘形 語尾

尊라체의 請誘形 語尾 形態素에는 /-주/, /-라/ 등이 쓰이고 있음을 다음 예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 29) ①가인 아무거나 잘 먹주.-서술형(그 아이는 아무거나 잘 먹는다.)
- ②가인 아무거나 잘 먹주?-의문형(그 아이는 아무거나 잘 먹느냐?)
- ③아무거나 먹주.-청유형(아무거나 먹자.)

위 예문에서와 같이 /-주/는 尊라체의 종결 형태소로써 尊라체 서술, 의문, 청유형에 두루 쓰일뿐만 아니라 예문 23. ④)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접속 형태소의 기능까지 한다.

30) 우리 혼디 글라.(우리 같이 가자.)
31) 이젤랑 집에 가주.(이제는 집에 가자.)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 31)은 청유문이다. 다시 말하여 30)의 語尾 /-라/와 31)의 語尾 /-주/가 語幹 /글-/ /가-/에 각각 연결되어 청유형 문장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라/와 /-주/는 尊라체 청유형 어미로 모두 어간에 직접 붙는 것이 특징이다.

2.2.4) 尊라體의 命令形 語尾

尊라체의 命令形 語尾 形態素에는 /-시라/, /-서/, /-라/ 등이 쓰인다.

〈15면에 계속〉

□ 제14회 백록학술상 일반논문부문 가작

〈14면에서 이어짐〉

32) 늘랴 밤 먹여시라.(너는 밤을 먹고 있는.)
33) '느 먼저 감서.(너 먼저 가고 있어라.)
34) 늘랴 혼자 공부하라.(너는 빨리 공부하여라.)

예문 32)~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라체의 명령형 어미 형태소로 /-시라/, /-서/, /-라/ 등이 쓰인다.

이상 2. 1. 1~4)까지 요약해 보면 [-존대]의 實質을 부여하여 발화하는 한라체의 서술형 어미 형태소는 /-서/, /-라/, /-나/에, /-지(제)/ 등의 어미가 쓰이고, 의문형 어미에는 /-고/, /-가/, /-서/, /-카/, /-코/, /-르/)다/, /-나/ 등이 쓰이며, 청유형 어미에는 /-주/, /-라/ 등이 쓰이며, 명령형 어미 형태소 /-시라/, /-서/, /-라/ 등의 종결어미 형태소가 쓰임을 알 수 있다.

이제까지 제주도 방언의 존대체계를 [-존대]의 자질을 부여하여 발화하는 한라체와 [-존대]의 자질을 부여하여 발화하는 한라체로 나누어 서법(서술형, 의문형, 청유형, 명령형)에 따른 종결어미 형태소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 보았다.

그럼, 여기에서 현령호 선생이 尊待, 平待, 下待의 三項의 체계로 等分한 한라체, 한라체, 한라체에 따라 앞에서 살펴본 예문 1~34)까지의 語彙들을 때어 내어 서법에 대입시켜 봄으로써 한라체 등분법을 더 나눌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 보는 동시에 二項의 分類體系의 타당성에 대하여 論證해 나가기로 하겠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라체는 相對者에게 [+존대]의 實質을 賦與하고자 發話했던 것이라 볼 수 있는데 한라체와 한라체는 [-존대]의 자질을 부여하고서 발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현령호 선생은 [+존대]의 자질을 부여하고 발화하는 것으로 平待(한라체)등급을 더 두면서 三項의 체계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령호 선생의 삼등분 체계는 표준어 등분체계에 대입하려는 성격이 짙다.

현대 표준어 등분 체계를 살펴보면, 해라체, 해체(반말체), 하라체, 하오체, 해요체, 합쇼체 여섯 등급으로 나뉘는 데, 해라체는 청자를 가장 낮추어 발화하는 것으로 연하의 사람이나 가까운 친구 사이에 널리 쓰이며, 해체(반말체)는 해라체보다는 상대방에 대하여 덜 권위적이고 또는 친밀도가 덜하며 그만큼 상대방을 더 어려워하는 말투다. 그리고 하라체는 아랫사람이나 친구에게 쓰며 해라체나 반말체보다는 그 사람을 얼마만큼 높여 대접하는 경우에 쓰이며 하오체는 아랫 사람이나 친구를 하라체보다 더 극진히 높여 대접하는 경우에 쓰이며 합쇼체는 상대방을 가장 높여 대접하는 경우에 쓰인다. 이렇게 표준어 등분체계를 여섯등급으로 나누어 보면 현령호선생은 해라체와 해체는 한라체

에, 하라체와 하오체는 한라체에, 해요체와 합쇼체는 한라체에 각각 대응시켜 놓은 느낌이 든다. 왜냐하면 첫째,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라체와 한라체는 어느 體가 더 [+존대]의 뜻이 포함되어 발화하고 있는지 구별하기 힘들다. 둘째, 한라체와 한라체의 종결 어미 구성 자체가 일정하게 나타나지는 것이 아니라 한라체의 종결 어미로 취급했던 것이 한라체로, 한라체의 종결어미로 쓰였던 것이 한라체로 서로 넘나드는 경우가 흔하게 나타난다. 셋째, 특히 제주 방언에서의 한라체로의 명령형, 청유형은 한라체의 명령형, 청유형과 구별이 더욱 안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제주도 방언의 한라체와 한라체를 同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즉, 제주도 방언의 존대 체계는 [+존대]의 자질을 띤 한라체와 [-존대]의 자질을 띤 한라체의 二項의 對立體系로 보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승녕은 제주도 방언의 尊待 체계를 平稱, 中稱, 尊稱, 極尊稱 등으로 4 등분 체계로 나눈 바 있는데 여기에서 일반형 예를 들어보면 (표2)와 같다.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平稱에서 (표1)부분은 中稱인 /가주/, /먹주/, /반주/를 표준어로 고쳐 놓은 것에 불과한 듯이 보인다. 실제로 (표1)부분은 제주도 토박이 화자들 사이에서는 그리 사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極尊稱 /가십주/, /먹십주/, /반십주/에서 /-시-/-를 넣어 尊稱의향을 나타내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으며, 이승녕은 極尊稱에서 /-시-/-가 插入된 것은 표준어의 영향으로 생겨났다고 보고 있다. 다음으로 몇가지 예를 더 살펴 보기로 하자.(이하 이승녕 선생이 나눈 4등분 체계에서 한라체체는 생략하기로 하겠다.)

(표3)의 中稱에서 어간에 종결 어미 /-십/이 붙는 경우는 제주도 화자들간의 정상적인 대화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이같은 경우는 다음 몇 가지 상황에서 보편적으로 발화되어 나타난다. 첫째, 화자들간의 어떤 논쟁에서 화자가 실제로는 마음 내키지 않으면서 청자로 하여금 마음대로 하라는 하라의 경우, 둘째, 진지한 대화가 되지 못하는 농담조와, 대화에서 발화되는 경우, 셋째, '재촉'의 의미로 발화되는 '경우에' 사용되는 종결어미인 平稱보다 상대자에 대해 격식내지는 존대의 의향을 발화된 것이 아니다. 中稱 관호 안의 단어들은 또한 平稱만에 있는 단어들보다 더 존대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보기 힘들다.

(표4)에서 平稱에 포함되어 있는 /-키여/와 中稱에 포함되어 있는 /-커라/ 間에 존대의 차이를 찾기는 지극히 어렵다. 즉 화자가 상대자에게 격식을 차리거나 조금은 존대의 의향을 머금고 발화하려 할 때에 어떻게 中稱을 선택하여 발화했는지는 이렇다.

이렇게 종합해볼 때에 필자는 제주도

방언의 존대 체계를 [+존대]의 자질을 띤 한라체와 [-존대]의 자질을 띤 한라체의 二項의 對立體系로 나누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 이것을 도표로 그려 요약 정리하면 (표5)와 같다.

끝으로 정인승(1972)은 표준어의 존대 체계를 높임과 낮춤으로 이분한 바 있고 김택(1981)도 단순히 평대와 존대로 양분하고 있음을 밝혀 둔다.

3. 相對尊待의 /-우-/-

제주도 방언 言來들 간의 대화에서는 /-수-/, /-쿠-/, /-우-/-등의 先語末語尾들이 아주 흔하게 쓰인다. 이 先語末語尾들은 신분이 낮거나 연령이 적은 화자가 그렇지 않은 相對者에게 혹은 서로 비슷한 연령끼리의 그다지 친근하지 아니하면서도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할 두 사람의 대화에서 쌍방간의 尊待를 표시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先語末語尾이다. 그럼 우선 다음에서 제주도 방언 언중들 사이의 대화에서 자주 발화되는 先語末語尾 /-수-/-의 쓰임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자.

35) 그 사람 밥 먹었수다.(그 사람 밥 먹고 있습니다.)
36) 난 밭 일 할래 감수다.(나는 밭에 일하러 가고 있습니다.)
37) 자의 지붕 우의 올랐수다.(저 아이 지붕 위에 올랐습니다.)
38) 아이 빙 다 좋았수다.(아이는 빙다 나았습니다.)

위 예문에서와 같이 動作上 形態素 /-암-/, /-았-/- 다음에 先語末語尾 /-수-/-가 흔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39) 난 지붕서 밥 먹쿠다.(나는 집에서 밥 먹었습니다.)
40) 낱랑 육지장 살쿠다.(저는 육지에 가서 살았습니다.)
41) 이방 가쿠다.(조금 후에 가겠습니다.)
42) 이르후제 무시거 허쿠가?(앞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위 예문은 제주도 화자들에 의해서 발화되는 /-쿠-/-가 나타나는 문장들이다. 위 문장에서 /-쿠-/-는 주로 意圖, 推測, 可能을 지시하고 있음을 대략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상대존대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는 /-수-/, /-쿠-/-에 있음은 앞에서 밝힌 바 있었다.

그럼 여기에서 /-수-/, /-쿠-/-의 쓰임이 과연 단일 형태로 쓰였는가? 아니면 /-수-/-과 /-우-/-, /-쿠-/-과 /-우-/-로 각각 분석해 낼 수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 보자.

43) ①삼춘, 어디 감수광?(삼춘, 어디에 가십니까?)
②밭터래 감췌.(밭에 간다.)

위 예문에서 (43. a)는 年下者가 年上者에게 尊待할 의향으로 [+존대]의 實質을 부여해서 질문 내지는 인사하는

發話이고 (43.b)는 年上者가 年下者(43. a)에게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하는 문장이다. 여기서는 [+존대]의 자질을 띤 (43.a)의 敘述語를 분석해 내어 상대존대의 형태소가 어떤 것인지 알아 보자.

(43. a)의 서술어/감수광/에서 그 용언의 어미 /-광/은 疑問形 語尾 /-가/의 異形態이다. 제주 방언의 종결어미 /-광/, /-과/, /-과/ 등은 제주도 화자들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발화되는 疑問形 語尾 /-가/의 異形態로 볼 수 있다. 이 疑問形 語尾 /-과/를 분석하고 나면 用言의 /가-와 先語末語尾로 /-암수-/-가 남게 된다. 다시 先語末語尾 /-암수-/-를 분석하여 보면 /-아-는 副動詞(副動詞)에서 온 것으로 方言 文法 形態上에서 볼 적에는 오

平 稱	中 稱	尊 稱	뜻
마르라	마르심(졸아)	마르서	(言)
가라	가심(가)	갑췌	(去)
반으라	반으심(반아)	반음췌	(受)
걸라	걸으심(걸어)	걸음췌	(步)
더프라	더프심(더퍼)	더प्췌	(履)

平 稱	中 稱	尊 稱	뜻
허키여	허커라	허쿠다	(爲)
가키여	가커라	가쿠다	(去)
마르키여	마르커라	마르쿠다	(言)
먹으키여	먹으커라	먹으쿠다(먹쿠다)	(食)

서법	서술형 어미	의문형 어미	청유형 어미	명령형 어미
자질	/-수다/	/-수과/	/-게마슴/	/-비서/
[+존대]	/-쿠다/	/-쿠다/	/-주마슴/	
	/-비데다/	/-마슴/		
	/-비데다/	/-비데다/		
[-존대]	/-서/	/-고/	/-가/	
	/-라/	/-서/	/-가/	
	/-나/	/-코/		
	/-제(제)/	/-르(르)다/		
		/-나/		

분석기준	용 언	존재, 존속 형태소	상대존대선어말어미	종결어미
종류				
방언	/가(아)-/	/-수-/-	/-우-/-	/-다/
가(아)수다				
표준어	/가(아)-/	/-있-/-	/-습니-/-	/-다/
가(아)있습니다				

늘날 뒤에 連接되는 語尾와 형식상 結合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만 그 의의는 '先行動作' 혹은 '行動作의 完'를 표시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여기에서 先語末語尾 /-아-/-를 분석해 내면 /-m수-/-가 남게 되는데 /-m수-/-는 다시 명사형어미 /-m(ㅁ)/-과 선어말어미 /-수-/-로 분석된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수-/-가 과연 單一形態素로 쓰인 것인지 아니면 /-우-/-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인가이다. 이 /-수-/-의 분석가능 여부를 알아보기 위

하여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44) ①저기 이상건 뭐우과?(저기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②책상이우다.(책상입니다.)

위의 대화는 相對者들이 그다지 친근하지 아니하면서도 서로 예의를 지켜야 되는 상황으로 서로 [+존대]의 자질을 부여하며 발화하고 있다.

앞에서 분석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敘述語 /뭐우과/를 분석하면, /-과/는 疑問形 語尾 /-가/의 異形態로 분석해 낼 수 있다. /뭐우과/에서 /뭐우-/만이 남게 되는데 다시 /뭐우-/-를 분석하면 /뭐-/는 疑問 代名詞로써 분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先語末語尾로써 /-우-/-만이 남게 된다. 44.a)의 화자가 44.b)

해당되는 방언의 語尾를 /-어-/로 보기 때문이다. 한 예를 더 들어보자.

46) ①가인 밥 먹어나?(그 아이는 밥을 먹었나?)
②예, 먹음다.(예, 먹었습니다.)

위의 예문 46.a)와 46.b)의 대화에서 (46.a)의 서술어 /'먹어나/를 표준어로 고치면 '먹다'로써 현대 국어문법에서 回想法의 形態素 /-더-/가 쓰이고 있다. /'먹어나/에서 /-나/를 의문법어미로써 제외하고 나면 표준어 /-더-/와 대응되는 선어말어미 /-어-/뿐이다. 즉 /'먹어나/에서 /-어-/는 回想法 선어말 語尾로 규정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45.a)의 서술어 '입어서'에서 /-서-/-는 /-수-/-과 回想法 先語末語尾 /-어-/로 분석 가능한 것이 분명해진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수-/-은 어떤 意義 機能을 하고 있는 것일까?가 다시 문제된다. 다음에서 살펴 보기로 하자.

47) ①철춘, 어디 가시냐?(철춘은 어디에 가 있느냐?)
②학교에 가수다.(학교에 가 있습니다.)

위의 예문 47. b)의 서술어 '가아수다'를 표준어로 옮겨 놓는다면 '가아' 있습니다로 된다. '가아수다'에서 終結語尾인 /-다/를 분석하여 제외하고 나면 /가아수-/-가 되고 다시 이를 표준어로 옮겨 놓으면 /가아있습-/이 된다. /가아수-/-에서 用言인 /가아-/-를 분석 제외하면 /-수-/만이 남게 되고 이것을 표준어로 옮겨 놓으면 /-있습-/이 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수-/-는 /-수-/-과 상대존대 先語末語尾 /-우-/-로 분석 가능하다. 제주 방언의 相對尊待 先語末語尾인 /-우-/-를 제외하고 나면 /-수-/-만이 남게 되는데 이것을 표준어로 옮겨 놓으면 /-있-/이 된다. /-있-/이 '存在, 存續'을 의미하는 형태로 본다면 /-수-/- 또한 동일한 의미 기능을 가진 형태로 볼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요약하여 도표로 나타내면 (표6)과 같다.

48) ①언제 비 오쿠가?(언제 비가 오겠습니까?)
②내일 비 오키여.(내일 비 오겠다.)

예문 48.a)와 48.b)의 대화는 年下者 48.a)가 年上者 48.b)에게 존대할 의향으로 [+존대]의 實質을 부여함으로써 원활한 대화가 성립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48. a)의 서술어/오쿠가/에서 [+존대]의 實質을 부여하게 된 語尾는 어느 것일까가 문제되는데 이것을 찾기 위하여 선어말어미 /-수-/-를 분석하였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예문 48. a)와 48. b)의 서술어/오쿠가/오키여/를 분석하여 보자.

먼저 48. a)의 서술어/오쿠가/를 분석하면, 우선 /-가/를 疑問形 語尾로 분석 제외하면 /오쿠-/만이 남는다. 다시 용언 /오-/를 분석 제외하면 /-쿠-/-만이 남게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이 先語末語尾 /-쿠-/-이다. 즉, /-쿠-/-를 單一形態素 보느냐 아니면 /-쿠-/과 /-우-/-의 複合形態素 보느냐 하는 것이다. 이미 앞에서 先語末語尾 /-수-/-가 /-수-/-과 /-우-/-로 분석한 바 있고 다시 여기에서 분석된 /-우-/-는 相對尊待 先語末語尾라는 것은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쿠-/-도 역시 /-쿠-/과 /-우-/-의 複合形態素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쿠-/과 /-우-/-에서 /-우-/-가 상대존대 선어말어미라면 /-쿠-/-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 문제된다. 우선 예문 48. b)의 서술어 /오키여/를 분석하면 /오-/-라는 用言으로써 분석 제외하게 되고 남는 것은 /-키여/가 되는데 다시 /-여-/는 긍정적 단정을 표시하는 平敘形 終結語尾로 분석 제외된다. 결국 /-키-/만이 남게 되는데 /-키-/가 바로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서법에서는 이를 意圖法 形態素라고 한다.

그런데 /오키여/를 /오커/로 축약시켜 같은 것으로 본다면 /오키여/와 /오커/에서 각각 敘述形 終結語尾 /-여-/를 분석하여 제외하고 용언 /오-/를 각각 분석 제외하면 /-키-/와 /-우-/-이 남게 된다. 그러므로 /오키여/의 /-키-/와 /오커/의 /-우-/-은 동일한 의미로써 볼 수 있게 된다. 즉 /-우-/- 또한 /-키-/와 마찬가지로 話者의 의도를 나타내는 意圖法 形態素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48. a)의 서술어 /오쿠가/는 用言 /오-/, 意圖法 形態素 /-쿠-/-, 相對尊待 先語末語尾 /-우-/-, 疑問形

〈16면에 계속〉

임상소감

동아리활동 계기로 논문 써

청소년문제 제도적 보완 힘어야



백록학술상에 응모하였던 글이 좋은 결과로써 방학생활 중에 있는 나를 기쁘게 해 주었다.

사실 '보호관찰제도'를 쓰게 된 것은 '한길사탐'이란 동아리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해서 '보호관찰'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동아리에서는 비행청소년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여러 활동을 통해 그들을 선도·지도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 '보호관찰'이란 글을 통해서 청소년들과 만나게 된다. 비행청소년들과의 만남속에서 누구든지 청소년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하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청소년문제에 대한 관

심 이 동안에 결코 적은 것은 아니었으며, 수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엄청난 수고와 맘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남아 있음을 볼 때,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단순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등한시해서도 아니 될, 우리사회 전체의 당면문제이다. 이 글을 준비하면서 우리시대 청소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청소년문제를 접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애로사항을 조금은 알게 되었다. 또한 우리나에서 청소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보호관찰제도'를 여러 자료를 통하여 보다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이러한 보호관찰제도에 대해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는데, 내 글이 과연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표현되었을까? 하고 자문해 보면 부끄럽기까지 하다.

이러한 나의 글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여대졌 도와준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자 한다.

〈강필성〉

방언 보전은 우리의 책무

조사·연구작업 서둘러야



나에게는 지극히 소중한 분이 계셨었다. 물론 지금은 먼 곳에 계시지만 나에게 꿈을 심어주었던 할머니 나의 할머니다.

할머니께서는 언제나 구수한 말로 나를 가르치시곤 하셨었다. 지금은 많이 잊혀져 버린 언어들이지만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말들이었다. 할머니의 말씀에는 무언지 모를 힘이 서려 있었고 아름다운 생활풍습이 녹아 있었다. 아마도 내가 이만큼이나나 장성하게 된 것도 할머니의 덕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기에 나는 더욱더 제주방언에 집착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물론 이러한 방언 연구가 하나의 감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방언연구가 언어학의 일부본으로 일반적 언 어학 이론을 완전히 터득한 연구에야 비로소 방언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이

다. 그래서 여기에 실린 나의 논문 또한 매우 미비하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안다. 사실 여러 심사위원선생님들의 넓은 아량(?)이 없었들 이 지면을 차지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흔히 '百聞이 一見'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로 해석이 된다. 즉 이것은 한문의 문장을 우리말로 풀이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다. 제주 방언중에도 이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귀소문 까랑 눈소문 한라'라는 말이 있다. '귀'와 '눈'이라는 실질적인 명사를 빌려 나타내고 있어 말의 의미를 쉽게 새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어휘로 우리 가슴속에 질실히 다가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소수만이 간직하고 있는 토속적이고 향토적인 언어들은, 늘 시대에 맞추어 빠르게 대처하는 도시 산업화 문화에 의해 밀려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남아있는 어휘들을 보존하는 것 또한 우리들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글을 발표할 기회를 준 여러 심사위원 선생님들과 이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여러가지로 도와준 후배 경호와 별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고맹훈〉

□ 제14회 백록학술상 일반논문부문 가작

〈15면에서 이어짐〉

語尾 /-가-/로 분석 가능하다.

이상 요약정리하면 先語末語尾 /-수-/는 존재, 존속을 의미하는 形態素 /-스-/과 相對尊待 先語末語尾 /-우-/로 분석 가능하고, 선어말어미 /-쿠-/는 추측, 의도, 가능한 形態素 /-크-/과 상대존대 선어말어미 /-우-/로 분석된다. 즉 /-우-/는 제주 방언에서 相對尊待를 尊待하는 形態素인 相對尊待法의 形態素인 것이다.

4. 相對尊待의 /-우-/

제주 방언의 發話에서는 다음과 같은 語尾 形態가 言述되는 것을 흔히 들을 수 있다.

- 49) ㉠거기서 무심거 흠데가?(거기에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응, 일 했었져.(응, 일 하였다.)

49. a)와 49. b)의 대화는 年下者 對 年上者 혹은 上位者 對 下位者 간의 존대 의향을 가진 話者와 그렇지 않은 응답자의 문답이다. 그래서 49. a)의 서술어/흠데가/는 年下者, 下位者 혹은 相對者에게 존대 의향을 가진 화자가 과거에 있어서의 주체의 동작에 대하여 상대자에게 회상시켜 질문하는 것이고, 49. b)의 서술어/했었져/는 年上者, 上位者 혹은 相對者에게 존대 의향을 갖지 않은 응답자가 주체의 동작에 대하여 과거 경험했던 바를 회상하여 대답하는 것이다.

그럼, 여기에서 49. a)의 서술어/흠데가/를 분석하고 각각 그 意義 機能을 밝혀 보자. 예문 49. a)는 話者가 청자에게 질문하는 發話이므로 /흠데가/의 어말어미 /-가/가 疑問法 語尾임은 두 말할 것 없다. 이 어말어미 바로 앞에 분포되어 있는 /-데-/는 回想法 形態素 /-더-/의 異形態이다. 이렇게 분석 제외하면 /-우-/만이 남게 된다.

그럼, 다음에서 이 /-우-/이 오늘날 方言에서 어떤 意義 機能의 形態인가를 보기로 한다.

- 50) ㉠넌 다시 읊네까?(넌일 다시 읊니까?)
㉡예, 오라 뵈서.(예, 와 보십시오.)

위 예문 50. a)와 50. b)의 대화의 장면은 앞의 예문 49. a)와 49. b)의 대화의 장면과는 다르다. 즉, 年下者 對 年上者나 下位者 對 上位者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동년배이거나 그다지 친근감을 갖지 않는 화자들 혹은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서 서로 상대자에게 존대 의향을 가진 話者들 간의 대화이다. 이와같이 對話者 相互間에 서로 상대자에게 [+존대]를 부여하여 발화하고 있는데, 이 문답의 대화에서 상대자에게 존대를 표시하는 先語末語尾는 어느 것인지를 문제된다. 이것을 찾아내기 위하여 50. a)의 서술어/읊네까/와 50. b)의 서술어/뵈서/를 각각 분석하여 보기로 하자. 우선, 50. a)의 서술어/읊네까/에서 어말어미/-까/는 의문법 어미로 분석 제외

되고, /-네-/는 현대 국어문법에서 直說法의 어미로 분석 제외되고 나면, /을-/이 남는다. 다시 用言의 語幹 /오-/를 분석하면 남는 것은 /-우-/뿐이다. 그러므로 [+존대]의 實質을 가지고 있는 50. a)의 서술어/읊네까/에서 상대자에게 존대를 표시하는 形態素는 /-우-/으로 보아 무방하다. 그리고 50. b)의 예문은 相對者를 尊待할 의향을 가진 話者가 그 相對者에게 명령하는 發話이다. 이 50. b)의 서술어/뵈서/를 분석하면 /-서/는 명령법 어미로 분석 제외되고 語幹/보-/를 제외하고 나면 /-우-/만이 남게 되는데 이 /-우-/ 역시 상대자에게 존대를 표시하는 形態素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49. a)의 서술어/흠데가/, 50. a)의/읊네까/, 50. b)

51. a)의 發話에 대한 대답으로 年下者 51. b)가 [+존대]의 實質을 부여하여 대답함으로써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51. b)의 서술어/했었져/에서 /-마씀/을 제외한 /했었져/는 [-존대]의 實質을 띠는 것은 앞에서 규명한 바 있었다. 따라서 /했었져마씀/에서 /-마씀/이 [+존대]의 實質을 부여하여 존대표시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규명되어진 셈이다. 다시 말하여, 화자가 상대자에게 [+존대]의 자질을 부여하는 경우 제주 방언에서는 그 言流하는 語詞에 /-마씀, -마썰, -마슴, -마심/ 등을 첨부시켜 상대자를 존대하게 된다. 따라서 제주 방언에서는 이 /-마씀/도 상대자를 존대하는 기능을 지닌 相對尊待 形態素라 하게 된다.

이상에서 제주 방언에서의 相對尊待

체는 亨여체에, 해요체와 합쇼체는 흡서체에 대응시켜 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승영은 제주도 방언 존대 체계를 平稱, 中稱, 尊稱, 極尊稱 4등분 체계로 나누고 있는데, 極尊稱에서 /-시-/가 삽입된 것은 현대에 오면서 표준어 침투 영향으로 보고 있으므로 극존칭은 따로 떼어 놓아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앞에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平稱, 中稱은 서로 존대의 차이가 지극히 미약하여 차라리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리라 본다. 실제로 제주 화자들이 發話할 때에 亨라체(平稱), 亨여체(中稱)를 구분해서 發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亨여체와 亨라체의 終結 語尾 形態素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



◇ 지금까지는 제주도방언의 분류체계를 亨라체, 亨여체, 흡서체로 3등분하여 3항적 대립체계로 보아왔다. 그러나 언중들의 발화와 여러 자료를 통해 고찰한 결과 흡서체는 [+존대]의 자질을 갖고 있음이 명백하게 드러나지만 亨여체와 亨라체는 어느 체가 더 [+존대]의 자질을 머금고 발화되는 것인지 구별이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필자는 제주도방언의 존대체계를 [+존대]의 자질을 띤 흡서체와 [-존대]의 자질을 띤 亨라체의 2항적 대립체계로 보는 것이다.

(사진:『한농 흥정표선생사진집』에서)

의 /뵈서/는 대화자 서로가 상대자에게 [+존대]의 實質을 부여한 결과 그 發話의 서술어에 /-우-/을 선택 삽입시킴으로써 상대자에게 존대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는 오늘날 제주 방언의 發話에서 相對者를 尊待하는 相對法 形態素임이 명백해진다.

5. 相對尊待의 /-마씀/

제주 방언의 話者들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語尾 形態가 言述되어지는 것을 흔히 들을 수 있다.

- 51) ㉠이것 느 했었져.(이것은 너가 하였다.)
㉡그거 나 했었져마씀?(그것을 내가 했던 말입니까?)

위 예문 51. b)의 서술어/했었져마씀

/은 定動詞 語末語尾에 /-마씀/이添附되어 있다. 이 어말어미에 /-마씀/이첨부되어서 형성된 語尾는 어떤 意義 機能을 갖는지 살펴보자.

위 예문의 대화는 年上者 51. a)에 法의 形態들에 대하여 究明하여 왔다. 이 相對尊待法은 話者가 相對者를 자기 자신과 대비하여 그 상대자에게 어떤 신분성을 매기고서 그 신분성에 따르는 實質을 부여함으로써 [+존대] 혹은 [-존대]를 하게 되는데, [+존대]를 할 경우에는 존대를 표시하는 形態素 /-우-/ /-우-/ /-우-/ /-마씀/ 등을 선택 接尾시키게 되는 것이다.

Ⅲ. 結論

이제까지 현명호 선생은 제주도 방언 존대 체계를 亨라체(下待), 亨여체(平待), 흡서체(尊待)로 三等分하여 三項的

對立 體系로 보아왔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흡서체는 [+존대]의 자질을 갖고 있음이 명백하게 드러나지만 亨여체와 亨라체는 어느 체가 더 [+존대]의 자질을 머금고 發話되는 것인지 구별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때에 현명호 선생이 나눈 바 있는 三項的 체계는 표준어 등분 체계에 끼워 맞춘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즉 亨라체와 亨여체는 亨라체, 하계체와 하오. 그러므로 필자는 제주도 방언의 존대 체계를 [+존대]의 자질을 띤 흡서체와 [-존대]의 자질을 띤 亨라체의 二項的 對立 體系로 보는 것이다.

한편, 오늘날 제주도 방언에서의 相對尊待의 形態素로서는 /-우-/ /-우-/ /-우-/ /-마씀/ 등 세 가지가 있다. /-우-/와 /-우-/는 동일한 相對尊待法의 形態素이지만 그 배열 순위가 전혀 다르다. /-우-/는 語末語尾의 바로 직전

제15회 백록문학상 현상공모

- 분 야
- 시 : 5원이상
 - 단편소설 : 70매 내외
 - 문학평론 : 50매 내외
- 시 상
- 시 : 당선작 1편 40만원
 - 단편소설 : 당선작 1편 50만원
 - 문학평론 : 당선작 1편 50만원
- 응모마감 : 1995년 5월 20일
- 제 출 처 : 대학원동(구 학생회관)3층 본사 편집국
(동기우편인 경우에는 '백록문학상응모작품'임을 명기할 것)
- 응모자격 : 우리 대학교 재학생
- 당선작 발표 : 『제대신문』 개교기념 특집호에 발표

제15회 백록학술상 현상공모

- 분 야
- 주제논문(70매 내외)
 - 제주도의 사회변동 및 개발에 관한 내용
 - 일반논문(70매 내외)
 - 인문사회, 자연과학분야
- 시 상
- 주제논문 : 당선작 1편 - 50만원
 - 일반논문 : 당선작 각 1편 - 50만원
- 응 모 마 감 : 11월 20일
- 제 출 처 : 대학원동(구 학생회관)3층 본사 편집국
(동기우편인 경우에는 '백록학술상응모작품'임을 명기할 것)
- 응 모 자 격 : 우리대학교 재학생
- 당선작발표 : 추후 공고
- 기 타 :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음
- ※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 바람 (254-2278, 2279)

제 대 신 문 사

에 연결되고, /-우-/는 語幹이나 動作 上 形態素, 또는 主體尊待의 形態素라고 하는 /-시-/ 다음에 연결된다. 그리고 또 先語末語尾 /-우-/는 平較法과 疑問法에서만 나타나지만 /-우-/는 平較法, 疑問法, 命令法, 請誦法 등에 두루 나타난다. 또한 /-마씀/은 體言에 또는 定動詞나, 形容詞의 尊待法에서, [-존대]의 實質을 가지고 있는 어미 뒤에 첨부되어서 상대자를 존대하는 형태로 사용되고, 때에 따라서는 副動詞語尾, 副詞, 體言, 格語尾에 첨부되어서 상대자를 존대하는 형태로 言述되기도 한다. 이상과 같이 세가지 尊待 形態素 /-우-/ /-우-/ /-우-/ /-마씀/들은 원래 그 意義 機能을 달리하는 것이었고, 또한 이 세 形態素가 相對 尊待法을 지시하게 되기 전까지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것이었는데, 근대어, 현대어로 내려오면서 尊待法의 추세가 相對者를 尊待하는 경향으로 발달됨에 따라 /-우-/위에 /-우-/을, /-우-/위에 /-마씀/을 겹쳐 씌으로써 二重, 三重으로 상대자를 존대하는 形態로 오늘날의 方言 尊待法의 體系로 나타난 것이라 생각된다. 위에서 究明하여 온 바와 같이 제주

방언에서 상대존대를 표시하는 형태소는 /-우-/ /-우-/ /-우-/ /-마씀/ 세 가지인데, 이것은 삼원적인 계열의 형태소를 구성시키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에 반하여 主體尊待法을 표시하는 /-시-/가 아직까지 노년층의 話者들에게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제주 방언의 尊待法 體系에서 지리한 점의 한가지라 할 수 없다. 또한 客體尊待法을 표시하는 謙讓語도 다른 지방의 方言의 것과 별다른 차이 없이 발달을 보고 있으면서, 主體 尊待法을 표시하는 形態만이 아직까지도 확정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은 한국어와 같이 尊待法 現象이 두드러진 언어에 있어서는 奇異한 象마저 주는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濟州島의 上古代로부터의 사회구조 그리고 原語民들의 의식구조와도 관련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 지면관계상 논문의 각주와 참고 문헌은 생략합니다. 그리고 강필성 학우의 논문 '현행보호관찰제도의 운영실태와 그 발전방향'은 추후 게재할 예정입니다.(엮은이 씀)

1995학년도 제주대학교 각 대학원생 모집요강

대 학 원

1. 모집과정 및 학과 :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약간명

- 석사과정 : 국어국문, 영어영문, 사회, 법, 경영, 경제, 농경제, 농, 원예, 축산, 농화, 어업, 수산생물, 해양, 해양환경공, 생물, 물리, 화학, 식품영양, 수학, 식품공, 기계공, 통신공, 에너지공, 전자공, 정보공, 수의학과
- 박사과정 : 국어국문, 경영, 농, 원예, 축산, 농화, 어업, 수산생물, 해양, 생물, 물리, 식품공, 기계공, 통신공학과

2. 시험과목

- 석사과정 : 영어, 전공, 구술시험
- 박사과정 : ①인문사회계열 - 영어, 제2외국어, 전공, 구술시험(제2외국어는 독어, 불어, 일어, 중국어, 한문 중 택1)
* 한문은 국어국문학과 지원자에 한하여 선택할 수 있음
②(비이공)자연계열, 이학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 - 영어, 전공, 구술시험

교 육 대 학 원 (야 간)

1. 모 집 과 정 : 석사과정 및 연구과정 약간명

- 모 집 전 공 : 교육행정, 상담심리, 국어교육, 영어교육, 일어교육, 국민윤리교육, 사회교육, 수학교육, 물리교육, 생물교육, 화학교육, 가정교육, 체육교육, 미술교육전공
- 전 형 방 법 : ①필답시험(영어, 전공과목)
②면접시험
- 특 별 전 형 : 상담심리, 영어교육, 물리교육, 미술교육 제외 각 전공 약간명(서류심사 및 면접)

5. 특별전형대상자 : ①전문대학 조교수 이상의 현직교원 ②초·중등학교의 현직교장과 교감 ③현직 장학관(사), 교육연구관(사) ④현직 초·중등교원 15년이상 교육경력자 ⑤교육행정직 5급(사무관)이상의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⑥본 대학원 연구과정 수료자 및 수료예정자

경 영 대 학 원 (야 간)

1. 모집과정 : 석사과정 약간명
2. 모집학과 : 경영학과(인사관리, 생산관리, 재무관리, 마케팅관리, 회계학, 관광경영, 무역전공)
3. 전형방법 : 영어, 경영학, 면접

◇ 최고경영자과정(야간)

1. 모집인원 : 〇〇 명
2. 지원자격 : ①공·사기업체의 대표 및 임원 ②고급공무원 및 각 군의 고급장교 ③각종 사회단체의 간부 ④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행 정 대 학 원 (야 간)

1. 모 집 과 정 : 석사과정 〇〇 명
2. 모 집 학 과 : 행정학과(일반행정, 지방자치, 사법행정전공)
3. 전 형 방 법 : ●일반전형 : 필답시험(영어, 행정학·지방자치론·법학 중 택1), 면접

- 특별전형 : 필답시험(행정학·지방자치론·법학 중 택1), 면접
- 4. 특별전형대상자 : ①5급이상 공무원 ②영관급 이상 국군장교 ③경위이상 경찰공무원, 교위이상 교정공무원, 소방위 이상 소방공무원 ④교감급 이상 교육공무원 ⑤주요 공기업체 간부 ⑥기타 사회단체 및 사기업체의 간부중에서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고금관리자과정(야간)

1. 모집인원 : 〇〇 명
2. 지원자격 : ①국가 및 지방고급공무원(사무관급이상) ②군·경찰 간부(경위급이상) ③공·사기업체 간부 ④정당등 각종 사회단체의 간부 ⑤기타 독능가 및 지역지도자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지역사회지도자과정(야간)

제주도와 협의하여 선반

◎ 각 대학원 입학 전형일정 ◎

1. 원서교부 및 접수 : 1995년 1월3일~1월10일
(각 대학원 교과과)
고금관리자과정은 12일까지
2. 전형일시 및 장소 : 1995년 1월17일 오전 10시부터 각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은 19일
3. 합 격 자 발 표 : 1995년 1월27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대학원 교과과로 문의 바람.
주소 : (690-756) 제주시 아라동 1번지
전화 : 대학원 54-2152, 교육대학원 54-2162, 경영대학원 54-2171~3, 행정대학원 54-2182